

악마의 에이, 배, 씨...

K. E. 코흐 저
박 달 진 역



교문사

악마의 에이·비·씨

Kurt E. Koch 저

현대야말로 정신병이 창
궤한 시대라 하겠다. 권위
있는 전문의의 진단과 처
방만으로는 갖가지 정신병
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한결름 더 나아가, 악한
세력이 사람들의 정신상태
를 혼란시키고 있다. 때로
그 악의 세력은 위장을 하
고 나타나서 귀중한 생을
납시질한다. 많은 사람들
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
식적으로 하여날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려들어 생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

의학과 신학 그리고 심
리학의 권위자인 독일의
코호 박사는 현대인들이당
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질
병의 문제와 미신의 문제
를 직접 상담을 통해서 해
결의 문턱으로 인도하고있
다. 그는 지금까지 수만 명
의 내담자를 상대로 현대
인의 불안과 억압, 감정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그 인
인을 개념으로서 치료의 열
쇠를 찾고 있다.

뒷면계속 →

악마의 에이·씨·씨...

K. E. 코흐 박사 저

박달진 역

교문사 발행

Devil's Alphabet

Korean Edition

Copyright 2015 Voice Media

info@VM1.global

Web home: www.VM1.global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 electronic, or mechanical method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reviews and certain other noncommercial uses permitted by copyright law. For permission requests, email the publisher, addressed “Attention: Permission Coordinator,” at the address above.

This publication **may not be sold, and is for free distribution** only.

추천서문

코흐(Kurt E. Koch)박사는 신학과 심리학과 의학을 연구한 석학으로서 특히 인간의 변태심리적 현상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쌓은 분이시다.

인간의 심리는 문자 그대로 신비하여 그 깊은 속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이한 심리적 현상과 변태적 표현을 기초로하여 온갖 미신과 사교와 마술이 행해지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올바른 이해가 매우 필요할 줄 생각한다. 그러나 현 한국의 현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나 책자가 사실 매우 결여되어있다.

그런데 금번 사계의 권위인 코흐 박사의 "악마의 에이·삐·씨 (Devil's Alphabet)"란 책이 국어로 번역된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영어에 조예가 깊은 박달진 목사의 번역으로서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쉽게되었다. 모든 교역자 교회학교교사 일반교인들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1969년 11월 일

영락교회 목사

한 경 직

저자의 서문

악마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선동자이다. 악마는 심리학자에게 와서는 “내가 새로운 지식과 이해력을 가져다 주겠노라”고 말한다. 무당에게 “내가 창조의 마지막 비밀을 풀 열쇠를 전해 주겠노라”고 속삭인다. 종교가와 도덕가에게 완전히란 탈을 쓰고 하늘에서 내리는 도움을 약속한다. 그리고 합리주의자와 자유주의 사상가에게 와서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 실존하지 않는다는 말이요”라고 말한다.

악마는 교묘한 전략가이기도 하다. 그는 전장의 모든 전술을 통할하는 자다. 악마는 전선을 안개로 뒤덮어 놓는다. 공허한 종교적인 말로 위장도 하고 최선의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일을 치른다. 악마는 사회와 인간적인 측면으로 자기 주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간다.

사람들을 속이고 피어내어 울무에 걸어 희생물을 삼는 것이 악마의 유일한 목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자가 누구이겠느냐고 묻는다. 누가 이런 전략 가며 모사인 악마와 대항할 수 있겠는가?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전장에서 모든 것을 감행하는 자만이 가능하다. 광야에서 악마를 격퇴시킨 이가 바로 그분이었다. 어둠의 장막을 찢고 모든 사탄의 권력을 무찔러 갈보리 산상의 구세주가 되신 이도 그분이었다.

사도 바울은 골 2:15에서 다음과 같이 승리의 환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그리스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 보아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모든 능력을 부여 받으신 분이시다. 그는 모든 것 중에서 우선 권을 갖고 계신다. (골 1:18)

여러분은 이 책을 읽어 가는 중에 미신과 사교의 현상 및 효과를 본질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많은 구체적인 경우의 이야기가 등장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처음부터 이 실례들이나 자신의 상담 경험에서 얻은 것이기에 별로 모순됨이 없음을 알려 둔다. 모든 예가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과 실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얻은 것임을 여기서 지적해 두는 바이다.

저자 씀

제 4 판에 붙이는 서문

이제 이 책이 제 4판을 거듭하게 됨을 계기로 다음의 색소 요법 (Color Therapy), 불속 거닐기, 정신감응요법, 방언운동, 움반다와 마쿰바(Umbanda and Macumba) 등 다섯 항목을 첨가 확장하였다.

오늘날 세계는 사신(邪神)운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무수히 엄습해 오고 있다. 우리는 20세기의 최 후반기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를 들고 하늘과 땅의 위 아래까지 지배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찾아야 하겠다.

싸움은 끝나고 주님은 승리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힘입어 패배한 적들의 온갖 역습을 막아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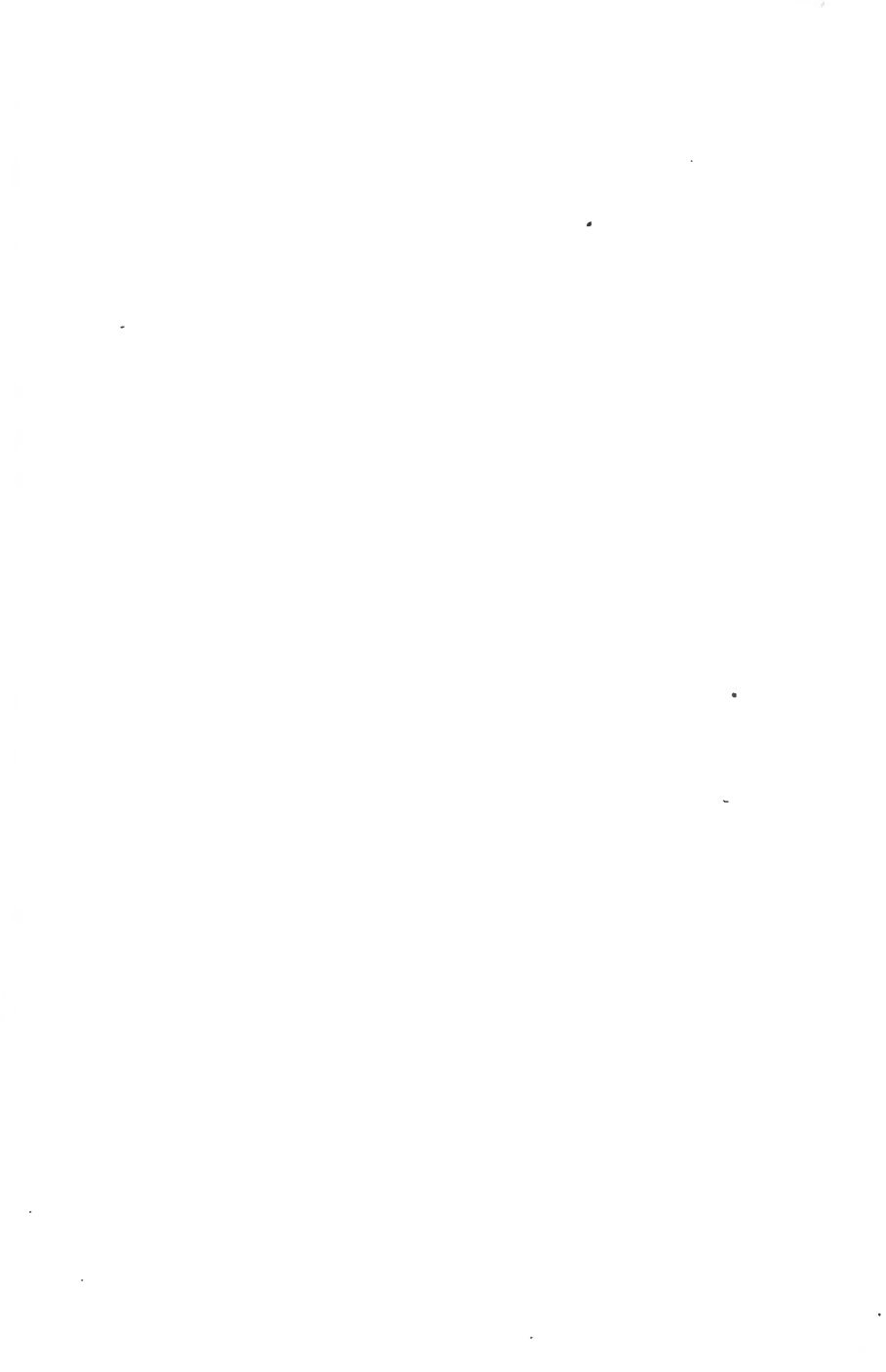
저자 코흐 씀

목 차

추천서문	3
저자서문	4
제4판에 붙이는 서문	6
I. 미신 및 사교에 관한 견해	11
II. 악마의 에이·삐·씨	15
1. 부정 및 호신패	15
2. 인축술	15
3. 점성술	17
4. 무신론	20
5. 흑·백마술	21
6. 헌혈굿	25
7. 카드점 (占)	27
8. 복술	29
9. 보건의 기독교	32
10. 천리안 미신	34
11. 색소요법	36
12. 졸음의 마술	38
13. 눈 진단	39
14. 광신주의	44
15. 서물승배	55
16. 불속 거닐기	56
17. 점 (占)	59

18. 목계주의	61
19. 유령	66
20. 이단	72
21. 일반최면	74
22. 호신서(護身書)	76
23. 마술적 치유	79
24. 정신최면	79
25. 최면술	81
26. 현대판 신학	83
27. 월점(月占)	83
28. 신(新)합리주의	84
29. 수(數)상징주의	88
30. 사교문학(邪教文學)	89
31. 길흉점	90
32. 손금보기	92
33. 정신분석	93
34. 정신기술판	98
35. 정신측정학	99
36. 신대·신추	100
37. 영사(映寫)	103
38. 사주(四柱)	104
39. 강신술	105
40. 미신	109
41. 정신감응술	111
42. 방언운동	112
43. 전이(轉移)	116
44. 움반다·마쿰바	124
45. 사마귀떼기	126

46. 마술	128
47. 요가	128
Ⅲ.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134
1. 미신의 영향에 관한 개략	134
2. 미신과의 투쟁	137
3. 구제의 실례	139
Ⅳ. 신약성서의 교훈	160



I. 미신 및 사교에 관한 견해

미신은 공포와 권력욕에서 생겨나기에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가장 크게 더럽힌다.

“미신이란 일상적인 자연 법칙의 지배를 벗어난 형언할수 없는 어떤 세력과 현상이 정신적인 면에 의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들이 그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과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신념을 뜻한다.” 이것은 슈랑크 박사(Dr. Schrank)가 그의 저서의 “미신의 심리”(Psychologie des Aberglaubens im Riedel-Archiv)에서 미신의 참된 본질을 정의하여 한 말이다.

미신과 신앙은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의 이념과 종교적인 개념을 다같이 담고 있으면서도 서로 날카롭게 대립한다. 예컨대, 불교신자나 회교신자는 기독교 신앙을 미신 내지는 이단이라고 공격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어떠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전개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다.

우리교회가 미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우리가 볼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언제나 변하는 이념의 물결과 부딪쳐 그 물결을 흘으시는 부동의 바위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앙이며,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모든 것은 미신이다. 이것은 우리가 미신적인 사고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기준이다. 우리는 그 기준을 물리학적인 원리에서 만 끌어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끌어 내어야 한다. 이런 확신에서 우리는 이미 중요한 분계선에 도달하고 있다. 미신을 반박하는 과학서적을 읽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단번에 그것이 미신에 대한 기독교의 비판판 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과학은 다만 자연법칙과 인간적인 개념 만을 인식할 뿐이다. 물질세계도 꼭 마찬가지다. 더구나 과학에서는 지능과 합리성만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것, 악마와 신적인 것 등의 모두가 조사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은 과학 자체의 협소한 합리적인 한계에 들어 오는 것 만을 이해할 뿐이다. 이 때문에 악마도 이성의 단계로 떨어져서 종종 수수께끼를 풀려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의해 미신을 설명하기란 어렵다. 물론, 과학자의 방어수단에 불충분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요한 크루제(Johann Kruse)가 쓴 "우리들 중에 있는 무선(巫信 Hexen unter uns)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본 자료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오늘날 미신에 관한 가장 유익한 저서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지만 저자는 미신과 연관된 순수 현상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일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력이나 주문을 의위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무해한 행위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그는 미신의 참된 밑바탕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다.

한편, 과학은 심층심리학에서 해답을 찾으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신을 설명하려는데 큰 관심이 있다. 그 한 예로 슈랑크 박사는 유명이 나타나는 것을 인간의 무의식의 투사라고 간주한다. 그는 또 보통사람들은 소위 집단적인 환각에 사로잡혀 고생할때 귀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설명해 주는 실례는 많다.

엔슈(Jansch)가 말하는 환영(幻影 : eidetic images)이나 융(Jung)의 원형설(原型說 : Theory of Archetype)도 그런 해석이 가능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독교의 관점

은 순수한 과학적 사고의 범위를 초월한 사건과 차원을 이야기한다.

미신은 우둔과 경신(輕信)의 증거요, 지식과 계몽이 부족한 증거이며 또한 신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향하는 편견의 표시이다. 인류는 두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찢긴채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 신앙을 향해서 문을 닫는 것은 곧 미신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사탄이 우리를 결박한다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이를 다음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 12).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세력들의 존재에 관해 듣고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다른 어떤 극단적인 주장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악마라고 낙인찍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과학의 역작들을 이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땅을 정복하라 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명령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창 1: 28).

그러나 과학이 최후의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순전히 가정(假定)에 불과하다. 비록 세상에는 정 반대의 두 세력이 서로 버티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 두 세력 사이에서 하염없이 질질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땅에 의존하지 않은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던 알키메데스(Archimedes)의 소원은—물론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멸절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시편기자는 완성에 이른 승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 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 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 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데다’ (시 118 : 15, 16).

죽음과 지옥의 세력은 정복 당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훗날 이 승리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악마의 마지막 남은 힘의 흔적조차 없이하실 것으로 알고 악마의 권세와 대항하여 분명하고 자신있게 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사탄이 가진 공포의 세력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 말씀 주셨다. 즉, “보라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철저히 우릴어 봄으로써 악마를 송두리채 제거할 수가 있다. 이것은 주를 경외함이 사탄을 경외함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II. 악마의 에이·뻘·씨

1. 부적 및 호신파

지난 수 천년 동안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이 부적(아랍어로는 hamalet)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곳의 원주민들은 범의 힘을 얻기 위해 범의 발톱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유럽 사람들 중에는 문간에 말굽을 박아 놓고 행운을 비는가 하면, 시계줄에 부적을 다는 사람들도 있다. 스위스 사람들 중에는 눈에 전염병을 막기 위해 조그마한 귀거리를 달고 다니는 이들이 있다. 운전사는 자동차 안에 마스코트나 부적(talisman)—아랍어로는 tilsam—마술그림—을 걸어 놓고, 조종사는 행운을 비는 뜻에서 개 종류의 조그만 짐승이나 카나리아 등을 바닥에 놓아 두기도 한다. 군인들 중에는 총상을 입지않고 가호를 비는 편지를 지니고 다니는 이들이 많다. 그렇지만 관습이야 어떻든 그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신하기 위해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2. 인측술(人測術)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가 시작한 인측술은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로는 인측술은 생각과 뜻을 집중하여 사람에게 잠정적인 미신의 힘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실제로 굿을 하기도 한다. 신비적으로 본 환상을 구축주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서적 신앙판으로 대치한다. 인측술의 기본 교리중의 하나는 재생육신(re-incarnation)의 신앙이다. 이 신앙은 인간이 800년 마다 한 번씩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를 두 가지만 들어 보기로 하자.

1. 스웨덴의 한 교수가 최면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그는 자기 아내의 어린시절과 처녀시절 및 그 이후의 시기와 관련된 문제를 주제로 자기 아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최면술에 걸려 그 여자는 정확한 답변을 했는데 후에 사실 기록과 견주어 보았을 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성육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자기들의 신앙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2. 내가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뉘니히에서 칼스루에를 가는 길인데 한 사람이 길을 가로 막고 차를 좀 태워 달라는 것이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그와 이야기하는 중에 나는 그의 직업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때 그는 인축술을 하는 신부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나는 당신이 믿고 있는 인축술의 핵심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재성육신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나 800년 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사람의 현재의 취향과 의도와 경향을 보고 800년 전의 일 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800년 전 일을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내게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편견이 무엇이나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대답하기를, 성직자들이 하는 꼴을 보면 미칠 지경이라고 했더니 그의 하는 말이, “800년 전 당신은 신학 교수였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가 말하는 논리의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나도 우리가 몇 마디 말로 인축술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에게는 후텐(Hutten)의 저서 “선전자, 사상가 열광주의자”(Seher, Grueber, und Enthusiaten)를 권하고 싶다.

여기서는 다만 그 개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슈타이너의 논법은 인도철학, 영지주의, 무당, 신지학, 기독교 사상을 혼합한 것이어서, 상당히 매력은 있으나 위험하고 옳지 못한 사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내가 본서 제1판을 출판했을 때 루돌프·슈타이너의 옛날 친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그분의 하는 말이, “나는 슈타이너의 최탈 편지를 받고 내용을 보니 책상을 감추는 방법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신을 혼란케 하는 방법이기 에 그 운동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은 인 측술에 눈이 멀어있는 이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는 좋은 예 가 될 것이다.

3. 점성술

여기서 우리는 미신의 열띤 광기도 알아볼 겸해서 점성술에 관 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슈람크 박사는 “미신의 심리”(Psychologie der Aberglaube-nis)란 책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점성학자인 베를레(Werle)는 점성술을 광분 또는 집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신의 수렁에 빠져서 확고한 과학의 기반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한 정신적인 혼란, 생에 대한 공포, 절망 발광 등이 미신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 한 것 인가를 알수 있다. 점성술은 독창성과 판단력을 마비시 킨다. 또 약한 심정일 경우 둔하게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한다. 사람의 인격을 전부한 하층구조로 떨어뜨리기 까지 한다”고 괴 력하고 있다.

과학자나 의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진댄, 다시 여기서 그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살아 가면서 최근에 경험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3.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두 강좌를 마치고 갔을 때 불란서 의 한 목사가 내게 가까이 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 었다.

파리에 있는 슬본느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미

신의 심리를 파헤쳐 그것으로 박사 논문을 쓸 생각이 있었다. 그 목사는 학생을 돕고자 하는 뜻에서 신문에 자기는 점성학자인데 누구든지 30실링을 선불하는 사람에게 자세한 십이궁도(十二宮圖; horoscope)를 보내 주겠다고 광고를 냈더니 바로 그 학생이 30실링을 보내왔기에 보내 주었다는 것이다. 그 학생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무사히 학업을 마칠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십이궁도에 있는 원리들이 모두 모호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모든 내담자들에게 태어날 때의 점괘를 맞춰냈다는 것이다. 우선 개개인의 성격을 일일이 파악한 다음 정말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십이궁도를 나누어 주었더니 감사의 편지가 쇄도하여 그 학생은 박사학위 논문도 쉽게 쓸 수 있었고 그의 실험은 완전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4. 한 젊은 이가 점성사를 찾아 상담을 청했다. 점성사는 십이궁도 한 장을 들고 하는 말이 당신은 아주 젊어서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맞는 아내와는 곧 이별을 하고 두 번째 맞는 아내와 행복을 누리겠다고 말했다. 돌아가서 이 청년은 곧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날 이 청년이 자기형을 향해서 오늘 결혼하는 이 아내는 진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맞는 아내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이므로 그 여자를 얻기 위해 우선 오늘 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하고 말했다. 이 젊은이가 얼마나 큰 오해를 갖고 결혼에 임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이 첫 번째 신부는 매우 좋은 신부여서 곧 시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다. 결혼생활 3년 만에 세째 아기를 낳고는 남편이 아내를 떠나 갔다. 얼마 후에 정식 이혼을 했다.

그후 십이궁도에 적힌 대로 자기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생각에서 두번째 아내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 행복이란 것도 겨우 몇 달에 불과했다. 이 새 부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광신

자가 되었다. 남편은 자기 아내의 광신을 끝내 반대했지마는 듣지 않으므로 또 버리고 이혼을 했다. 말하자면, 이 젊은 청년은 부질없는 점성술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이제 천문기상 학회가 1949년에 공식으로 밝힌 점성술에 관한 성명을 들어 보기로 하자.

“천문기상학회는 서독 본에서 모임을 갖고 현 시대에 흥미하고 있는 점성술의 악영향에 경계를 촉구하는 바이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뜬 별의 위치에 따라 일생이 좌우된다거나 혹은 자기의 공적, 사적 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을 신봉하는 신앙은 전 인류와 더불어 이 세계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고대 천문학의 사고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사라진지 벌써 오래다.

점성술 또는 오늘의 우주생물학을 빌린 그 어떤 것도 다 미신이며 표리부동할 뿐아니라, 상업적 계산의 혼합물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을 다 분석하고 예언 한답시고 표준규격으로 인쇄된 유인물을 없애 버린 점성학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대신으로 자기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해서 고안해 낸 소위 ‘과학적’ 점성술을 만들어 놓았다. 여하간에 이런 새로운 점성술이 과학이나 과학적 방법론과 과연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점성술로 예언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바꾸어 놓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

점성술이란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어 놓은 부질없는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또 이런 식의 논리로는 공 사 간의 모든 문제를 과학적 기반에서 설명할 수도 예언할 수도 없다.

천문관측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개인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점성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항상 받고있다. 그

려나 그들의 의견은 본 천문학회에서 공적으로 발표한 성명파
다를 바 없음을 명기해 두는 바이다.”

4. 무신론

무신론은 또 하나의 미신의 요새다.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모순된 논리를 저니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않는 것은 사
실이다. 그 대신 그들은 미신의 노예가 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
장 유명한 냉소주의자인 볼테에 (Voltaire)의 생애가 바로 이것
의 한 본보기이다.

일반적으로, 호전적인 무신론자들의 생활치고 그 가족들이 행
복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5. 한 젊은이가 내게 와서 상담을 청했다. 그의 가족들은
몇 년 동안을 비정상적인 생각과 정신으로 수없는 고생을 해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기에 나는 혹시 가족 중에 정신병이나 아
니면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다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그에게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
다. 그의 할아버지는 함부르크 근처에서 도매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쌀쌀한 편이어서 이따금씩 신을 훼방한다는 것이다. 그
는 기회만 있으면 글을 쓰거나 또는 논쟁을 벌여서 기독교를 진
흠창에 몰아 넣을려고 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물
려준 정신적인 유산이 자손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준 것입
에는 틀림없다.

6. 무신론자 한 사람이 기독교를 경멸하는 글을 쓴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사람은 한 사
람도 없었다. 그의 자식들은 절름발이로 태어나거나, 난지 얼마
안되어서 병에 걸려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었다. 몇몇 자식들은
정신착란을 이트키는가 하면, 손자들중 몇도 정신착란으로 고생
을 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그의 후손들은 거의가 침울하여 억압

잡애 사로잡히는 등 전부가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스스로 속이져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갈 6:7).

이상의 이야기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그 집안의 한 손녀가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이다. 불신앙과 미신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짝을 짓게 하며 이 악마의 세력들은 인간생활을 자기들의 무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5. 흑·백마술

흑백마술은 악마 자신이 창안한 것으로써 그 역사는 수천년을 계속하여 올라간다. 마술의 기원과 그 결과는 과학의 견지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다. 즉, 그것은 미신세계의 결서에 속한다. 그런데, 그 마술은 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마적인 성격이 들어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고후 11:14) 하는 말씀은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수많은 경우, 사람들은 “흑마술은 악마의 소살이나 백마술은 선한 힘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이런 혼동은 매우 널리 퍼져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흑마술이 유행하여 선교사들도 백마술을 써서 흑마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백마술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고 선교사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위해 나는 그것에 관한 책 한권을 쓰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책이 출판된 오늘의 선교사업은 어떠한가? 백마술은 결국 마술의 견해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잘못으로 들어났다.

마술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에 내가 쓴 “그리스도와 사탄”(Between Christ and Satan)이란 책에서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술이 가장 빈번한 영역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즉, 병을 고치고 병을 주는

일, 사랑과 증오의 마술, 뱀박과 방어의 마술, 주문을 짓고 부수는 일, 죽음의 마술 등등 이러한 악미의 끔찍스러운 활동무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자.

7. 중병에 걸린 한 여인을 두 전문의사가 와서 보고는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곧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페터첼에 사는 후겐토플러라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마술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 그가 다녀간 후로 부인의 건강은 좋아졌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여자는 세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그 부인은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부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여인은 모든 유혹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8. 한 남자가 스위스에 있는 악명 높은 마술사인 마리아 아인저—델에게서 치료를 받았다. 그 환자는 마술사의 병고치는 능력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느냐고 물었더니, 마술사의 대답이, “실은 마술이 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마술을 써야 한답니다”고 하였다.

9. 62세된 할아버지 한 분이 후겐토플러와 슈나이더라는 두 마술사를 찾아 갔다는 후로 부터 기억상실증에 걸려 무슨 일을 집중해서 할수 없게 되었다. 그는 몸은 치료를 받았으나 동시에 그는 정신과 신경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10. 한 남자 분이 어렸을 적에 마술사의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 결과로 그는 몸의 병은 치료를 받았으나 성생활에 크게 지장을 가져와서 지금까지도 절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 한 결혼한 남자가 독신 처녀에게 구혼을 했다. 구혼을 받은 처녀는 결혼한 남자의 구혼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

남자는 처녀를 협박하면서, “비록 당신이 나를 싫다고 했지만 나는 앞으로 나의 될 일과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모조리 알아낼 수 있단 말이요”하고 공갈을 했다. 그때부터 그 처녀는 밤만 되면 문과 창문이 다 잠겼는 데도 그 남자가 들어 와서 자기를 능욕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럴때 마다 그 여인은, 신경이 마비되어 저항을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믿고 내게 와서 그녀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12. 19세된 한 소녀가 갑자기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 문과 창문이 다 잠겼는데도 어느 남자가 들어 와서 자기를 능욕하는 것이었다. 그 소녀는 뜻밖에 이런 일을 당하자 울 사이도 없이 전신이 마비되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다음날 그 소녀는 그가 일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젊은 남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남자가 바로 전날 밤 자기 방에 침입해 들어 온 사나이를 닮았었다. 그때 그 젊은 남자의 하는 말이, “지난 밤을 나는 당신과 함께 보냈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흑마술과 애정의 마술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해서든지 벗고 싶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그는 자기가 흑마술만 쓰면 무엇이든지 해낼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13. 한 부인은 밤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욕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육체적 경험을 말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악마가 떠나간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어렸을 적에 그와 똑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어떤날 밤에 고양이 한테 할퀴고 아침에 깨어보니 자기 손톱으로 손과 목을 할퀴 사실을 알았다.

이상의 세 가지 예는 꼭 성적인 환각의 경우 만은 아니다. 정신분열증에 걸린 환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압박하는 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할 때 그것이 마술적인 놀음일 경우 곧 도움

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14. 한 여인이 아기들을 태우고 다니는 유아차를 도둑맞았는데 그녀가 무당인 흥거빌러씨와 상담한지 3일 만에 잃었던 차가 되돌아 왔다. 그후, 그 여인은 노이로제로 고통을 받았는데 부활절과 성탄절 만되면 심한 억압감에 시달리곤 한다는 것이었다.

15. 발틱해에 있는 독일섬인 튀겐의 한 목사가 나에게 그곳에는 소위 “도적방지 축복”의 미신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고기잡는 그물이나 바구니에 “도적방지 축복”의 미신을 모시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도적이 밤에 고기를 도적질 하려고 할 경우 밧에 걸려 바구니속을 빠져 나가지 못함으로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도적을 잡는다는 것이다.

16. 스위스에 사는 한 여인이 내게 상담을 하려고 찾아왔다. 그녀는 어릴 적에 밤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는 것이었다. 농장의 마굿간이 크게 손해를 입는가 하면, 매년 크리스마스과 부활절이 다가오면 돼지 병아리등 가축이 모두 죽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토이펠 출신의 유명한 마술사 슈나이더(Schneider)를 찾아 갔더니 몇가지 방어마술을 일러 주더라는 것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흑마술을 쓰는 사람이라고 의심을 받아온 이웃집 한 아내가 정신이상자가 되고 부터는 가축이 죽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17. 한 젊은 부인이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결혼 후부터 심한 정신장애를 일으켰다. 때로는 열병 까지 겹치게 되었다. 후일 흥거빌러라는 이름있는 천리안 마술사를 찾아 갔더니 그분의 딸이, “당신은 마술에 걸렸군요. 당신의 이웃이 마술을 결코 잊을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부인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초자연적인 힘을 소유한 이로 이룰날 카드를

사용하는 한 마술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 마술사는 과거에 3년이 채 못되어서 히틀러가 무너지리라 하고 예언한 죄로 전쟁 중에 옥살이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천리안 마술사와는 전혀 달리는 말이, “당신 이웃 중에 흑마술에 정통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마귀와 함께 손잡고 일하는 사람인데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그 부인은 고통이 심해 병원에 입원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의사도 원인을 찾아낼수 없는 열병이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은 이웃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 하나 하나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한 사람이 6, 7세기의 모세 5경에 나타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한 이웃 사람이 그에게 와서, “당신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잘 주의해 보십시오. 당신의 왼편 집에 살고 있는 분은 당신 선조의 아내를 과거 화멸로 몰아넣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농장이 그토록 비옥한데 몹시 시기한 나머지 자기는 돌만이 가득한 농토를 온종일 일꾼을 사서 가꾸고 있습니다” 하고 귀뜸해 주는 것이었다.

18. 나는 어느 곳하는 무당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병고치는 곳을 할 때에 환자가 기도를 드리면 질색을 하는 이였다. 환자를 고치려다가 환자가 기도를 드리면 성이 발칵다서, “나는 당신과는 도저히 아무 것도 못해 먹겠으니 척 풀러나타”고 호통을 치곤 하는 것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병고침을 위해 찾아 온 한 여인이 기도를 드리자, “이 늙은 암소야 썩 풀러나 풀아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6. 흰 철 굿

이것은 미신과 매우 관련된 굿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19. 한번은 어떤 부인이 자기 피를 뽑아서 악마에게 기부했다. 이 여자는 악마를 호출하는 15명의 정령승배 클럽의

한 멤버였다. 피를 바치기만 하면 예의없이 무시무시한 악마가 나타나서 회원들은 난음난무로 수라장을 이룬다. 그 여자는 이 클럽의 무당이었으며, 지도자 되는 사람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간에 최면술을 써서 접촉할 수 있다고 한다.

하루는 이 부인이 부흥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다. 그러자 즉각 그부인에게 심한 고통과 유혹이 왔다. 밤만 되면 그녀는 자살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 밀어닥치는 극도의 불안 때문에 나에게 상담을 청해왔다.

그런데 하루는 악마가 그 부인의 가슴에 악마의 소유를 표시하는 말굽자국의 인을 찍어 놓았는데 그 중간이 S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가련한 이 부인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 정신병리학자 몇 분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여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이었다.

20. 또 한 여자가 두 번이나 악마에게 피를 뽑아 바쳤다. 그 여자가 결혼 1년 만에 첫 아기를 낳아 그 아기를 악마에게 바쳤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기가 노망기가 있었다. 지금 그 아이가 여덟살 밖에 안되는데 벌써부터 머리칼이 빠지고 마치 50세된 노파 처럼 얼굴에 주름살이 나타나는데 아닌가 말이다.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무당이였다. 아이 어머니가 무의식 중에 자기에게는 네 귀신이 붙어 있다고 실토했다. 내 친구 중 목사 한 사람이 그 여자를 찾아 갔더니 자기를 꼭 붙잡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를 받고 있노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대경질색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21. 카드를 사용해서 점치는 한 점장이의 딸이 어렸을 때 여러 번 자기 피를 뽑아 악마에게 바친 적이 있었다. 그녀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자각을 하였다.

그녀는 목사의 권고를 듣고 모든 죄를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기독교인이 못되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는 신명기 18장을 읽고 있는데 너무나 화가 치민 나머지 성경의 그 페이지를 온통 잉크로 물들여 놓고 말았다. 그 이유는 신명기 18장이 주문 접술 요술 등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그녀는 자기가 더럽혀 놓은 성경을 보고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상한 세력이 틈을 타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몇 사람이 함께 모여 그 여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그 여자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22. 알프스 계곡에 사는 한 남자는 수년동안 자연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는데 많은 재미를 보고 있었다. 그는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사형선고를 내린 환자도 고칠 수가 있었다. 절름발이 귀덕어리도 고쳤다. 하루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자기의 생활이 어떤 마술의 덫에 걸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고칠 수 있으면서도 나 자신은 결코 아니 영원히 고치지 못하는구나”하고 탄식하였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에 자기 피를 악마에게 바친 일이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피를 악마에게 헌혈하는 사람과 만나서 상담한 두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만이 궁극으로 그들을 악마의 속박에서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7. 카드 점

카드를 놓고 점치는 일은 미신적인 장난이면서도 매우 널리 보급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사기를 해서 돈을 갈취하는 수법, 암시적 정신감응술을 써서 점을 치는 수법 및 정신을 명칭하게 해서 악마의 기능을 발휘하

는 술객도 있다. 이에 관해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23. 49세된 한 부인이 다음과 같은 그의 가정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카톨릭 신자인데 시어머니는 동시에 카드 점장으로 유명하였다. 그런데 자기 남편과 자식들은 이상하게도 억압감정에 눌려 때때로 신경질을 부리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부인도 역시 남편과 시어머니의 불안한 태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교회만 가려고하면 구토를 하고 무뎠이 난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부인은 몇 주간 동안이나 간호를 해야만 되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좋은 모습으로 죽고 말았다. 그런데 그 죽은 시어머니의 무덤 곁에 신부가 "성자"란 칭호를 붙여 놓은 것을 볼 때 그녀의 친척들이 신부와 매장문제를 상의하는 중 신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틀림 없었다.

24. 한 젊은 남자가 내게 와서 상담을 하는 중 자기는 카드점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었다. 장모가 이상한 마술을 지녔음인지 가정에서 싸움이 날때 마다 장모편을 들지 않으면 꼭 그후에는 장모의 마술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그때 마다 몸은 가렵기 시작하고 많이 일어 맞은 것 처럼 피곤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런 치료방법도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 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장모는 액운을 점칠수도 있는 사람이어서 한번은 하는 말이, "오늘 밤 군인 한 사람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 나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믿을 것이 못되었으나 이틀 후에 신문에 그와 똑같은 사적이 보도되었더라는 것이었다. 그 의에도 장모는 중요한 편지가 언제 도착할 것이며, 그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 까지도 미리 알아 맞추는 것이었다.

한번은 사위가 장모에게서 일어 맞고 그 사실을 정신병리학자에게 말했더니 급기야는 의학협회의 추천으로 그 장모는 심병

치료를 위해 임상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 이 사위는 몸이 다시 가렵기 시작하고 온 몸이 두들겨 맞은 것 처럼 아프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도 자기에게서 그러한 전디키 어려운 고통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

25. 어린 소녀 하나가 카드점을 치는 한 부인을 찾아갔다. 그때에 절장이의 하는 말이, “앞으로 당신은 부정한 관계로 아기를 낳을 것이며, 결국은 남편마저 당신을 버릴것이다”고 했다. 그런 일이 있은후 1년을 지나 그 소녀는 학생인 한 남자와의 사이에 부정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지금도 그녀는 혹시나 학생인 남편이 자기와 아기를 버리거나 앓을까 하여 속을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8. 복 술

마법, 마술, 홀리는 마술, 요술, 주문, 동정마술, 축귀등은 마술사들이 병고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합리주의자들이 지적하듯이 그것은 아무 의심 받을 일 없이 면속학을 진공하는 학생들이나 다룰 것으로 알고 지나쳐 버릴수는 없는 문제이다.

마법이란, 마술로 병자를 다루는 것을 뜻한다. 이 마술은 때로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행하기도 하지마는 보통 요술을 사용해서 한다. 이 요술은 악마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저주받기에 알맞다. 물론, 여기서 마술의 성격을 세밀히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쓴 “그리스도와 사탄”이란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여기서는 마법을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련다.

26. 마법사인 한 젊은 부인이 자기 꼬마 아이의 병을 고치겠다고 계속 주문을 읽고 있었다. 그 아이가 여덟살이 되면서 부터 극심한 신경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고문도 하고 산채로 생매장을 하려고했다. 그 아이는 열 세살이 되면서 부터

지독한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지금은 술을 15~20되나 매일 마시고 있다. 그의 성생활은 매우 난폭하여 집승과 성교를 하는 판이다. 그래서 그 마을 목사가 그의 걸걸 하나 하나를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주문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27. 스위스의 에멘탈의 한 마술사가 심한 흥역을 앓고 있었는데 섭씨 영하 20°나 되는 정월 추운 날에도 바지와 셔츠만 걸치고 거리를 뛰어다녔다. 간혹 가족들이 붙들어도 방에 가두면 창문을 뛰어 넘어 밖으로 달아나곤 했다.

28. 한 농부가 자기는 말을 마술로 퐁퐁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자랑을 늘어 놓았다. 하루는 그의 아들이 네 필의 말을 마차에 매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가 기차에 치어 아들도 말도 죽고 말았다. 그런데 그의 다른 두 아들들도 형편없이 도덕적으로 나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그 농부도 흥칙하게 자살을 하고 말았다.

29. 어떤 지방에서 가족들에게 흑사병이 퍼진 일이 있었다. 한 마술사가 농부들에게 마술을 기록한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이 종이를 외양간 속에 두면 피해가 없다고 일러주었다.

오늘날 이 마을은 신을 모독하는 마을로 유명하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신을 모독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내가 어느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30. 마흔 두살난 남자가 나에게 와서 상담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주문을 외워 동물을 고치고 전염병도 예방했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자식들이 병이 나면 그의 집 가까운 곳에 묻어두었던 돼지 껍질을 갖고와서 삼신의 이름으로 마술을 써서 고치곤 했다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진단만 하면 언제나 병이 회복되었는데 증조할아버지의 후

손들이 그 후환으로 무척 고통을 겪었으며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 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에는 교회에 나가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했다. 그들 중에는 천리투시안을 가진 마술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그 외에도 네명의 손자들은 성적 광신자들로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그 집에는 유명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자신도 저주를 받아 결혼을 할수없게 된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어떤 소녀와 약혼을 했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31. 중풍에 들린 한 여인이 친척의 부축을 받아 소위 기도로 병을 고친다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 사람은 같이 간 친척들도 알아 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더니 다음 날은 환자의 귀에서 약간의 고름과 물을 빼내어 환자 얼굴에 바르자 걸어가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환자의 자식들은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두 손자와 한 아들은 지탈병에 걸려 그들 모두가 원하면서 기도교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32. 어떤 목사 한 분이 와서 그가 어렸을때 사마귀 마술사한테 간일이 있다고 했다. 그 마술사는 이상한 곳을 해서 다음 날 사마귀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그후 그 목사는 마술사가 되었다. 후일 자기가 목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마술사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마술사의 임종을 지켜보던 간호원의 말에 의하면, 수 일 동안을 몹시 신음하고 저주하며 몸부림치다가 죽더라는 것이었다. 그가 죽어간 방에는 악취가 나서 간호원도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은 기회가 있어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벌써 시체는 해골이 부서져 온통 새까맣게 되어 누어 있는게 아닐까.

마술은 심한 압박을 가져다 준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고 성서는 말한다. 다음의 예는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83. 한 번은 28세된 부인이 와서 상담을 청했다. 그 여자는 5년 동안 습전으로 고생을한 분으로 피부과 의사도 그 원인을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인에게 혹시 가족 중에 무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인은 있다고 대답했다. 그 여인의 할아버지는 삼신의 이름으로 동물들을 고쳐주는 마술사요, 할머니도 마술사였던 것이다.

그의 두 자매도 의미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부인 자신은 시력이 더해서 예언자적인 꿈도 꾸게되었다. 하루는 꿈에 자기 형부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내일 집에 갈 거요."하더라는 것이다. 야닌게 아니라, 그 다음 날 알제리아에 있는 형부가 돌아왔다고 했다.

또 한번은 꿈을 꾸는데 검은 손 몇 개가 자기에게 미치더니 까만 쥐 몇마리가 그의 다리를 잡아 먹는 꿈이었다. 꿈을 깬 다음 날 자기 여동생이 찾아왔는데 까닭없는 짜증을 몹시 했다는 것이다. 그때 다리에 습진이 다시 생겨 이제는 고쳐져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 갈아서는 정말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받았다. 나는 그와 더불어 기도를 하였다. 그랬더니, 다음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함께 기도한 그후로 다리에 생긴 습진이 말끔히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9. 보건 기독교

보건 기독교는 그 행위를 보아 무신운동(巫信運動)에 속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 운동의 창시자인 M.B. 에디 여사는 본래 영계를 주창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죽음이나 질병은 우리들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오

늘날은 입종할만한 끈기가 하나도 없다. 이 운동의 창세자도 그러했지만 보전 기독교를 믿는 신자라도 결국에는 죽고 만다.

나는 상담을 통하여 주로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그들의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 그들의 하는 일로 미루어 보아 그들 가운데 영매(靈媒)의 힘을 빌어서 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종종 내게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들이 보전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후엔 반드시 그들 치유자들에게 학대를 받는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더 여사의 일기가 출판되었는데 그 책에서 여사는 정신적 힘은 때로는 사람을 고치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해를 입히기도 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이것을 “악용”이라 칭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보전 기독교의 심복들은 이탈자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보전 기독교에 깊이 빠졌던 한 사람이 자기의 파오를 깨달았을 때 그 운동에서 손을 뗄 것을 선언하였다. 그때 그는 보스톤의 본부로부터 그러한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서한을 받고 난 바로 직후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게 되더니 그의 피부가 뻔뻔해져서 벗겨지기를 두 번 결국에는 죽고 만 것이다. 나는 이와같은 경우를 마술에서도 여러 번 보았다. 마술사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병을 쉽게 고칠 수도 있는 반면에 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35. 한 부인은 보전 기독교 운동의 한 회원으로 활약한지 몇 년 후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부터는 즉시 단체를 떠나고 말았다. 그때부터 이 부인은 이상하게도 시험에 들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전에 다니던 보전 기독교의 치유자가 어떤 마력의 해 자기를 접탈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다.

36. 여섯살난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그의 부모는 보전 기독교 교인이었다. 교인들이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우리가 오늘

밤 그 아이를 열심으로 지킨다면 낮게될 겁니다.”하고 말했는데 다음 날 아침 7시에 부모에게 전화로 “아마도 그 아이가 지금 좋은 상당히 좋아진것 같습니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때 어머니의 대답은 그런데 내 아이는 이미 지난 밤 12시에 죽었는걸요”하는 것이었다.

보건 기독교 신자들은 이따금씩 철없는 기독교인을 속이기 위해 기독교의 사상을 과장되히 위장한 책자들을 출판하고 있다.

유명한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Christian Science monitor) 제통의 신문이며 아그네스 샌포드가 쓴 “치유의 빛”(우리말로 번역되었음)이란 책도 잘된 책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매우 거리감이 있다.

10. 천리안 미신

천리를 본다거나, 천리를 듣는다거나, 또는 천리의 일을 안다고 하는 따위는 모두 무신(巫神)의 세력 내지는 그것에 종속된 제통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관한 문제는 내가 쓴 “신앙 상담과 사교(Christian Counselling and Occultism)란 책(48-64)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다음에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37. 여섯살난 소녀 아이가 하루는 밤에 이웃에 사는 사람이 자기집에 불을 놓는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 부모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꿈 이야기를 하지말라고 일렀다. 일년 후 이 꿈이 그대로 맞았다. 하룻밤 사이에 집이 전부 타버린 것이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웃 사람이 방화죄로 기소되었다.

38. 44세가 된 한 부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녀의 첫번째 남편은 히틀러의 게스타포한테 총살 당했는데 그 일이 있기 4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남편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는 꿈에 병원 침대가 텅 비어 있

고 마른손 탄이 보이더라는 것이다.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갔을 때 남편의 손이 차고 뻣뻣하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세번째로 약혼을 했는데 나와 상담하는 중에 그 남편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39. 마을에서 한 젊은 청년이 온데 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친척들이 함께 수색작전을 펴보았으나 찾지 못한 나머지 아마도 자살을 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마을 전체가 수색전을 벌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사는 굉장한 마력을 가진 유명한 절름발이에게 가서 묘안을 문의 해 보게 되었다. 그때 그마술사의 하는 말이 청년은 벌써 살해되어 시체가 멀리 떨어진 숲 속에 있을거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의 예언대로 그 청년의 시체는 몹시 얼어맞고 내어동맹이쳐 있는게 아닌가.

40. 알사즈지방에는 세가지 형의 점장이가 있었다. "덧신 점장이" (Slipper Priests), 오줌감정 점장이 (Urine tasters), 수면 점장이 (Sleepers)의 세 타일이었다. 덧신 점장이는 환자에게 덧신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온 덧신을 손으로 쳐들어 보아 병명을 알아낸다.

오줌 점장이는 오줌을 당분, 헤모구로빈 등으로 그 함유성분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중 어느 것만을 쳐다 보고는 약처방을 한다. 수면점장이는 자기 자신이 환상에 들어가서 환자의 생각에 정신을 집중케하여 병명을 알아낸다.

41. 병명을 100%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천리안 마술사 한분이 있었다. 한번은 의학교수 한분이 이 마술사를 시험해 본 결과 그가 어떠한 힘든 경우에도 병명을 알아 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 의학교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그 점장이한테 보내어 진단을 의뢰하였다.

또 이 점장이는 죽은 사람이 소유했던 물건이나 소지품 하나

만 가져고도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다 알아 낼 수 있다고 한다.

11. 색소요법

색소요법은 뉴질랜드에서 특히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막대기와 추”를 다루는 항목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방사요법의 일종이다. 우리는 이제 거듭 이것이 거짓과 사기수법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합리주의자들에게 말해야 하겠다.

이 방법에 의해 병을 고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거는 하지마는 병이야 어떠한 방법으로 고치든 간에 여기서는 진단과 치료의 방법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색소요법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것일까? 진단을 위해 이들은 신대 (Divining rod)와 추 (Pendulum), 혹은 모타스코푸스 (motor scopus)라는 기계로 만든 추를 사용하기도 한다. 진단의 근본은 무신의 힘을 빌리는데 있는 것이고 색소요법에서 주장하듯 과학적인 근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이를 실제로 입증해 보겠다.

42. 색소요법을 쓰는 사람에게 한 병자가 물기를 환자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때에도 당신은 그 사람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알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나한테 전화만 해주면 그것으로 다 되는겁니다. 전화를 받는 동안 손에 추를 들고 있다가 목소리만 듣고도 그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알수 있지요”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러자 환자가 다시 물기를, “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느냐?”고 하니, “그렇구 말구요, 환자는 내게 그의 물건 몇개 만 보내면 되지요. 예를 들면, 손수건, 머리카락 등 나는 그 물건 위에 추를 놓고 그 사람의 병이 무엇인지 알아

내게 됩니다.”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것도 북 파머스톤이란 곳에서 들은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색소요법이란 것이 과학적 진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신비스러운 무신(巫神)의 신접이거나 천리안적 점(占)이다.

언젠가 색소요법 전문가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그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나는 병을 진단하는데 아무런 자료도 필요로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푹푹히 생각하게 되면 그 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물론 색소요법 전문가가 다 이와 같은 술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신대나 추를 환자의 몸에 올려놓는다거나 또는 환자의 손을 잡고 색실이 들어있는 상자 위에 추를 올려놓고 병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실로 각양 각색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요법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색소요법 전문가들은 추를 잡고 색실 하나를 끌라내어 환자로 하여금 이 살을 자기 몸위에 올려놓고 살림하게 한다. 이것은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서 몸에서 어떠한 광선이나 진동을 자극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색소요법 전문가들이 다 이 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정신적인 힘을 빌어서 환자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기도 한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것은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자는 “이렇게 무신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는 수법의 성질 및 그것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마는, 치유의 성격이나 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지난 35년 동안 기독교 상담자로서 무신의 세력을 관찰해 본 결과 이러한 세력이 직접 악마와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악마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말한대로 나는 이러한 세력들이 그것과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인의 성격 정신 및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색소요법 및 이와 유사한 요법에 걸려들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본의에서 혹은 타의에서 복음적 설교가들이 색소요법을 사용함으로써 크게 혼란을 빚어낸 일이 있다.

어찌하여 기독교인들은 병을 고쳐 달라고 주님께 혹은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지는 않고 이러한 세력들에 광분하는지 의심스럽다. 나의 소책자 뉴-질랜드를 좋아하다(I Like Newzealand)와 "기독교 상담과 사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거기에 본인은 방사요법의 과학적 근거와 신태 및 추의 사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12. 죽음의 마술

이것은 마술 중에서 가장 해괴 망칙한 마술이다. 산자의 병을 죽은자에게 옮기는 일은 여러 곳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이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의 이름을 마술적인 기호로 종이 위에 써서 그것을 무덤 속에 던지거나 또는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관 속에 집어넣는다.

이것은 상징적 마술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앓고 있는 사람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가 입던 옷 조각이나 그밖의 물건을 죽은자의 관속에 집어 넣기도 한다. "우리 중의 마녀"란 책에서 크루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멜도르프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판에 못을 박기 바로 직전에 나는 동전 다섯 잎과 여자 하의 두벌, 모자테 하나, 남자 장갑 손가락 하나가 관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그것들은 시체를 부요케 하려고 부유층의 사람들이 내 놓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따금씩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은 앓고있는 인척의 병까지 떠맡았으면 한다고 들었다. 예를 들면:

43. 중병으로 입원을한 어떤 부인이 간호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간호원 아가씨, 내 딸한테 가서 그 애가 입고 있는 조끼 하나를 가져오라고 일러 주시오. 그 애는 몇 년 동안을 병으로 앓는 중인데 내가 죽을때 그 애 조끼를 나의 무덤에 갖고 가서 내 딸의 병을 대신 앓고 싶기에 말ियो.” 그러나 그 간호원은 사자의 마술이 그 지방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해 들것은, 무덤에 가져가는 물건이 마술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못된다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무덤 주의를 서성대는 것도 알고 보면 그때 마다 반복되는 마술전법의 일종이다.

13. 눈 진단

오늘날에는 눈 진단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불을 뿜고 있다. 눈 진단 전문가들은 눈의 홍채(虹彩)만 보고도 병명을 알아낸다고 한다. 오른쪽 눈 홍채는 두 부분으로, 왼쪽 눈 홍채는 눈 망울 별로 나누는데 그 이유는 몸의 각 부분 전부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홍채 조직의 변화에 따라 병의 타입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눈 진단에는 약 10여종이 있음을 여기서 먼저 밝혀둔다. 의학분야에서는 어떠한 질병이 유발하게 되면 반드시 홍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류마치스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

더우기 눈 전체 모양을 보고서 병진단에 유익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몇가지 요소를 제외하고는 전문의들의 눈 진단 개념은 일정하지가 않다. 안과학 교수 한분의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고 한다. 즉, 나는 안과의 교수단을

대신해서 눈 진단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답하렵니다. 먼저 눈의 진단은 엄격히 말해서 학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날조된 과학적인 말들로 조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다소 미산에 기초를 둔 이론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예컨대, 눈 진단가들은 환자의 눈만 보고서도 그의 할아버지가 매를 찾아 죽었는지 또는 환자 자신이 자살을 기도한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혈자살을 기도한 것인지의 여부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엉터리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선 몸의 각 기관이 신경과 소위 '생명신경' (life nerves)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해부학적 결론에서 시작하여 이들 눈 진단가들은 각 기관의 정신적 질과 특성도 흥채의 특수영역에 있는 교감조직의 힘으로 한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흥채에 있는 조그만 흔적 하나만 가지고도 환자의 간장이 약한지의 여부 또는 환자의 시기심이나 탐욕심의 여부 등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 진단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점성술에까지 거슬러 올라 갑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기회 있을때 마다 실험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아직껏 충분한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안과의학에서는 눈의 현상을 보고 여러가지 쉬운 병을 진단하기도 하며 눈은 병의 직접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눈의 상태를 관찰하는 일은 어느 정도 진단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의 실험을 통해서 두뇌조직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으며 눈의 혈관을 통해서 파의 순환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의 모든 기관이 흥채에 전부 나타난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학박사 펠하겐 교수 회답

이 전문가의 견해로 볼때 눈 진단의 문제가 결코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상담을 통해서 당면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반드시 천적으로 의학상으로만 대답을 줄수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상담에서 일어나는 눈 진단요법의 의학상의 이해관계 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위한 이해(利害) 관계에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나의 관찰을 기초로 자상있는 답변을 해볼까 한다. 내가 아는데로 눈 진단요법 중에는 각자의 신앙에 해를 주지 않는 것도 있음을 보아왔다.

눈 진단요법 중 약 6개 종은 이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내가 상담을 하는 동안 앞으로 어떤 변칙적인 일이 생기면 이 책에 추가해서 발표하겠다. 야물든 지금까지 나는 아상의 나의 결론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나쁜 상담을 통하여 무신의 형태를 지닌 눈 진단요법을 대해 보았거에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바이다. 이런 예에 또한 가장 적절한 설명을 위해 나는 여기서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에서 유했던 이야기들 예로 들어 볼까 한다.

44. 겐파일러에서 일주일 동안 어느 회합에 참석하고 있을 때 한 부인이 내게 와서 자기 딸이 며칠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나머지 어떻게 그렇게도 잘 아느냐고 물었더니, 슈트와스 부르크에서 온 한 눈진단 전문가가 자기 딸이 다섯째 아기를 낳는 날에 죽게될 거라고 예언했다는 것이다. 이제 자기 딸이 며칠 있으면 분만을 하게 될텐데 그때는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며, 눈진단 전문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짓 예언자 라고 말했다. 결과가 궁금하리라 믿는다.

회합이 끝나가도 전에 딸은 분만을 했는데 산모의 건강은 양호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다시 내게 와서 "두고 보시오. 앞으로 후환이 있을겁니다"고 불평하듯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나는 화

가 치밀듯하여 “만약 당신이 그런 미신에 사로잡힌 생각을 단념하지 않으면 도리어 후환이 있을 겁니다”하고 쓰아 주었다. 결과적으로는 분만과 동시에 죽으리라던 그 젊은 산모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

그 눈진단 전문가의 예언이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말할수없는 불안과 걱정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히 말해서, 그것은 눈 진단요법이 아니라 점장의 수작임에 틀림없다. 마술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나 낫하는 무당들은 거개가 눈 진단 요법을 의학적으로 응용하기 보다는 미신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미신과의 관련 하에서만 흥취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점장자들은 접촉물 또는 직관촉발의 수단으로 손을 쓰듯이 사람의 눈을 심리전 요법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눈 진단요법은 복술의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눈 진단요법 전문가들은 점을쳐서도 이따금씩 하기도 한다. 실은, 의학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도 100%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는 이가 간혹 있다. 오늘날 합리주의자들의 끈덕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의 세계에도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미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두 질서의 관계를 보지못하기가 일쑤며 또 각기 다른 두 질서에 속한 추종자들은 서로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미신적인 자연질서에 기대해 온 이들이 과거에는 많았다. 범신론자들이 자연이 혼을 가졌다고 하는 주장은 상당한 일리가 있다.

그런데 만일 혼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 한다면 자연은 우상이요, 나아가서 그러한 주장은 이단 사교요 성령을 훼방하게 된다. 오스티, 한스 드리쉬(Hans Driesch), E. 폰 하르트만 교수

등이 주장하는 세계혼(world soul)도 일말의 진리기는하나, 이 상에서 언급한 대로 그 세계혼을 하나님과 동일시 할때 우리는 우 상승배에 빠지고마는 결과가 된다. 이 미신적인 자연질서의 특 징은 무엇인가?

신약성서는 이 세계가 악마의 지배영역에 속한다고 말한다. 우 리가 자연에 속해 있는한 어둠의 권세 아래 있게 마련이다. 구원 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나아 오는 자는 이 어두운 세계로부터 구 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가 이 세상의 군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조상들로부터 이 저주받은 자연을 물려받은 인간은 자기 생애를 통하여 전개되는 어둠의 세력을 양망하게 된다.

미신의 세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설사 그 세력이 해 를 주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종교적 혹은 과학적 성격을 띤양 위장 을 한다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무당의 굿이 입 증하는 바다. 다음으로 눈 진단요법을 미신적으로 이용한 실례 를 세가지 만 들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44.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같이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 는 병명을 알기 위해 우선 눈진단 부터 해보았다. 의사는 아들의 장래까지 예언하기에 이르렀다. 치료를 받고난 후 부터 아들의 몸에 있던 병이 나왔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종교생활에 현저한 상이 생겼다. 교회를 가려고만 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 했고 설교를 들을 때면 그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기도도 찬송도 계속할수가 없게되고 결국에는 신앙마저 잃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전에 그에게서 볼수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솔직하고도 진지한 태도는 간테없고 그대신 여러가지 고통 이 그를 노예로 만들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는 술과 담배를 과 하게 먹기 시작했다. 심한 억압감과 자살에 대한 집념으로 고통

을 겪게 되었다. 급기야는 신경장애를 일으켜 정신적인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그는 신체적 장애는 제거했으나 정신적인 변만으로 고통을 면치 못하고 있다.

45. 한 어머니가 열한살난 아들을 눈 진단요법 의사에게 다녀온 후 아이는 하루에도 수음(手淫)을 두벌씩이나 하는 자위광이 되어 버렸다. 그 밖에도 거치른 성격하며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냉소적인 태도 등으로 싸움 만을 일삼는 것이었다. 학교성적은 떨어지고, 이전에 좋던 어머니와의 관계도 말이 아닐 정도로 저락하고 말았다.

47. 한 어머니가 16세 된 자기 딸을 데리고 스위스의 아펜첼에 있는 눈질담 마술사를 찾아갔다. 눈진만을 받은 후 그 소녀는 마술치료를 받았다. 병은 말끔히 없어졌는데 그 대신 성격이 파격해져서 사납고 성적 비정상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의 언니 역시도 같은 마술사에게서 치료를 받은 후 부터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그러나 마술에 걸려들지않은 다른 남편들에게서는 그러한 증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14. 광신주의

오늘날 교회는 극단주의와 광신주의로 많은 투통을 앓고 있다. 어느 시대나, 기독교 운동치고 어느 운동에 열광추종자들이 없는 것은 없다. 그들은 언제나 순수한 운동의 대열에서 허식만 부리는 모질것없는 찌꺼기 노릇만 해왔다.

열광주의는 무당파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 결과를 보아 알수 있다. 극단주의 종파들에 의해 행해지는 한수는 마술적인 미신의 소산인 것이다. 둘째, 그 종상을 보아 알수 있다. 열광주의에 오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신비한 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미신적인 경향에 빠져들고 있다. 다음에 새까자 예를 들어 이를 입증해 보자.

48. 칼스루에로개세 전에 무당이던 분이 몇 차례 상담을 받고난 다음 과거의 모든 무당 행위를 단념하고서 기독교인이 될 결심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부인은 과거 자기와 관계가 있던 미신과 싸우고 있다. 나중 대화하는 중에게 터는 말이 자꾸는 기적을 행하여 병을 고친다는 Br., H., Z. 라는 세 분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곧 그들뿐 미신적으로 통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도 Br. 과 가장 먼저 통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과는 아무런 통합이 없으니 어찌된 일이냐 고 묻길래 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일러 주었다.

나는 유니히에서도 이와 똑 같은 경험을 한 일이 있다. 어느 회합에서 무당의 위험성에 대한 강연을 마치고 난후 부인 한분이 내게 의식 하는 말이 자기도 기적으로 병을 고친다는 이들 3명과 직접 통해본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49. 마술이 판을 쳐고 있는 슬레스비히—홀슈타인이란 마을에서 독회를 하고 있는 목사 한 분이 교인들이 곧잘 미술에 걸려 극단의 열광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중대한 관찰로서 극단주의가 무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50. 스위스에서 온 목사 한 분이 어떤 여야자를 들려주었다. 여려해 동안은 그의 오른쪽 팔 다리의 증상으로 고생하면서 병원에서 치료 받아 보아도 차도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날 그는 T. H. 의 설교집회에 참석을 하게되었다. H는 일일이 병자를 위해 기도해 줄수가 없어서 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다 일어나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이 목사도 H가 하려는 대로 했더니 오른쪽 팔 다리에 상당히 차도가 있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팔다리가 벌벌 떨고 손가락과 발톱을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치료는 1955년 5월부터 1956년 10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나는 혹시 그의 생애중 전에 마술과 접촉한 일이 없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한번은 마술로서 사마귀를 떼어내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열광주의가 마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술의 주체는 열광주의자들의 정신적 태도와 같은 계통에 속한다. 마술에 직접 심혈을 기울이거나 또는 자기 부모나 조부모가 관련이 있으면 넓은 의미에서 다 열광주의와 관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는 혹시 그가 미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그가 과거에 마술과 관련이 있었는지를 물어 보았다.

내 추측이 꼭 들어 맞았다. 그는 마술이 갖는 증상으로 손가락 끝에 찌릿 찌릿한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이것은 마술에 기초한 최면술에 의한 치료방법의 일종이다. 나는 극단주의나 열광주의 운동이 종종 마술 내지는 무당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견해를 가진 이가 나 외에도 있으리라고 본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이로 알려진 요하네스 자이츠(Johannes Seitz)는 20세기 초의 극단적인 오순절 신앙운동을 지옥의 엘리트(elite of the hell)라고 규정하였다.

미국인들 중에는 Br.을 무당이라 칭하는 이들이 있다. 실은 그가 오순절 교인이 아니라 침례교인이었다. 물론, 겉으로는 침례교인이지만 그를 실제로 뒤에서 밀어주고 강력히 힘을 북돋우어준 것은 극단의 오순절파였다. 그런가하면, 독일의 침례교인들까지도 그를 침례교인으로 간주하려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지금까지 이 항목을 설명하면서 오순절파(Pentecostal)란 용어를 여러번 사용했는데 우선 그 용어의 의미를 규명해 보기로 하자.

오순절과 교인 전부가 다 열광주의자는 아니다. 오순절 교회에도 건전하고 순수한 신자들이 있다. 나 자신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썩 존경할만한 오순절교회 신자들을 만나 본 일이 있다. Br.의 부흥운동을 계기로 스위스의 오순절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그의 부흥운동 배후에 있는 영은 가짜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의 영향력이 상당수의 오순절 교인들에게 컷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매우 불리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이제부터는 오순절교인 중에서도 건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과거에 극단주의자와 열광주의에 관한 상담에서 얻은 여러가지 경험담을 피력해 볼 생각이다.

51. 한 부인이 매우 아픈 몸을 이끌고 H.가 인도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고침을 받기 위해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H.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병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일어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고리 모양으로 손을 잡으라고 하였다. 이 부인도 시키는 대로 했다. H.의 동역자중 한 사람이 이 부인의 손을 잡게 되었다. 그러자 바로 이 부인은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그날부터 3주일 간을 병석에 누어 있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 부인은 좌절감과 이상한 불안의식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지녀오던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52. 베들레헴이란 이름을 가진 여집사회에서 온 한 간호원이 H.의 병고치는 일을 조사할 기회를 갖고 나중에 하는 말이 H.의 목회는 결과적으로 아주 실패하고 말았다고 결론지었다.

53. H.가 한번은 사팔뜨기 소년을 안수하게 되었다. 나중에 그 부모가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안수 후로 아이가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밤만 되면 침대 위에서 눈을 뜬채 지새우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이 아이의 부모는 이런 괴상한 일이

H.의 안수로 인해서 일어난 것임을 즉각 알게 되었다.

54. 스위스의 한 목사가 H.의 집회에 참석 하였다. 그때 H.는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오. 치유의 은혜가 물줄기 처럼 여러분 위에 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목사도 H.의 말대로 하였다. 그일이 있은지 3주일이 지났다. 그 목사가 상담차 내게 와서 라는 말이 자기는 그 집회에 참석한 이후부터 줄곧 마음에 고통이 있어 때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잃어버리곤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목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그 집회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음을 알수가 있는 것이다. 이 목사는 자기가 고통을 잘라내게 되자 비로소 H.가 피상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된 것이다.

55. 한 부인이 휴리히에서 열린 B.의 병 고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B.는 그 부인을 향해 “당신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당신을 향해 오고 있으니 당신의 병은 낫게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그래서 줄곧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그후로 병세가 호전되기는 커녕 더 악화되었다고 한다. 수주간 동안이나 그 부인은 신앙에 의심이 생겨 혼이 났다고 한다. 급지야는 심한 절망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내게 상담차 찾아온 것이라고 했다.

56. 한번은 B.가 휴리히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소아마비로 걷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려왔다. B.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 통역하는 사람이 자기를 노력보고 있는 것을 의식한 순간 이 소아마비 환자는 갑자기 다리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집회가 끝나자 그는 절보다 6인치나 더 높히 발을 들어 올릴수가 있게 되었다. 그는 집회 동안에 최면술 생각을 하면서 약간 회복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3주간도 못가서 과거

의 상태로 환원하고 말았다. 상담을 통해서 그는 나에게 자기는 오랫동안 코우의 자동최면(Auto-suggestion)방법을 실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H.의 설교도 그와 똑같은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 결국은 3주간도 못가서 다시 다리의 힘을 잃고 말았다고 했다.

57. B.는 또 다른 집회에서 교인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믿는다면 예 하십시오”하고 의쳤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목사도 예 라고 소리쳤다. 집회가 끝나고 집에 차로 돌아오는데 그만 힘이 빠지고 발병이 되더니 출혈을 몹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알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 목사는 몇 주간 동안을 억압감으로 고생한 나머지 내적으로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었다. 이러한 육신의 병과 신앙의 혼란은 몇 달을 두고 계속되었다.

58. 한 목사가 자기교인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던 한 부인이 오순절 교회 목사한테 안수를 받은 일이 있는 후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곧 하늘 나라에 올라 갈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다고 했다. 약정된 날이 다가 오자 그는 친척들을 불러모아 같이 있게 하고는 하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몸도 씻고 승천의 준비로 긴 잠옷을 걸친채.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띠우며 침대에 누어 있었다.

부인의 남편은 집을 뛰쳐나와 목사를 붙잡고 아내의 부질없는 것을 막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 길로 목사가 가서 보니 부인은 “밤 12시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데려갈것.”이라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리라는 시간이 정작 다가왔다. 친척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매우 긴장된 표정들이었다. 그때 목사는 집안에 있는 시계를 12시가 되어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친척들에게 부탁해서 시간을 그 부인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했다. 12시가 30분이나 지났을 쯤해서 그 부인은 “지금 이 12시죠”하고 말하자 목사는 “이미 30분이나 지났는걸요”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자 마자 그 부인은 침대 속으로 몸을 꼭 파묻고 말았다. 몹시 실망을 한 모양이었다. 이런 일이 있는 얼마 후에 이 목사는 오순절교회 목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주고 받는 중에 오순절 교회 목사의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이상한 악령이 틈타기 쉽다”고 하였다. 이 부인 역시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때 자기의 생활 속에 거짓된 악령이 침범한 것이다.

59. 한 부인이 오순절 교회의 부흥집회에 초대를 받고 참석했는데 집회 도중 누구인가가 방언하는 것을 들었는데 분명히 외국어 같았다. 이 부인은 매우 흥미가 있어서 그 발음 대로 적어놓았다. 몇 달 후에 이 부인은 선교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선교사가 그 발음을 다 듣고나더니 자기가 그 말을 쓰는 지방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번역 해본 후에야 이 부인은 무척 놀랐다. 그 이유는 그 말들이 삼위일체 신을 말할수 없이 크게 훼방하며 비도덕적인 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60. 한 소녀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왔다. 젊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교회에 나가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다가 극단적 오순절 교회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곳 교회의 두 지도자가 그녀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자 그녀에게 곧 미신적인 능력의 은사가 임했다. 환상을 보게되자 그녀는 일종의 마술사가 되어 과거에 된 일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러던 중 의식을 차리고 계속 기도를 한 결과 자기의 기도 생활과 마술적인 능력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때로 그는 억압감과 자살하고 싶은 생각으로 고민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뿐인가하면, 어떤 때는 밤에 유령이 나타나 몹시 놀란 일도 있었다. 오순절 교인들 가운데 그와 똑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순수하고 진전한 기독교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 여자는 참된 기독교인과 열광적 머신적 오순절 교회교인들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곧 알게 되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교회를 떠나 애써 노력한 끝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었다.

61. 편두통으로 수년 동안 고생을 하던 남자 한분이 오순절 교회 교인에게서 안수를 받고난 직후로 편두통은 사라졌으나 그 대신 달과 바람만 만나면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다. 더 이상 기도할수 없고 심한억압감에 눌리게 되자 그만 술주정뱅이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차디찬 얼음장 처럼 되고 어느것 하나 의미있는 것이 라곤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62. 극단적인 오순절 교회의 부흥사 한 분이 부흥회를 열고 있었다. 집회 마지막 날 그는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집회가 끝난후 잠깐만 남아달라"고 했더니 많은 부녀자들이 뒷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러자 그 부흥사의 하는 말이 "지금 이곳에는 성령의 세례를 증거할 50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씩 안수하며 기도를 했다. 내게 찾아온 부인이 그 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기가 안수를 받을 때는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깨고 보니 자기가 철창으로 막은 방속에 갇혀 있더라는 것이다. 그후 그는 3일 동안이나 신경병 치료를 위해 임상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간호원으로 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것이었다.

간단한 진찰을 받고난 후 그녀는 정신이 약간 혼미하기는 했으나 그런 일이 있은후 부터 자기가 귀신에 홀린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밤이면 귀신과 어두운 그림자를 직접 목격도 하고 소리도 들었다고 했다. 이웃 사람들도 그녀의 집안에서 이상한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는 것이었다. 그 부인은 자기가 기도를 할 수 없게 된 연유며 동물들의 울음소리며 또 자기 집

에서 들려 온 남성의 목소리 등을 일일이 내게 말해 주었다. 그녀는 20년 동안을 성경을 손에 들고 연구해 온 결과 자기가 분명히 귀신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오순절 교회의 그 부흥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종인 것도 알수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부인의 또 하나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 부흥사는 최면술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400파운드나 강탈한 일이 있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전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차야 한다는 감언이설로 부녀자들을 파어 노출된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심지어는 하체에 까지 손을 넣고 안수를 했다는 것이다.

63. 오순절 교회의 여자 부흥사 한 사람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왔다고 하면서 모두가 옷을 벗고 신비경에 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참인데 재림한다는 그리스도는 오지않고 경찰이 달려와 이 부흥사를 체포해 가서 구류처분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64. 방광암(膀胱癌)을 앓는 한 젊은 남자가 오순절 교회의 부흥사가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별 소망도 걸지않고 그 부흥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흥사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자 병이 완쾌되었다. 그는 의심이라고는 하지않았다. 그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주저없이 사탄의 종들이라고 나무랐다. 이 환자가 집에 돌아와서 안수로 병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했다. 한번은 이웃에 사는 어떤 목사가 그와 이야기 벗이 되고자 찾아왔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목사의 정신적인 충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않았다. 목사가 그를 여러 번 방문할때 마다 그는 병을 완전히 고쳤으면서도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를 앓았다. 열번째 방문때 목사는 청년을 붙들고 "당신이 정말로 병고침을 받았다면 일어날수 있을텐

때 그렇지 못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완전히 병이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때 그 청년은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때 그는 말문을 열고 하는 말이 자기가 이상하게도 병고 침을 받고난 이후로 무서운 정신적 압박감에 사로잡혀 전신이 마비되었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그는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65. 교인 하나가 극단적 오순절 교회로 나갔다. 그 교회에서는 그 부인이 아직도 회심과 중생이 완전히 되어있지 않으니 안수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권유에 얼마동안 망서리다가 안수와 세례를 받고 말았다.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난 다음부터 이 부인은 어떤 귀신의 지시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귀신의 지도를 따라서 이 부인은 생활하게 되었다. 예컨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느니, 부부생활을 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였다. 워낙 이 귀신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조차도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 교회를 떠날 결심도 해보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제서야 귀신들은 더 법석을 떠는 것이었다. 밤 낮 안정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투쟁하는 중 그 부인은 앞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도깨비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고된 투쟁 끝에 급기야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제서야 부인을 피롭히고 축박하던 악령들도 영원히 떠나고 만 것이다.

66. 선생 한 분이 그의 부인과 같이 극단적 오순절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온통 교회는 기도소리로 떠들석하고 사람들은 황홀지경이었다. 그 중에는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르며 마루바닥을 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그때 임신중이었다. 이런 법석 속에서 교인들이 황홀경에 취해있는 동안 이 부인은 바닥에 받듯이 누운채 기형아를 낳았다. 그러나 다른 다섯 아이들

은 모두 건강한 편이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다섯째 아이를 낳고부터 이 극단주의 오순절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극단의 열광적인 사람들의 예를 여럿 들었는데 우리의 본래의 의도는 성령의 은사를 조소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도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지 아닌지를 살피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성난 야수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며 파도한 영적 탈을 쓰고 사람들을 겁질로 인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와 잡지, 그리고 서적 등의 출판물을 통해서도 언급되어온 바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잡지나 서적들을 책임성있게 저술한 목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무한하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옥의 밑바탕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의 상담경험을 통해서 한가지 유감된 일은 이런 그릇된 사람들에게 흘려 회심당한 사람들은 개인에게 너무 집착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로 부터는 아무것도 받아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운동에 대한 비판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다행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그런 껍데기에서 손을떼고 회심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말하고 싶다.

이제 열광주의와 극단주의에 관한 결론으로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서 호소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다. 극단주의 운동은 그리스도 교회를 고갈시키려는 대표적 실패다. 이런 운동과 싸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순수할 부흥

운동을 일으켜 하나님께 회개로서 호소하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왔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분파와 가공할 혼란을 단번에 제거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15. 서물숭배(庶物崇拜)

서물숭배도 다른 미신의 관습과 마찬가지로 이교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틴어 'factitius'는 '마술적' 혹은 '효율적'이란 뜻이다. 서물(a fetish)이란 마술의 힘을 가진 대상물로서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상이다. 호신패, 부적 및 서물(fetishes)등은 같은 종류에 속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모 마리아상 숭배도 종종 이런 계열의 경향을 띤다. 몇가지 최근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67. 내가 한번은 뮌히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때 한 화학자가 천 조각의 유물 하나를 내게 주었다. 천으로 된 봉투 앞면에는 "신부 R. 마이어 S. J.의 조끼에서 (Ex veste P. R. Mayer S. J.), 그리고 뒷면에는 "성 미가엘 JHS 문헨(뮌히) (St. Michael JHS Muenhen(Munich))라 적혀 있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1945년 카톨릭 예수회 신부인 마이어는 평생을 교회봉사에 바치고 뮌히에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에게 성자란 칭호를 주자는 청원이 벌써 바티칸에 들어와 있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의 업적을 과소평가하자는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카톨릭 교회 측에서 마이어 신부에게 해답이 주어져 있다는 기도제목의 책자를 발행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 뿐이다. 그런데 어느 누가 카톨릭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나 아니면 마이어 신부에게 기도를 드리라고 했느냐 말이다. 이미 출판허가 까지 받은 이슌

책자에는 “마이어 신부는 내 생을 지켜주는 성자다,” “나는 마이어 신부에게 충성되이 기도하였노라”, “마이어 신부에게 절박한 기도를 드렸더니 여행에 필요한 돈이 들어있는 나의 돈지갑이 되돌아 왔다”는 등등의 말이 써어져 있었다.

이것에 관해서는 특히 “그는 죽었으나 모든게 잠잠하지 않다 (Es wird nicht still um diesen Toten)”라는 책자를 보면 분명한 설명이 나와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미 60만매의 사진, 4만권의 장편 전기집과, 20만권의 단편 전기집, 50만권의 소책자에는 기도에 대한 해답을 적어놓고 있으며 20만을 넘는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만을 넘는 신물(神物)들! 나도 그 하나를 갖고 있다-샤쓰 조각. 나에게 그 사실을 전해 준 화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그 신물들이 약간 풀기가 있더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물들이 어째서 효력이 있을까? 카톨릭 교회만이 가장 훌륭한 의도가 있어서 기억을 되살리는데 사용키 위해 이런 유물들을 간직하고 다닌다고 치자.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일반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자.

한 카톨릭 교도인 부인이 뮌히에서 이 유물 중 하나를 신교인인 여자에게 주면서 몸의 아픈 곳이나 상처가 난 곳에 올려놓으면 곧 낫는다고 알려주었다.

지금 우리는 의곡된 종교적 서물송배를 고찰하고 있는 중이다. 20세기에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나 신교신자 중 어느 누구도 후환이 두려워서인지 이에 반격을 가하는 이가 없다. 자매교회인 카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이유에서일가!

16. 불속 거닐기

나는 여러나라에서 불속 거닐기의 현상을 보아왔다. 나는 저

마다 각기 특이한 성적을 자니고 있음을 보았다. 인도의 불속 거닐기 전문가들은 석달 동안 명상을 계속하면서 준비를 한다. 준비가 완료되면, 그들은 태연한 얼굴로 상처 하나 입지않고 불속을 거닐게 된다. 발리섬에서는 승려들이 최면술로 불속을 거닌다. 호랑이가 뒤쫓아올때 가장 피하기 쉬운 것은 불속으로 뛰어 드는 것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불속 보행자들은 최면상태가 끝나면 그때부터 공포의 빛을 나타내며 지쳐서 기진맥진하게 된다.

튀지섬에서는 뱀가 종족만이 불속을 거닐 수 있다고 한다. 가열된 불속의 흰 돌무더기는 매우 뜨겁거니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므로 긴 장대로 돌무더기를 헤쳐야 한다. 불속거니는 이들은 이것을 준비하는데 꼭 하루가 걸린다. 그런데 준비가 완료되면 그들은 체면이나 혹은 미신적 환각에 사로잡혀 불속을 거니는 것이 아니라, 여느때나 다름없이 웃고 농담하면서 뜨거운 돌무더기 위를 걸어간다고 한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하면 금방 타 죽을 것이나 이들은 살갓 하나 피해를 입지않는다고 한다.

방콕에서 나의 친한 친구인 대학교수 한분이 불속거니는 사람들의 발바닥을 조사해 보았더니 탄 흔적은 고사하고 꼬울린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더라는 것이다.

우리들 기독교인으로서 동방세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겠는가? 이처럼 불속거니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8.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다. 전에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불속을 거닐었다는 한 사람이 내게 상담을 하러 왔다. 그는 지난 날의 일들을 고백하는 중 실은 청중들의 눈을 속여 온 자기였다고 했다. 출다란 판 위에 불을 피워놓고 그 아랫쪽 가운데에 조그만 통로를 만든 다음 통로의 양쪽에 숯불을 피운다. 판 아래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불길 때문에 가운데 통로를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는 거기서 지나갔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모든 불속 거닐기가 다 그

런 식으로 속이는 것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대답이, “아니죠 대개는 정말 거닐지요. 다만 관객들을 가끔 속일 뿐이랍니다”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69. 남아프리카에서 불속걷기 마술을 하는 어떤 분이 자기의 맹랑한 기교를 털어놓았다. 그는 본래 사탕재배를 하는 인도 사람으로 정말 자기는 불속을 거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을 금식과 명상을 하고 알콜과 성교 등은 일체 중지하고 채식만 하면서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있어서 불을 제어하는 힘이 무의식적인 생각에서 비롯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악마를 섬기는 사람에게 그런 힘을 악마자신이 주는 것이지요”하고 말했다. 그는 계속 고백하기를 기독교인이 되고 부터는 불속을 거니는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최면상태나 황홀경지에서 불속을 거닐면 고통이 없으며 그러나 다른 사람이 타죽지 않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루는 인도에서 한 젊은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안고 불속을 거닐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충분치가 못했기 때문에 안고 있던 아기가 불속으로 떨어져 삼시간에 타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아기를 건져내 오기도 전에 그 아기는 벌써 타서 재가 되고만 것이었다. 순수한 불속 거닐기 현상의 배후에는 악마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초신자라 할찌라도 그런 분위기에서는 느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악마의 쇼에 참석해서 될런지를 묻고자 한다. 아직 이 문제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탄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러한 힘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악마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방이다. 악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능력을 표방하려고만 한다.

하나님은 믿음이 두터운 세 사람들을 불속 가운데서 보호하셨

는데(다니엘 3장) 사탄도 그와 똑 같은 힘을 자랑해 보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곧 지옥의 세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자.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이사야 43:2)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금해야 한다. 피지섬에 사는 베크바족은 이름만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로서 그들은 흑암의 군주가 소유하고 있는 악마의 기교를 연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매우 놀란일이 있다.

이제 우리의 의무는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 오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할 것과 주는 이 세상의 온갖 어려운 문제와 간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아는 일이다.

17. 점 (占)

나는 이미 내가 쓴 책 “그리스도와 사탄의 사이”(Between Christ and Satan)에서 점치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점(占)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있는 분야는 점성술, 카-드놀이, 손금보기, 막대기와 추의 사용, 거울마술, 심지학 등이다. 점은 직관적인 타입과 암시적 타입으로 구분된다. 점은 영향을 주는 면과 완성하는 면을 지니고 있다. 모든 점의 거의 95%는 혹은 그 이상이 사기며 속임수요 돈을 벌기 위한 소행으로 간주할수가 있다. 나머지 5% 가량은 초감각적인 능력에 의존하고있는데 그 능력의 윤리적 성격을 놓고 신학자들과 심리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예언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나, 반면에, 점은 사탄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악마

에 속한다. 접이 가져다 주는 악영향은 예언이 가져다주는 장점
에 비례해서 크다. 접도 언어를 통해서 말한다, 수천개의 비슷
한 실체 중에서 몇개 만 골라 보기로 하자.

71. 42살된 부인이 가끔 신수를 보러 점성학자와 십이궁
도를 찾았으나, 결국 그 부인은 실망한 나머지 수면제를 먹고
두번이나 자살을 기도하였다. 한편 그녀는 갑자기 분노의 마술
에 걸려 들고 말았다. 나와 상담을 하는 동안 그녀의 파커를 고
백하면서도 아직껏 믿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부인은
이제 평화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몇달째 발버둥치고
있다.

71. 이름난 한 기독교 사업가가 한번은 호텔에 들어 십이
궁도를 발견하고 읽게 되었다. 평소에는 점성술에 흥미가 없었
지만은 그 십이궁도가 그의 생일에 대해 말하고 있기에 우연히
읽게된 것이다. 한참 읽어내려 가다가 “오늘 차를 운전하는 사
람은 누구나 조심을 특별히 해야 한다”고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
다. 그래서 호텔을 나와서는 정신을 차리고 차를 서서히 몰았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기가 이미 점성술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귀뜸을 했다.

73. 어떤 부인이 여러 사람을 찾아가 자기 운수를 알아보
기 위해 카드놀이 점을 부탁한 일이 있는가하면 또 한번은 어
떤 점성가를 찾아가서 십이궁도를 보아주기를 청했다. 물론, 호
신서 (letter of protection)와 점과를 샀다. 그 후로 그 부인은
자살하라는 내적인 압력을 받기 시작하자 자기가 하나님의 일들
에 대해서 너무나 방어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신경병
치료 전문의사가 보더니 부인이 히스테리에 걸려 있다는 것이
었다.

74. 한 젊은 여인이 점치는 법을 배웠으면 싶어했다. 그
여인은 점치는 그녀의 여동생에게서 점치는 법을 배웠다. 하루

는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다. 두 자매도 참석을 했는데 동생은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밤이면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녀를 때려 파를 흘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상담차 찾아왔던 것이다.

74. 수년 동안을 접쳐온 한 소녀가 있었다. 결국 그녀는 양쪽 손에 심한 습진이 일기 시작했다.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으나 믿어지지 않았다. 미래가 가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알수 있다고 하면 결단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니시어티브는 말살되고 우리의 생의 즐거움은 박탈당하고 말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점장인들이 봉사물 미끼로 그런 일을 하고는 있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자비로우셔서 그들의 베일을 벗겨 놓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베일을 벗는다는 것은 매우 모호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한 억압과 여러가지 파충한 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소홀히 취급하기도 한다.

18. 목계주의

나는 목계주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보탬으로 다음의 자료들을 내 마음대로 열거해보련다. 두권의 저서 볼프(Alfred Wulf)의 "고대 및 근대의 목계주의"(Geheimbuende in alter und neuer Zeit)와 앙드르(F. C. Endre)의 "목계주의의 비밀"(Das Geheimnis des Freimaurer)을 그 자료로 이용하련다. 그 밖에 목계주의에 관해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호의를 가진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 신학사전이 있다. 나는 이같은 자료들의 대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을 접촉하는 데에서 얻었다. 문제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 나는 우선 여러가지 실례들을

다름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 보다는 소극적인 면에 치중했음을 밝혀둔다. 이들 목계주의자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의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목계주의의 역사와 발달에 관해 이야기해 보련다. 유럽에 가장 큰 목계단체가 탄생한 것은 1717년이였다. 런던에서는 그해 네개의 단체가 합병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아일랜드, 스코트란드, 마드리드, 칼카타, 빠리 등지에서도 단체가 탄생하였다. 독일에서는 1738년에 처음으로 창립되고 그때 프리드리히 대제가 회원이 되었다. 오늘날 서유럽에는 약 400만을 헤아리는 목계주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든 단체를 한 지도체제 밑에 둔다는 것은 조직상으로는 이념상으로 볼때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 중에는 완전히 계몽주의 시대정신이 박혀서 기독교의 적이 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주로 기독교 신도들을 회원으로 삼는 이들도 있다. 그 목계단체들은 그들의 자본사정 활동의 기반 및 영역에 따라 각양 각색으로 구분이 된다. 내가 아는 데로는 그들 중에는 우정심이 강하고 빛숭배(light worship)가 지배적인 단체들도 있다. 나는 호주에서 그것도 모르고 이런 단체에 가담한 적이 있었다. 어떤 단체들은 박애주의적이고 사회적이기도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일반 신학생들의 학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 특히 기독교적 색채를 띤 많은 단체들을 발견하였다. 많은 목사와 장로들도 이러한 단체의 회원이 되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이러한 사실을 종종 언급해왔다. 전에 내가 설교한 적이 있는 그 교회의 강단 뒤에 목계주의를 상징하는 글들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또 “나를 만지지 말라”(Noli me tangere), “루즈벨트 협회”(Roo

svelt Association)라고 쓴 비문도 바로 그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 목사에게 말하기를, “만약, 이 교회가 목계주의의 교회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설교 청탁을 거부했을 겁니다”고 말을 던졌다. 미국 루터교회 미조리주노회에서는 소속 교직자와 장로들에게 목계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방금 말한 목계주의자인 그 목사는 내가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설교를 청탁한 것을 보면 나보다 더 관용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순수하고 건전한 많은 기독교 목사들의 관찰을 통해 볼때 나의 꺼려했던 사실은 오히려 지지를 받을 만한 것이었다: 즉, 그들의 관찰이란 목계주의 교회는 영적 생활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목사와 장로들이 목계단체에 가담한 교회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음을 보게 된다.

유럽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목계주의가 순전히 무신론적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데로 기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는 한번은 목계주의 지도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는 제3제국 시대의 교사로서 국가사회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에 대한 중지요청을 거부한이었다. 그는 여러해 동안 웨스트팔리아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로 시무한 일이 있으며 현재도 그는 착실한 교인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있는 교장의 읍장이시다.

그런데 내가 목계주의 단체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있을까?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위에서 소개한 앙드로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곧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면 신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용서해 주니 이 얼마나 간단한 일이며 인간에게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나님의 행위로 죄를 말끔히 씻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우리들 각자 속에 있다. 과거의 속박을 벗어나서 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의 영혼속에 있다……인간이 말하고 기록해 놓은 것들이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반포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성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상담을 청해 와서 이러한 단체의 회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허락할 수 있겠는가? ❀

우려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회심한 목제자들은 진정으로 그런 운동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단 기독교인이 되면 그는 곧 그 자리를 버리고 그 단체를 떠나라는 양심의 분부를 듣게 된다. 시드니에서도 이와 똑 같은 예가 있었다. 몇 명의 기독교 실업인들과 회합을 마치자 어떤 분이 와서 내게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자기는 어떤 목제단체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상 그러한 단체의 직책을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드디어 그는 사임을 했다. 이러한 결정은 목제주의에 관해 하나의 해명의 빛을 주고 있는 것이다.

목제주의를 몹시 반대하는 고백을 나는 독일에서 모 단체 책임자의 딸을 통해서 들은 일이었다. 그녀는 자기의 이름과 단체의 이름만 밝히지 않는다면 그녀의 고백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제3국때 나치정권의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아는대로 히틀러는 목제단체들을 엄금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소속한 단체의 기밀서류들을 단체장인 게스타포로부터 인계받아 집에 두고 자물쇠로 잠겨놓고 딸에게 까지도 읽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일이 있은지 얼마 후에 그가 죽자 그 기밀서류가 딸의 손에 넘어왔다. 딸은 그것을 읽고 그 내용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 문서 속에서 목제단체를 떠나는 회원은 다른 회원이 죽인다는 사실과 그 죽이는 방법까지 자세로 기록한

내용을 발견하고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지금 나도 이런 자료들을 출판하면서 모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목계주의자들이 벌써 내게 와서 자기들을 비난하는 글을 취소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일이 있다. 그런 반면에 목계단체의 회원에 대해 그런 살인조치를 하지않는 단체도 있음을 아울러 밝혀준다. 내가 이상에서 말한 자료들이 그 정보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록의 내용들은 한 목계단체장의 딸이나와 상담하는 중에 직접 고백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그 딸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어느 때나 그같은 고백을 우리는 들을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단체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이유는 그네들이 여러 모양으로 무당관습과 의식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물론 의식에 있어서 무당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단체들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일러준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집단들이 사교와 미신의 의식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장미십자 회원들(Rosicrucians)도 여러 목계단체들의 상징물과 관습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장미십자 회원들은 무당의 신령주의에 빠져 있다. 물론 이것 역시 내가 상담하는 중에 알아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사교집단 추종자들의 양심을 파고 들때에 그들 주위의 비밀의 베일은 그들의 고백과 함께 벗겨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추리히에 있는 상당히 지적인 사교집단 하나를 소개하겠다.

이 집단이 스위스에 있는 데 엘파인 집단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무관한 것으로 본다. 하여튼 그 집단이 지금도 여전히 집단의 명칭을 걸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들은 예배시에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다. 설교는 베아트릭체(Beatrice)란 무녀(巫女)를 통해서 요셉(Joseph)이

란 귀신이 한다고 한다. 이는 곧 미신적인 근거에 입각한 심령주의의 한 형태임을 말해주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충고를 여러번 살아왔다. 이에 대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문제다. 나는 내 아이들 중에 하나가 잘못하여 비소통을 입에 대는 것을 보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당장 뺏아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장난에 달려들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뒤에서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이러한 풍조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나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내 마음이 좁은 탓일까? 우리도 사자의 세계에서 요셉이란 귀신을 물고와야 되겠는가? 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을 그리고 현재와 영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거짓 빛을 따라가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요한복음 8:12)

19. 유 령

미신적인 현상이 모두 그러하듯이 유령의 문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령의 경우는 사람과 관계되어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이며 또 병이나 결합의 징조를 나타내는 경우와 많은 사람들이 여러해를 심지어는 수세기동안 입증해 본결과 특수한 장소와 관련된 경우로 분명히 구분된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엉터리리가 아니면 자연적인 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쉽사리 설명해 보려는 확신없는 합리주의자들의 듣기 거북한 소리를 우리는 냉철히 반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 하는 짓이 매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걸만 보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한심스러운 무리도 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우리는 좀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쥘리히의 융(Jung)교수가 서문을 쓴 모제(Fanny Moser)의 “유령”(Ghost)이란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유령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나는 상담을 통해서 여러가지 얽힌 문제들을 많이 목격해 왔는데 그런 문제들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언제나 수많은 가정에서 하는 미신적 것과 관계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나는 실제로 유령이 나타난다는 집을 찾아갈 기회를 가졌는데 그 몇가지 예를 여기서 들어 보겠다.

75. 한 기독교 여성 사업가의 말에 의하면, 밤마다 그녀의 방에 무서운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어느날밤 귀신이 그녀에게 달려들자 그녀는 횃김에 흑(黑) 귀신에게 스티커를 벗어 던지는 순간 온화한 얼굴의 천사가 침대머리에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그 여자는 천사를 보는 순간 힘이 생겼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 보아야 하겠다.

나는 수차의 상담을 통해서 이같은 경우 천사의 모양을한 인물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와 관련된 사람이 기쁜 체험을 했는지 아니면 무시무시한 공포의 체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환상의 대부분은 실제로 객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순수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병이나 이상적(異狀的) 환상이 일으키는 망상(hallucination)과 비슷한 것이다.

76. 한번은 상당히 나이 들어보이는 군인 한 분이 상담차 내게 왔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 집에 유령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밤이면 개가 방 주위를 돌며 혀로 핥으려고 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침대를 들썩거리며 때로는 방안에 몇몇 귀신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만 하면 전부 사라져 버린다고 했다. 계속해서

하는 딸이 자기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 여러해 동안 귀신이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억압감이나 정신적 장애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묻기를, 혹시 이전에 무당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느냐고 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소녀 적에 디프테리아를 앓은 일이 있으며 그후 또 다른 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흑마술로 고쳤다고 했다.

77. 헤리소 출신의 루파이너 (Uli Ruppeiner) 라는 분이 초청을 받아 스위스의 토겐르크에 사는 한 부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남편이 방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다음 부터 죽은 방에서는 두벅두벅하고 걷는 소리, 휘파람소리, 그리고 방아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인은 그 지방의 목사를 찾아가 문의했더니 그 목사의 대답이 그러한 소리는 실재의 소리가 아니라 과도한 긴장에서 오는 신경장애 때문이라고 했다. 루파이너가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는 문제의 방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통해 귀신이 사라지도록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부터는 전혀 귀신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사실, 그 시끄러운 소리가 사실이였거나 아니면 그 부인이 앓고 있던 병 때문이었던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한것 많은 명백한 사실이다.

78. 어느 목사의 사택에서 여러 태를 내려오면서 흰 모습올한 유령이 밤마다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나타났던 유령이 사라지고나면 약간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나곤 하는 것이었다. 도끼로 문을 내리치는 소리같은 것도 들렸다. 목사의 가족들은 도저히 계속 그 집에 머물러 살수가 없어서 떠나고 말았다. 다른 목사가 이 집에 이사하여 유령과 싸워 보기로 결심하고 유령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했더니 그후 부터 시끄러운 소리는 고사하고 유령은 자취를 감추더라는 것이다.

79. 한번은 목사들이 뭉인 회합에서 루터교 목사 한 분이

자기 교구에 속한 두 집에 연 3일을 계속해서 정채모를 돌리 날아 든 이야기를 했다. 돌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데도 유리창이 깨어지는 일이 없고 탄환만한 구멍 만을 남기더라는 목사의 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돌이 언제나 뜨거워 있었다는 사실이다. 3일째 되던 날에는 그 돌로 인해서 불까지 났다고 한다. 그중 한 집이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았으나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였다. 아직도 그 돌을 던진 정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80. 어느 집에 밤에 문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들어 오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와서 매일 밤 그집을 엿보았으나 알아낼 길이 없어 가족들의 전하는 말을 검토할 뿐이었다. 경찰에서는 내게 그 원인을 문의해 왔다. 그러나 경찰과 가족들은 소음이 무당과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전염병으로 고생하다가 무당에게 고침을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81. 하루는 이층 건물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유는 밤마다 누군가가 남의 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렸다는 것이다. 이층에 사는 이들과 일층의 사람은 저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하루 저녁은 아랫층에 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은 한 부인을 찾아가서 하룻밤 같이 자내가를 청했다. 만일 소리가 나거든 부인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달라고 청하고는 그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소리가 날때마다 기도를 했더니 잠잠해지더라는 것이었다. 이와 꼭 같은 실례를 나는 스위스에서도 들은적이 있다. 거기서도 아래, 윗층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괴상한 소리로 시비가 벌어졌다. 신고 끝에 경찰에서 와서 아래, 윗층에 각기 경찰 1명씩을 배치하표 망을 보게 하였다. 두 사람이 다 요란한 소리를

들었으나 그 피성의 정체를 도무지 알아낼 길이 없었다.

82. 어떤 집에 여러 해를 귀신이 나타났다. 그때 기독교 신자인 친척 몇이 와서 보고 혹시 그 집에 무당에 관한 서적이 없는지 찾아 보도록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일꾼 중 모세서(The Book of Moses) 6, 7권을 탐독하는 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시 그 책을 불태워버린 후 부터는 귀신이라고는 나타나는 일이 없더라는 것이다.

83. 내 친구 중 신앙생활 잘 하는 사업가 한분이 있는데 그가 어렸을때 부모집에서 되어진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주었다. 하루는 벼란간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동이였다. 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밤이면 무겁게 옮겨놓는 발자국 소리며 그 밖의 소리들이 들려오곤 하는 것이였다. 무당을 데려다 곳을 하자는 성화에 못이겨 그의 아버지는 반대로 기독교인을 데려다 구원을 청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은 방마다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이 물러 가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였다. 그후 부터는 귀신이 나타나는 일이 없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난동이 벌어졌다. 집에서 기르는 돼지 두 마리가 법석을 떨더니 미치고 마는 것이였다. 돼지들이 피음을 내면서 울 안을 뛰어 다니는데 그의 아버지가 몇시간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두 마리를 다 죽이고 말았다.

누구나 이런 현상을 정신요법의 입장에서 고찰하려고 하면 이런 현상들을 정신착란증이나 흔히 정신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도 이런 현상을 단순한 것으로 진단을 내린 일이 있다. 이제 나는 키-일(Kiel)에서 있었던 여덟 명의 경관과 두 명의 목사의 공동 조사의 실례를 들어보겠다. 열 명이 다 귀신의 출현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드리면 곧 귀신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다고 본다. 정신착란증 환자들이 그런 소리와 피음을 들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곧 그 피음과 소리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제 막으로 다음의 주목할만한 구제의 사건을 예로 들므로 유령에 대한 항목을 끝맺기로 한다.

84. 아버지 한분이 아들과 같이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 이상한 일이란 매일 밤 열한시에서 열두시 사이에 유령같은 것이 나타나서 온 집안식구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피음과 발자국 소리가 나면 어머니와 딸은 위압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가족 중에는 온 몸이 오싹하게 공포에 떠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귀신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왔노라고 말했다. 천주교 신부의 권유로 삼위의 이름을 부르며 세개의 십자가와 세 촛대, 그리고 약간의 성수(聖水)도 써 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술사를 찾아 갔다는 것이다. 한 마술사는 검은 천을 세 촛대 위에 얹고 그 천을 태우면서 삼위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우라고 했으며 또 다른 마술사는 삼위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베개 밑에 성냥 세갑을 넣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칼 두 자루를 십자모양으로 문에 꽂아 놓아 귀신의 침입을 막으라고 했다고 그는 내게 말했다. 이들 마술사의 지시대로 다 해보았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했다. 또 못 두개를 십자모양으로 양파에 박아 침대 밑에 두라고 해서 그렇게 해 보았으나 역시 허사였다.

가족들은 여전히 귀신의 등살에 고생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위의 두 부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전하고 정상적인 처방을 문의하기에 나는 혹시 그 가족 중에 무당과의 관련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집 안에 무당에 관한 15권의 책이 여러해 동안 소장되어 오는 것이었다. 그 외에 과거 두차례에 걸쳐 위험천만

한 마술사의 치료를 받은 일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절장이와 무당의 도움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령의 방패”라고 이름하는 흑마술을 사용하는 여자와의 관계가 있었다. 나는 그 부자에게 그들이 흑마술 무당들에게 도움을 청한것 자체가 잘못이었음을 지적해 주었다. 계속해서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일러 주었다. 나는 곧 그들이 사는 마을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그곳 목사에게 일러 주면서 그들을 돌보도록 부탁했다. 그후 그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후 부터는 유명이라곤 나타난 일이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

20. 이 단

오늘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단의 무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만해도 인지학과 (Anthroposophy), 바하이 세계종교(The Bahai world religion), 그리스도 형제파(Christadelphians), 보전기독교(Christian Science), 성배(聖杯) 숭배자들(Grail worshippers), 암스트롱의 추종자(Followers of Herbert W. Armstrong), 제이콥 로버의 제자들(disciples of Jacob Lorber), 여호아의 증인(Jehovah's Witnesses), 마스다스나교(Masdasnan), 신신학(Modern Theology), 몰몬교(Mormons), 새 사도 교회(the New Apostolic Church), 영통주의(Spiritualism), 수부드(Subud), 신지학(Theosophy) 등이다. 이러한 이단분파들은 무서운 열광주의 내지는 비성서적인 교훈으로 나타나곤 한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이러한 수많은 이단분파들을 통일시켜 공동책임울져야 할 하기 때문에 실로 회개가 요청된다.

나는 이제 이런 이단분파에서 악령의 세력을 규명하기 위해

독일의 새 사도교회에서 있는 일을 예로 들어보겠다.

85. 새 사도교회 한 교인이 하루는 나의 장모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해괴망칙한 이야기를 했다. 즉, “당신의 죽은 남편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 견신례를 받게해 달라”고 하십니다. 자기 뿐 아니라 남아있는 유족들이 다 우리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때 내 장모의 대답이, “내 남편은 지금 살아계실 뿐더러 아주 건전하고 충실한 기독교인인걸요. 지금 당신의 이야기는 전혀 터무니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내 남편은 지금까지 이단과 관계해본 일이 없읍니다”하고 대꾸했다고 한다. 자, 이런 운동이 얼마나 사기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산 사람을 피어 울무에 빠치려고 죽은 자의 명령을 따기로 사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뿐 아니라, 죽은 자가 견신례를 받는 것은 무당 이상으로 위험한 짓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상담을 통해서 이와 똑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위에서 말한대로 사자(死者)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새 사도교회 교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다. 그러나 가장 가공할수 밖에 없는 이단은 소위 현대 신학이다. 석구 세계에서는 이것을 신허리주의 신학(New rationalistic theology)이라고 부르고 있다. 야리한 신학사상의 추종자들은 이성을 통해서만 기독교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며 구속주도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부활도 재림도 믿지 않는다. 기적, 기도의 응답, 악마, 마귀의 존재,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마저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남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

이러한 현대신학은 그 발전에 있어서 굉장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악마는 신자들을 어떻게 하여 울무에 걸리게 할수 있는지를 약간은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 신학자들은 ‘십자가’나, ‘용서’나, ‘중생’이니 하는 말들을 한 두번 사용해 보고는 낱말들

의 본래적 의미를 무로 돌리고 그대신 합리주의적 개념들로 바뀌는 일을 곧 잘 하고 있다. 물론 나는 이러한 가련한 현대인들을 위해 기도 할 뿐더러 그들의 행복을 빌고싶으나 나는 지금도 낡은 성경이 자꾸 그대로 다 완성되고 있음을 영원한 그날에 가서 그들이 놀란 표정으로 인정하게 될줄 안다. 우리의 신앙이 성서의 하나님을 토대로 하고 이러한 무모한 신학자들의 사상에 기초하지 않음은 실로 다행한 일이다.

21. 일반최면

최면과 최면술은 심리학자나 의학 전문가들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과 돌파리 의사들도 이용하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진단과 치료에 최면을 사용한다. 기독교 정신병리학자로서 구라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레힐러 박사(Dr. Lechler)는 진단할때, 즉, 환자의 병을 알아내기 위해 최면을 쓰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있다. 제네바의 유명한 의사인 뿔뚜르니에 박사(Dr. Paul Tournier)는 반대로 어떤 형태의 최면이든 그것은 인간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대로 전문의들은 최면을 치료와 병리요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 최면의 전문적 사용문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몇가지 예를 들어서 최면을 마술사나 또는 돌팔이 의사들이 사용할때에 생기는 위험성을 지적할 뿐이다.

85. 목사 한 분이 그가 상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 주었다. 한 여자 교인이 병중에 있으니 심방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점장이의 예언에 의하면 이 삼일 내에 그 여자가 죽게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목사는 그 여자로 하여금 환각 속에 몰아넣을 계획을 했다. 목사는 부인이 원한다면 죽게 될 의문의 그날에 함께 있겠다. 는 약속을 했다. 의사 역시도 그 여자의 몸에서 아무런 결함을 발견하지를 못했다. 목사는 여러 차례 그 부

인을 방문하고 격려를 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여자는 회복되었다.

87. 어느 가정에 식구 중에 누가 병만 나면 어머니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는 한 부인을 찾아가곤 하는 것이었다. 이 부인은 환자의 몸 위에 십자가를 세번 표시하고 나서 환부 위를 다시 세번 두드리면 그때 마다 환자는 완쾌되었다. 한 번은 그 모친이 스위스의 아펜젤에서 왔다는 마술사를 찾아가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모친께서는 집에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될텐데 그것은 마술사 자신이 그렇게 한것임을 알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꼭 그렇게 되었다. 귀가 도중 몇시간 동안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그날 밤 그 모친은 얼음장 같은 손이 와서 닿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보니 수염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한 짝달막한 사람이 방 안에 서 있었다. 그 부인은 그때 마술에 걸려들어 흉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아이들도 모두 정신이상자가 되었다

그녀의 아들은 성격이 포악해서 음탕아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정신병 임상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딸도 오빠와 마찬가지로 괴벽한 기질을 갖게 되었다. 다음의 두 가지 예는 영화와 학교수업에서 오는 최면의 영향이다.

88. 한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그녀의 어린 아들이 영화를 보고 와서 자살을 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전에도 카우보이 영화를 보고 오면 영화에서 본대로 사람을 묶어 달아내는 방법을 재연했다는 것이다.

89. 열 네살 된 아들을 가진 한 어머니가 나와 상담하는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독일 혁명 시대에 관해서 배운 것을 집에 돌아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선생은 학생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교수형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집에 돌아와 여러가지

교수형의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그만 자신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의사가 최면술을 사용할 때에는 종종 심리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 역시 위험한 일이다. 다음의 예는 바로 이 사실을 해명해 주고 있다.

90. 한번은 여자 교인 한분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겪은 경험담을 털어 놓았다. 즉, 그녀의 어머니는 담석으로 심한 복통을 앓고 있었다. 한번은 그녀가 심한 고통으로 지정의사를 불러왔다. 그때 의사는 통증을 덜어주는 주사 대신에 그 여자에게 최면을 시켜서 몇분 내에 고통을 없애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최면으로 치료를 받은 후 그녀의 어머니는 성격에 이상이 이르켜 때로는 광증마저 나타나는 악성기질이 되었다. 화가 치밀면, 접시를 벽에 던지거나 하면, 벽에 걸린 전등을 박살을 내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자녀들은 최면을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주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실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성격이 바뀌고 포악해지는 경우를 나 자신도 상담을 통해서 이따금씩 경험해 온 사실이다.

22. 호신서 (護身書)

마술서, 행운서 또는 호신서 등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은 마신과 마술의 영역에 속한다.

91. 어떤 부인이 나와 상담하는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는 매 일요일마다 가정예배를 인도하는데 성격봉독 후면 언제나 오래되어 누렇게 퇴색된 글귀를 성경책 속에 끼워두었다가 큰 소리로 읽곤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가족이 모더존(Modersohn)의 "악마의 주문"(Im Banne des Teufels)이란 책을 읽던 중 그 내용이 나쁜 글임을 알고 아버지 몰래 불살라 버렸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여 가족들을 마구 채찍질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때까지 그 가정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리

하는 생각을 해온터이라 그 책자를 태워 없앤 것을 무척 다행으로 여겼다고 그 부인은 말했다.

92. 목사 한 분이 어떤 회합에서 강연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즉, 부르크 부르크 가까이 있는 지방에 사는 어떤 교회 장로 한 분이 그에게 와서 “화복”(火福)을 시험해 보이겠노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한 대농가의 주인을 방문했더니 그 농부가 그들을 큰 창고로 인도하기에 따라가 보니 그 창고의 큰 대들보 간막이에 화복이란 글귀가 있었다. 이 낡고 누렇게 퇴색한 종이에 “주후 1645년 8월 24일—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 사탄은 번개와 화재에서 이집을 보호한다. 확인함……(판독불가)”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농부는 이 악마의 축복에 가담하고 있었다. 그후에 우리는 그 글귀를 묘니히에 있는 범죄수사 연구소에 보내어 화학적 분석을 의뢰하였더니 이 문서는 300년 전의 것으로 서명은 동물과 사람의 피를 섞어서 쓴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가 이 화복을 창고에서 치워버리기는 오후 다섯 시 쯤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세 시간도 못되어 폭풍이 불고 비라미 떨어져 그 집은 부서지고 말았다. 창고는 물론 온 집이 다 파괴되고 가축들과 모든 농기구가 전부 망가졌다. 살아남은 것이라고는 그 집에 살던 사람들 뿐이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이 집은 부르크부르크와 로텐부르크를 잇는 간선철도에서 약 100야드 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난 전쟁 때는 군수품 수송열차가 바로 이 근처에서 통과되었는데 그때 농장에는 유리 한장 깨어진 일이 없었다. 독일이 1945년 패망하자 허틀러의 친위대는 이 농장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근처에서 수차에 걸쳐 싸움을 한 일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건물 하나 다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전에도 여러 세기를 내려오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한다. 불란서 사람들이 안스바하-바이로이트 지역에서 전쟁했을 때에도 농장

은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으로 8월 24일이란 날자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뽕뽕이와 에르킬 라넝이 베시비우스폭발에 의해 함락된 것이 서기 79년 8월 24일이다. 1572년 8월 24일, 즉, 성 바돌로미유 전야제에는 수많은 남아노소를 포함하여 유그노파 장로교인들이 학살을 당했다.

분명히 이 화복의 날에는 어떤 마술의 영향이 작용한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농부가 가옥과 모든 것을 벼락에 잃어 버렸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물론, 농부의 집은 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손실의 보상으로 다시 집을 짓기는 했지만 어느날 그 교회장로가 농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농장 주인은 그를 일싸안고 "정말 기쁘오. 나를 짓누르든 것이 사라졌으니 말이요"하는 것이었다. 부적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때에 그 농부는 생각하기를 악마와 연관을 가지고 사느니 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낫다고 느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건물을 파괴한 이는 누구였던가? 사탄? 아니면 하나님이었던가? 욥기 1장에 보면 악마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fire of God)을 내려보낼 권리를 허락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론, 타락한 천사인(유다서 6절)사탄도 일시적으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지렛대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이 농가의 역사와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격한 법의 한계를 무시하고 마술에 대해 그저 싫어하는 정도나 마술로 인한 죄를 범하는 자는 마땅히 정신적 손실에서 오는 심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사탄도 축복으로 위장한 호신 또는 성공 같은 것을 제공할런지 모르나 이 얼마나 가공할만한 대가인가! 화복이 지나간 뒤에 오는 사탄의 분노가 그 얼마나 보복적인가 말이다. 우리는 욥 2:6, 고후 12:8, 마태 1:28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생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능히 제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갑옷을 입고 의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굳게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엡 6장).

23. 마술적 치유

마술적 치유법은 일부는 복술 항목에서 그리고 일부는 흑백마술 항목에서 이미 다루었다. 이러한 식의 치유방법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서 즉, 이성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것들이다. 마법(magic)이란 앞에서 언급한대로 미신적인 자연질서에 속한다. 여기서는 전혀 다른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술적 치유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상으로 널리 확장되어 있다. 독일의 어떤 목사는 말하기를 자기 교회 교우들 중에 어떠한 형태의 마술도 사용해 보지 않는 가정의 수는 불과 열 가정에도 미달한다고 하였다. 목사들의 회합에서 한 의사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뮌네부르크 지역에는 마술치유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스위스 목사의 말에 의하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집집마다 모세의 책(혹 마술에 관한 책) 제 6권과 7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실레로는 마술 및 흑, 백마술의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24. 정신최면

마술 중 가장 흉한 것이 정신최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책, "상담과 사교"(Christian Counselling and Occultism) (118면)에서 자세히 서술하였기에 여기서는 정신최면으로 인한 무서운 결과에 대한 실례 몇개만을 들기로 한다.

93. 폐병으로 고생하는 어떤 분이 폐병전문의사를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폐에 달걀만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

다. 그길로 이 환자는 스위스의 다보 타는 곳에 자리잡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때 의사는 환자의 부인에게 거의 소망이 없다고 귀뜸해 주었다. 그러자 환자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인지델이란 곳에 있는 그레취(Graetzer)라는 무당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정신쇠면으로 병을 고쳐 줄 것을 약속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의사와 환자의 예상을 뒤엎고 치료는 완전 성공이었다. 그런데 병을 고친 후부터 그의 신앙태도와 성격이 변하고 교회도 출석치 않을 뿐더러 일체의 신앙활동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매일같이 환락을 찾아 악덕과 성적인 추태만을 일삼게 되었다. 때로 그는 심적으로 자살할 생각도 많았다. 너무나 정신과 신경이 착잡한 나머지 내게 상담차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을 가다듬어 기도해보려고 했지만 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언제나 소외감 속에서 살아 온 그는 기도를 할려고만 하면 그의 소외감은 더욱 심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볼때 분명히 그는 마술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94. 스위스의 어떤 지방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중병인 경우 대개 정신쇠면자들에게 환자를 넘기는 실례가 있다고 들었다. 정규적으로 성 G. 하스피탈병원 환자를 심방하는 목사 한 분이 한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즉, "정신쇠면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받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느낌조차 없으며 오히려 반역만 할 뿐이다"라고.

95. 열 아홉살난 청년이 습진이 생겨서 정신쇠면과 흑마술을 병행해서 쓰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 청년은 정신쇠면 치료를 받고 상처는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대신 내적으로 심적인 발작이 일어났다. 치료받기 전만해도 성경도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도 하는 그였다. 그런데 지금은 억압감에 빠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욕망조차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정신쇠면은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증보의 기도를 배격하는 순전히 악마의 소산이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며 기도해 호응해서 생활하는 자는 사탄의 이중적인 성격을 쉽사리 알게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악마도 그의 추종자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25. 최 면 술

최면술과 자력술(magnetism)도 다른 사술(邪術)에 못지않게 토론의 소재가 된다. 대개 의사나 과학자들은 최면술의 타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복술사들은 최면술을 지지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는 나의 목회경험을 통해 최면술이 사실상 마술과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면술 역시 미신적인 자연질서에 속하는 세력이다. 나는 이런 일이 과거의 선조들이 무당의 굿 특히 마술적인 주문을 써 온 집안에서 종종 있어왔음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성경에서(고전 12:9~10) 성령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드시 악마의 은사도 있는 것이다. 마술사의 후예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천리 바깥의 일을 알아낸 다든가 초속적인 시각, 고도화된 감각, 고도의 암시력, 정신감응, 최면술, 자와 추 사용술, 무아경에 돌입하는 일, 별 사이 여행 등의 능력을 갖고 있다. 후예 마술사들의 마술행위가 그들의 조상들 보다 감퇴하기는 하지마는 그 은사는 그대로 저속한다. 이런 은사들이 감소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성화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마술의 냄새 탄은 언제나 풍기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은사를 행사하지 않고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다. 사실 마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몇가지 특별한 예를 들어 보자.

96. 어떤 부인이 뉴니히에 있는 불이란 의사를 찾아가서 요통을 성공적으로 치료받았다. 치료를 받는 동안 이 부인은 손가락을 공중에 쳐들고 우주의 힘을 얻기위해 안테나 역할을 했다. 그 부인은 병이 원상대로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부터 부인의 신앙에 장애가 왔다. 그녀는 기도도 할수있게 되었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이 가로 놓여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97. 교사인 나의 한 신앙의 친구가 최면술에 의해 치료를 받은 일이었다. 그 최면술사 역시 기독교인이라는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으며 만일 그렇지 않았던들 내 친구가 찾아갔을 이가 만무하다. 내 친구가 침착한 어조로 마술사를 향해 “당신은 악마의 힘을 빌리지는 않겠죠?”하고 물었을때 “한테 악마의 힘은 훌륭하오! 악마는 나를 돕는 걸요”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환자는 다시는 치료를 받으려 가지 않았다.

98. 한 최면술사는 여러가지 병을 고칠수 있었으며 그의 아버지도 역시 병마를 쫓아내고, 짐승들을 마술에 걸수도 있었다.

99. 어떤 기독교 신자 의사에게 병고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의사의 대답이, “일반 최면도 하루에 두명의 환자쯤은 충분하죠”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매일같이 두명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허무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악마의 소굴에 말려들고 있는 셈이 된다.

100. 복음적인 내 친구 목사 한 사람이 그가 최면술사와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다. 그 최면술사는 수년 동안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를 해 온 분이였다. 내 친구 목사도 타고난 절름발이 소녀를 마력의 힘을 빌어서 손으로 이곳 저곳 짚어서 병을 고치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것이다. 한번은 이 목사와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최면술사를 찾아 가서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까?”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자기와 아들을 고쳐 달라고 맡겼다. 술사는 몸은 일체 만지지도 않고 손으로 석추가 있는 곳을 이리 저리 육인치 간격으로 짚는 동안 목사는 고요히 눈을 감고 “주님, 만일 이 사람의 능력이 당신께로부터 온 것이거든 그의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하고 기도를 드렸다.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차도가 없었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가서 재차 치료를 청했더니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영은 나와 다르오”하는 것이었다. 비로소 그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에 배치되는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는 그런 치료를 받지않았다 한다.

모더슨 목사는 그가 알고있는 미신에 의한 치유방법 중에서 “최면술 및 자력에 의해 병고치는 사람 중 90%가 악마와 마술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를 받기에 앞서 그 치료의 행어나 그런 사람이나 아닌지 먼저 확인해볼 일이다. 종교의 탈을 쓴 교활한 꾀임수에 눈이 멀어서는 안될 것이다.

26. 현대판 신학

(20.의 이단과 28.의 신 이성주의를 참고할것.)

27. 월점 (月占)

월점은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미신과 이교의 관습과 판련을 갖고 있다. 예컨대 어떤 지방에서는 달이 이지러지기 시작할 때는 결혼을 하지않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또 달이 만월이나 삭월이기에 따라 농부들이 파종계획을 세우는 지방도 있다. 보름 달에 굶다가 가장 좋다고 한다. 보름 밤이 되면 무당들은 의독제독요법(以毒制毒療法)을 쓰기도 한다고 한

다. 이는 결코 동독요법 (역자주: 건강체에 사용하면 환자의 질병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독한 약물을 조금씩 환자에게 써서 치료하는 방법)을 파소평가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만월 때에 경을 읽는다든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술과 다를바 없음을 말해줄 뿐이다. 마녀신앙을 하는 마을에 사는 지금도 삭월과 함께 마녀귀신이 나타난다고 한다. 다음의 두가지 예는 달과 관계된 것으로 마술에 의한 치료법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101. 한번은 추를 사용해서 점치는 점장이가 어떤 부인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점장어는 부인에게 만월이 되거든 하루에 한 잔씩을 마시고 삭월이 되거든 하루에 세 잔씩 마시라면서 차를 팔고 갔다. 그 후에 그대로 했더니 그 부인의 고통이 전부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마술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자동최면(Auto-Suggestion)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그 부인은 전에 없던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102. 어떤 부인이 어렸을 적에 보름달 밤에 요술로 병을 치료받은 후로 무당이 되어 정신감응요법과 천리안의 힘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그 부인의 종교생활에는 말할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다.

28. 신 합리주의

현대 신학의 근거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한편 범람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에서 성서를 보호한 훌륭한 책 한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르크만(Dr. Bergmann)이 쓴 “성서를 위한 경종”(Alarm um die Bibel)이란 책이다. 특히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려는 분에게는 쿨네티의 “예수의 신앙”(Prof. Kuenneth; Glauben an Jesus)과 오토로텐베르크의 “성서의 진리에 관하여”

를 소개한다.

개인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현대 신학과 신 이성주의가 빚어낸 비극과 결핍을 제거하기 위해 나역시 상담하는 일을 통해서도 그런데로 주로 시선을 모아왔던 것이다. 예수는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마 7:16)고 말씀하셨다.

최근 나는 볼텍·포리스트에 사는 한 기독교 가정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일이있다. 그 편지의 발송자는 그의 아내와 부모가 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 가담하고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 편지 속에는 그 가정의 장남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즉, 그 소년은 7년 간을 계속 고등학교에서 수석만 해온 학생으로서 한번은 어떤 전도 집회에서 회심을 하고 부터는 규칙적으로 아침 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그때 목사 한 분이 이웃에 이사해 왔다. 그 목사는 신학박사로서 학교에서 높은 수준의 종교과목을 담당하는 분이였다. 벌써부터 신학공부에 뜻을 두어온터인지라 그 소년은 그때부터 그 신식 목사의 합리주의적 신학에 매혹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하여 가정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귀담아 듣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하는 말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으로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자체의 역사성은 무의미한 것이며 다만 사건의 배후에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하는 것이었다. 이 아들은 2년 동안 그 신식 교수에게 완전히 매혹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는 점점 파괴적으로 나가기 시작하여 신학공부에 대한 생각이며 성경읽는 습관이며, 기도생활 등이 다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책임성도 희박해져서 결국에는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인격적인 당신(Thou)과의 대화가 아니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그래서 편지 가운데서 아버지는 내게 이런 질문을 해왔다. 즉, “우리들 부모와 진실한 접도

자들이 앞서 가르쳐놓은 것을 전부 망쳐놓는 선생과 신식 목사들의 나쁜 영향을 받도록 우리들 자녀들을 내버려 두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두째 아들도 그러한 신식 종교담당 목사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몹시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나 자신은 아버지로서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파괴적인 악 영향을 주는 신 합리주의로부터 보호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엄연한 조직을 가진 교회의 목사로서, 증인으로서, 오늘날 극단적으로 파괴적인 성서비평의 와중에 내 자식들을 몰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그런 종교학과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하고 답장을 써 보낸 일이 있다.

나의 딸도 학교에서 그와 마찬가지로의 상황에 처하였길래 종교학과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무엇보다도 딸 아이의 생각은 만일 내가 종교학과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아버지는 목사이면서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딸애를 보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것이 진리이며 사람에게 복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현대 신학과 관련된 경험담들을 들자면 한없이 많다. 그 중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대로 말해보고자 한다. 다음의 말은 내가 교역자회의에 참석했을 때 몇몇 루터교 목사들에게서 들었다. 독일은 400년 동안 신학계를 이끌어 왔으나 지난 몇년 동안 독일에서 비롯된 신학동향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두려움 뿐이다”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와 비슷한 말을 동부 아시아와 남 아프리카에서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교회 신문들이 루터와 예수는 단지 악마를 믿었을 뿐인데 그 이유는 그들은 그 시대사조의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그 신문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 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나는 사실

그 신문의 기사를 읽은 후부터 신문구독을 취소해 버렸다. 사실이 정도의 반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도대체 그것이 문제가 될 말인가? 우리는 그러한 오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동조하거나 지나친 판용의 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누구든지 악마나 귀신을 설명해보려는 사람은 벌써 악마의 자신의 일에 가담한 사람인 것이다. 그런 자는 오늘날은 옹당 사라져야 할 중세기의 모호한 사상에 빠진 자보다 나을게 아무것도 없다.

끝으로 고무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고 끝막음을 할까 한다. 독일 북부에 있는 한 선교부에 소속한 내 친구 목사 한분이 내가 그의 집에 들렀을 때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한 젊은 목사가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야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예배 후 당회원들이 한자리에 뭉쳐 오랜 시간 토론한 끝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식의 신학을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하고 정신나간 그 목사에게 결정사실을 통고한 다음 다시는 그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교회당국도 이같은 결정을 주목하고 당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자 그 목사는 당장 다른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물론 전체적인 처리과정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도 자연 많았지만 당회의 조치가 결국은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크나 큰 시련에 봉착하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 개인 개인이 성숙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다. 신흥리주의란 인간이성을 자만시키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보면 이것은 전복당한 인간의 지식 및 지혜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았습니까?”(고전 1:20) 하고 말하였다. 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폐에 빠지게 하신다”(고전 3:19)고 기록하고 있다. 현대 합리주의적 신흥리에 대

해 성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골 2:3). (20. 이 단 참조)

29. 수(數) 상징주의

숫적 상징주의는 미신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 헤어날수 없으리만큼 복잡한 미궁이다. 이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예는 ‘13’이란 숫자를 불길하다고 하는 관념이다. 호텔에 가보면 13호실은 거의 없다. 내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다닐때 12a라고 번호가 붙은 방의 한 침실에 살고 있었는데 내 옆방은 12호실과 14호였다. 그렇다면 이것도 대학의 암영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내가 여러 차례 만난 일이 있는 한 루터교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03. 이 목사는 자기의 친구인 한 의사로부터 세례식에 참석하자는 초청을 받았다. 세례식이 끝난 후 의사는 그 목사를 식당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목사는 식탁의 수를 보고는 매우 못마땅해했다. 그러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의 옛 동창인 친구에게 “나는 여기 앉을 수 없네 식탁이 열 세명분 뿐이군. 이거 기분 나쁜데”하고 말하자, 옆에 있던 의사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여보게, 자네 목사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자네는 사람들을 미신으로부터 구해야 할 분이 아니오”하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드디어 논쟁은 활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아주 유머러스한 분위기였는데도 그 목사의 표정은 심각 일변도더니 마침내는 앉지않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결국 13명의 좌석을 피하기 위해서 그집 아이들을 건너 방에 보내어 식사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후 3개월이 지났다. 그 목사의 막내아이가 죽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친구 의사가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난 날 세례식 때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의사는 목사에게 그 러한 미신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타일렀다. 바로 그날 밤 의사의

아들도 병으로 신음하다가 다음 날 아침에 죽고 말았다. 하관을 마치고난 목사는 의사를 향해 “당신은 13이란 숫자가 불길하다고 생각치 않소?”하고 묻는 것이었다.

도대체 목사가 전해온 기독교 멧세지와 이런 허황한 미신 간에 무슨 일치점이 있다는 말인가? 일상생활 속에는 수에 관심을 두는 이상한 상징성이 짝차있는 것이다. 매달 13일에 복권을 사면 불길하다고들 생각한다. 콩도 홀수를 심어서는 안되며 홀수보다는 짝수가 낫다고들 한다. 13일에 항해를 한다거나 담배불을 3번째로 붙이는 사람은 불길하다는 것이다. 문간이나 창문에 칸막이를 새개로 만들어도 불길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지적할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미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대신 주님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시 90 : 12)고 구해야 하겠다.

30. 사교문학(邪敎文學)

사교문학은 독가스의 굉장한 구름덩이 처럼 사람들 사이를 표류하고 있다. 사교문학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과 혼 속에 독을 집어 넣는다. 사교문학 중에는 모세서 제 6, 7권 (The 6th and 7th of The Book of Moses), 뷔너스서(The Book of Venus), 저승(the other side), 보다 위대한 세계(The greater world), 무당뉴스(The Psychic News) 및 가짜 기독교자 제이콥·로버(Jacob Lorber)의 저작들 및 기타 저자들의 저작들이 있다. 위험하기 짝이없는 마술서 모세서 제6, 7권은 지금도 독일 브룬스빅에 있는 한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몇 몇 법정에서 그 책의 출판금지를 시도해 보았으나 결국은 허사였다. 이것은 아직도 이러한 악덕문서의 공급을 막기가 불가능하리만큼 법에 헛점이 많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분은 나의 책 “그리스도와 사탄사이”를 구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 가야할 것은 가정에 무당에 관한 책을 들여 놓아서는 안된다. 연구를 위해서 또는 다른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치해 둔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못된다. 나는 어떤 아내가 자기의 남편에 관해서 “우리 남편은 연구한답시고 보세시 제 6, 7권을 집에 비치해 두웠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불행과 싸움과 불화가 잦다”고 하는 말을 이따금씩 들어왔다. 귀신문학에 관한 실례가 하나 있다.

104. 귀신이나 강신술에 관한 책이라면 모조리 읽어온 한 부인이 있었다. 이 부인은 튜리히의 지식인 단체에서 보내 온 베아트릭크(Beatrix)라는 무당의 멧세지를 읽기 시작한 후로는 교회엘 나가지 않았다. 말하자면, 신비주의자 엑카르트(Eckhart)와 무당인 제이콥 로버의 책들이 사도들의 경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부인의 종교적 신념의 중심사상은 인간은 스스로 자체 내에서 신의식에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부인에게 피니 구원이니 하는 것은 생각 밖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므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신의 불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불길이 되어 타오르도록 부채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교당한 배교자 요한 그레버(Johann Greber)의 저술도 사교 문학에 포함시킬수 있다. 그는 실제로 신약성경 전체를 강신술적 의미로 번역한 일이 있다.

31. 길흉점 (吉兇占)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는 여러가지 징조와 길흉점 등이 중요시 되고 있어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105. 80세 된 교회장로 한분이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즉, 자기 부인이 25년 전에 죽었는데 죽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경고를 이미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 경고의 내용을 물었더니, 장로의 딸이 그해 봄에 자기 집 정원에 있는 나무 뿌리 하나가 땅위로 곧장 솟아 오르더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런 일이 있을때 마다 그 가정에 죽는 일이 생길 것에 대한 징조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졸렬한 미신이라는 나의 말에도 그는 막무가내였다.

106. 하루는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지난 밤에 집에 둔 시계 셋이 모두 멈춰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을 보고 가족 중에 누가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후 아무 일이 없더라는 것이었다. 다음의 징조들은 행운을 가져온다고들 믿고 있다. 즉, 말발굽, 두꺼비 발자국, 돼지새끼출산, 네잎의 크로바, 무당벌레, 물망초, 크리스마스 장식용 겨우살이, 방안의 거미줄, 주목(朱木), 돈거미, 히드나무가지, 하룻밤의 쌍별 등은 길조라고 한다. “바늘을 보고 주으면 종일 행운이 온다,” “낚은것, 새것, 빌린것, 푸른것”—등은 신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담들이다.

다음의 것들은 불길한 징조들이다. 이른 아침 자기 앞을 가로지르는 곱추나 노인, 악수할 때 중간을 지르는 팔, 정원의 생나무불타는 것, 결혼반지 분실, 찻잔에 놓인 쌍스푼, 흔들리는 빈요람, 까치를 보았을때, 덩어리진 소금, 가로포개인 칼과 포크, 트럼프놀이중 스페이드 한벌에 에이스와 네째번 크럽을 가졌을때, 염주 등. 또 결혼식 날에 장례행렬을 보거나, 세탁물이 끊어 넘칠때, 손뿌아 놓은 것을 놓일때, 배갑판 위에 새가 날아 들때 집안에서 우산을 펴는것 등도 불길한 징조라고도 생각한다.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반드시 특별한 일이 생긴다는 신앙이 널리 퍼져있다. 예컨대, 묘가 가려우면 새로운 물건이 생기고 고양이가 귀를 셋으면 손님이 오고, 개가 풀을 먹으면 비가 올 징

조이고, 스페이드의 A와 Q는 죽음을 상징하고, 마루에 칼이 켜져있으면 재앙을 징조요, 귀가 울면 남이 자기에 관한 말을 하는 것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얼마든지 다른 예를 들 수가 있다. 새에도 각기 독특한 의미가 붙어 다닌다. 부엉이의 울음은 죽음을 뜻하고, 비둘기가 울면 소원성취요, 녹색딱따구리가 울면 비가 올 징조요, 지붕에 까마귀가 앉으면 불운이 오고, 철새를 죽이면 애인을 잃게 되고, 까치를 보면 슬픔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리고 아침식사 전에 꾸는 꿈은 불길하다고 한다. 꿈에도 여러가지 해석이 붙어 다닌다. 홍수 꿈은 불행이요, 병아리, 물고기, 어린이 및 비오는 꿈은 행운이며, 부엉이 꿈은 다퉈울 사고를 의미한다고 한다.

사교문학의 홍수 중에는 여러 가지 꿈을 풀이하는 소위 에집트인의 꿈해몽서라는 것이 있다. 이제 점장이들이 지꺼려 대는 소리일랑 그만두고 성경말씀에 돌아가 보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취하지 말라”(신 13 : 1-3).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마 12 : 39)고 하였다. 예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다. 즉,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눅 12 : 56)고. 이 말씀은 오늘에도 타당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32. 손금보기

손금보는 문제를 알려주던 나의 책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란 책에서 점에 관한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설명의 중복을 피하고 손금보기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예를 들어보겠다.

107. 손금을 수년 동안 보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최면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한번은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했을 때 내적으로 심한 반항이 일어났다. 기독교적인 것에 닿기만 하면 으레 허어 반항의식은 심한 압박감과 갈등으로 발절하곤 하는 것이었다.

33. 정신분석

이제 정신분석에 관해 논해 보겠다. 만일 의사들이나 심리요법사들이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놀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권해서 좀 못마땅하고 화가 나더라도 참으라고 부탁하겠다. 이에 앞서서 우선 정신분석을 신앙심이 두터운 기독교인이 한다고 할 때 나 역시도 그의 정신요법의 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일러둔다. 그러나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정신요법사라고 해서 전부 기독교인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기독교국에 있어서 까지도 성경의 의미가 가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참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중생한 자를 말한다.

만약 정신요법자가 이런 체험을 한 이라면 나 역시도 그가 하는 일을 돕고 싶다. 실제로 이런 정신요법자들도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무당세계의 모든 혼란을 극복한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알고있는 기독교인인 한 여자 정신요법사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환자의 정신분석은 물론 그리스도의 산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도 하고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에게서 치료를 받고 많은 환자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실제로 보아왔다. 그 여인은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축복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분석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얻기

할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나는 상담을 통해서 많은 정신요법사와 정신분석가의 하는 일에 어딘가 의심스러운 때가 있음을 보아왔다. 스위스의 한 대학원생이 농담조로 내게 “심리요법사들은 시계를 분해할수는 있으나 다시 맞출 줄은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관심의 골자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비 기독교인인 의사가 하는 정신분석은 하나님을 떠나 상담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정신분석이란 신앙고백에 대한 속된 항거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성정이 말한대로 신앙고백은 정신분석이 가져다 주는 이상의 효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앙고백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하는데 반해서 정신분석은 여러 시간 동안 무의식 상태로 몰아넣는다. 신앙고백은 하나님과 만나게하나 정신분석은 중요한 종교적 문제를 환경이나 교육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있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영적 생활의 중심을 분산시켜서 여러가지 열등의식을 조장시키기도 한다. 의학 전문의들도 때로는 정신분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슈페어박사의 “인격자로서의 의사”(Dr. Speer; Der Arzt als Persoenlichkeit)란 책에서 그 실례를 찾아 볼수가 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분석가가 기독교인이나 아니냐는데 있다. 만일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환자의 종교문제에 관해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이다. 상담을 통해서 얻은 다음의 실례들은 전부 정신분석적인 치료에서 생긴 일들이다.

108. 어떤 대학 졸업생이 내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은지 얼마 후 정신요법사를 찾아갔다. 그의 고통은 신경과 정신장애에서 오는 것이었다. 환자는 정신요법사의 치료에 몹시 실망한 나머지 하는 말이, 의사는 환자의 성격상의 결함, 약점, 억압만을 캐려고들뿐, 죄책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주지를 않았다고 하면서 불평이었다. 정신요법 의사는 환자의 복잡한 꿈을 자세히 분

석하면서도 죄에 대한 반응 등에는 무관심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내렸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한 치료였다. 그가 찾아가는 의사들 중에는 아무도 이점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가 없었으며 그 환자가 강신술과 판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도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 환자는 수년 동안을 무당놀음에 광분하였으며 흑, 백마술과 점치기에 혈안이 되어있었다. 그래서 그의 신경장애는 무당과 접촉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도 그를 담당한 의사들은 이 환자의 병의 두가지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요인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지난 날의 무당편력이었다.

109. 54세된 부인이 상담차 나를 찾아왔다. 부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요법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은 후부터 중풍증과 손에 신경증이 발발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부인의 신앙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왔던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받은 치료가 불완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문에 그에게 중풍증이 유발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110. 내가 아는 한 기독교인 정신병리학자가 실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실험용 기니아돼지 대신으로 제공하여 한 정신병리학 교수에게 정신분석을 의뢰한 일이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기탄없이 말하면서 그때의 실험결과로 자신에게 불안증이 생겨 신앙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신앙을 잃지않기 위해 여러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명상과 기도로 보냈다고 한다. 지금 이 젊은 정신병리학도는 비 기독교인이 정신분석을 하는 것에 무척 반기를 들고 있다. 사실, 우리가 “비 기독교인”이란 말을 사용할때 반드시 교회에 다니고 안다니는 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세례나 학습을 받고 교회에 가끔 또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라해서 반드시 기독교인

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요한복음(3:3-5)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난 자만이 기독교인임을 알수 있다. 이것 만이 기독교인을 규정하는 유일의 척도인 것이다. 설사 많은 의사들이 자기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할지 모르나, 그들의 생에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태도는 신약성서가 말하는 것과 는 거리가 멀다.

111. 독일에서 어떤 부인이 정신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의과과장을 찾아갔다. 그 전문의사의 말이, 당신은 지금부터 교회도 다니지말고 2년 동안은 성경도 읽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종교문제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그는 악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다. 이 의사는 내가 인도하는 부흥회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선동한 일이 있다. 간호원에게도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고 환자들이 나의 책을 보고 있으면 빼앗는 일까지 있었다. 그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는 그 의사 자신이 벌써 무신(巫神)에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기독교와 관계된 일이라면 무엇이 나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112. 어떤 여학생이 심한 정신장애로 의학적, 심리적 훈련을 통해서 정신분석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로 그 학생은 몇 달 동안은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잠도 잘수가 없을 뿐더러 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정신분석가에 의하면, 그 학생은 모성에 콤플렉스에 걸려있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마저 끊고 말았다. 결국에는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다. 또 그의 선생의 말에 의하면 학생의 종교적 신앙은 교회라는 콤플렉스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때에 그는 교회출석도 중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후 마음이 정돈된 후에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콤플렉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그러는 중에 그 여학생은 내적으로 상처를

입은 나머지 불행하게 된 것이다. 나는 그의 어머니와 한 의과대학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서 그 학생이 내적인 안정을 상실함으로써 지나간 2년 동안의 마음의 안정없이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113. 스위스에서 어떤 교구의 집사 한 분이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고생 중에 있는 그의 동료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목사인 그의 친구는 털어 놓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그 목사의 말에 의하면 정신분석의는 자기의 죄책감은 진지하게 다루어 주지 않고 단지 그의 기독교적인 열성에서 오는 부산물이라는 진단만을 내리더라는 것이었다. 그 의사는 죄의식 같은 것은 관심 밖이더라고 했다. 그 후 나는 문제의 그 정신분석 학자와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전에 친구목사가 평한 그대로였다. 그는 인간과 우주를 취급함에 있어서 내재적이며 내향적인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죄의식 등은 모두 허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순전한 종교적 환영(幻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그 목사를 치료했다니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사실 그는 도움이 못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정신적 살인행위를 해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집사에게 충고하기를 당신의 친구 목사를 퇴원시키라고 권했다.

114. 독일의 한 건강요양소 한 부인이 상담차 찾아왔다. 그녀는 정신요법의 의사가 가지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 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인도하던 집회에 참석하고 자기의 죄를 낱알이 고백했다. 나는 그에게 정신요법의 앞에서 도 이렇게 죄를 고백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일이 없으면서 그 의사 앞에서는 그렇게 할수가 없더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1회 진찰에 2파운드씩 지불하면서 무려 40회나 그 의사를 찾아 다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30분 동

안 이야기하는 중에 그 부인은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받았으며 그것도 값없이 받은 것이다. 참 기독교인이 아닌 의사들은 정신분식 만을 고집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많은 정신적 위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신약에 나오는 “제자”니, “크리스찬”이란 말은 단순히 성례나 받고 이따금씩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아버지가 목사라 해서 혹은 전도자라고 해서 어머니가 경건한 분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크리스찬이 될수 없다.

34. 정신기술판

정신기록판이나 플랑셋(역자주: 심장모양의 작은 판에 발이 들 달리고 연필이 붙어있어 거기 손을 대면 자동적으로 운수를 기록한다는 점 도구)은 죽은 자의 귀신에게서 기록된 메시지를 받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강신술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다. 즉,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8:19).

이 책이 3판을 거듭했을 때 플랑셋 또는 우이자판을 포함한 하나의 정신적 해독이 일어났다. 어떤 잡지는 1967년 미국에서만 400만개 이상의 우이자판이 팔렸다고 한다. 우이자판은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하여 둥근 모양의 판으로서 가장자리에는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알파벳이 적혀 있다. 이 판은 죽은 사람과의 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추나 유리컵을 동시에 사용한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에 구속을 받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것을 잊으셨단 말인가? 사람들이 악마와 의론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란 말인가? 아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혹자가 말하는데로 물지각한 이들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얼핏 보아서 그렇지 았다는 생각을 할런지도 모른다.

35. 정신측정학

정신측정학이란 일종의 점 형태로서 이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란 책에 더욱 자세히 취급한바 있다. 정신측정학이란 본래 어떤 물건을 양손에 쥐고 있으면 그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관해서 점을 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이에 대한 몇가지 예가 있다.

115. 덴마크의 유명한 천리안 무당인 크로와제 (Croiset)가 독일의 카이제라오테른에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벤더 교수와 우트레히트대학의 텐헤프 교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천리안의 실험에 대한 강좌를한 일이 있다. 그때 그는 청중들에게 무슨 물건을 달라고 하더니 그 물건과 물건의 주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모두 사실이었다.

116. 목사 한 분이 내게 다음의 이야기를한 일이 있다. 전쟁 동안 그의 아버지가 3년 동안 실종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생사 문제에 대해 알 길이 없었다고 한다. 하루는 어떤 학생이 그 가정을 방문왔다가 실종소식을 듣고는 그 아버지가 소유한 물건에 관해 몇가지 물길래 아버지로부터 온 마지막 우편엽서를 보여주었더니 한참 들여다 보더니 하는 말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북방 시베리아에 전쟁포로가 되어있군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소련지도를 펴서 그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때에 가족들은 그 학생이 지적한 바로 그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36. 신대와 신추

근자에 와서 신대와 추의 사용이 방사능요법이라고 하는 학문의 수준에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여러가지 가정(假定)과 전제를 추반하고 있기 때문에 점(占)의 일종으로 간주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소위 점막대기의 과학적 근거에 관해서는 “기독교 상담과 사교”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탄” 이라는 나의 저서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가지 실례를 드는것 만으로 그친다.

117. 나의 친구 목사 한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했다. 즉 “내가 쥘리히 근처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내게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따로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중 절반 이상이 사교와 판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추를 이용하는 이로서 팔목할만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베 메르메트(Abbe Mermet)라는 책을 참고로 하여 여러 사람을 호리는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의 도움을 빌어서 병진단을 하며 치료에 필요한 약용식물을 알아내고 쥘리히 호수에서 익사한 사람의 시체가 있는 장소까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죽은 사람, 실종된 사람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이야기하는 중 그의 정확하고도 과학적 이론에 이렇다할 언급을 못했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토론할만한 자격이 없었던 탓이지요. 모든게 다 타당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 그에게 한가지 질문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까지 속속들이 들추어낼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행하고 있는 세력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는 이야기가, 한번은 산에서 금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

으려고 추를 사용한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찾는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산등성이까지 굴러내려 갔다는 것이다. 겨우 찰다를 잡아 발을 디딜수있기는 했지만 다음 날 그는 자기와 몸을 맞부딪치며 싸웠던 검은 모양의 사람이 자기를 깨우는 것이었다. 그의 힘에 못이겨 기운이 다하자 '예수님' 하고 소리쳤더니 그 사람이 온데 간데 없더라는 것이었다.

118. 류리히에서 온 한 기독교 사업가와 경험담을 한 일이 있다. 즉, 50세된 어떤 부인이 오래 동안 병석에 누워있었는데 그 여인과 친분이 있는 한 가정에서 전하는 말이 추를 사용하는 무당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보라는 것이었다. 바로 그 문제의 사나이는 좀 색다른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여러 개의 추 중에서 하나만 끌다 내고는 여인을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었다. 그 때까지도 이 부인은 자기가 마술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얼마 후 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야 염려한 나머지 목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 부인은 자기 가한 일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아몽튼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목사는 부인을 동정한 나머지 기도해주었다는 것이다. 몇달이 지난 후 그 부인을 만났더니 그 목사를 만난 이후에 되어진 일을 전부 말해주더라는 것이었다. 즉, 마치 저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의식과 더불어 그는 자신이 마술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도 깨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그 부인은 마술에서 건짐을 얻게되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은 자기의 지난 날의 짐이 실로 얼마나 무거웠던 것을 깨달은 연후에 구제의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부인을 둘러싸고 있던 안개는 사라졌다. 그 부인의 신앙 생활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다.

119. 임신중인 어머니가 추사용 점장이를 찾아가 자기가 낳을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아달라고 했다. 이 어머니의

아이들 둘이 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다가 지금은 이 두 아이가 모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고 억압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20. 소금광산에서 파이프가 파열된 사고가 일어났다. 추 쓰는 점장이를 불러서 그 폭발장소를 가려내보라고 했더니, 그 점장이는 그 건물의 설계도를 보자는 것이었다. 추를 잡고는 설계도에 의해 그 파열된 지점을 찾아내는게 아닌가. 조사결과 그의 지적이 들어 맞았던 것이다. 그 후 그 점장이의 말이, “당신들은 내게 일부러 오지 않고 그 도본만 보내주었더라도 충분했읍니다”고 하는 것이었다.

121. 스위스 출신의 한 성직자가 수년 동안을 추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 친구들이 위험한 것이라고 타일러왔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가 기차 앞에 넘어져 다리를 잃고 말았다. 그 후 상처가 악화되어 결국 양 다리를 절단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한번은 상처 주위에 큼직한 구멍들이 생기더니 그 구멍에서 수없는 굵직한 구멍이 생겨 그 때문에 죽고 말았다. 여러번 찾아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수년 동안을 그 부인은 억눌림과 악성기질에서 오는 고통을 겪어온 것이다.

122. 한 젊은 이가 병을 몰아내기 위해 점추를 사용했더니 그 후 부터 약간 차도가 보이는 듯 하더니 때를 같이하여 심한 신경노이로제가 생겨 입에서 저주와 험담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상담의 도움을 구했다.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에게 그의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자 신경노이로제도 사라졌다.

신대와 신추의 사용은 그것이 신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간에 사용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미신의 일종이다. 설사 아무 해됨이 없는 경우일찌라도 또 공인할만큼 과학적 원칙에 입각하고 있거나 기독교적 색채를 가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신추의 사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가 있었다면 벌써 오래 전에 입증되었

을게 아닌가. 왜냐하면, 신추의 사용은 그 역사가 수천년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과학적 지식은 결코 유치하지 않다고 본다. 상담을 해보면 미신과 마술의 행위가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방사능 요법”이란 괴이한 학문 기타 사교문학과 같은 수준에 놓을 수 있다. “너희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다”(마 7:20).

37. 영사(映寫)

유럽의 어떤 지역에 가면 집이나 옥의 건물에 간막이를 하거나 혹은 둘러막는 풍습이 전염병처럼 널리 퍼져있다. 점막대기와 추를 쓰는 무당들은 건강을 해치는 광선이 지구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광선은 조그만 상자를 몇개 쓰면 가릴수있다고 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상자 몇을 열어 보았더니 그 속에 구리철사 동강이와 놋대접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제작비는 3실링에 불과하지만은 일단 제작만 완료하면 10파운드가 호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러한 소위 지구광선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입증된 바가 없다. 이 광선은 지구의 방사능은 물론 지구의 중력이나 전기분야와도 무관하다. 오늘날 독일의 폼프 교수(Pump), 키르헨하이머 교수(Kirchenheimer), 파스쿠알 요르단교수(Paskual Jordan) 등 저명한 지질학자 및 물리학자들은 그 광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두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동물이나 사람 중에는 지구의 자력(磁力)에 예민한 층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경우라고하면, 조그만 상자나 점막대기 또는 추를 쓰기 보다는 오히려 과학적 방법에 의존하는 편이 나을것이다.

두째로 점막대기나 추를 사용하는 점장이들이 중매적인 세력에 의해 천리 바깥의 일을 알수있다고 하는 미신에 의해 좌

우되는 지역이 이 세상에 있을 법도하다는 가능성이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들의 주장이 입증된 바도 없고 아직도 비밀에 묻힌채 그대로 남아있다. 하여간에 방패기구나 방사능 요법등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자체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간은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찌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보호하심을 찾는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시 91 : 1, 2).

38. 사주(四柱)

다음으로 논할 문제는 우리들의 여러가지 미신적인 관습 가운데서 어떤 날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 관한 문제가 되겠다. 실로 이것은 땅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인간이 그 얼마나 비천해졌기에 종처럼 세상에 굴종하는 자신을 만들고 있느냐 말이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124. 독일에 있는 베저(Weser) 계곡에서는 4월 1일이 불길한 날이라 하여 이날은 아무도 심지어는 도급하는 직공까지도 일손을 멈춘다.

125. 다음의 실례는 어떤 목사 한분이 자기 교구에서 찾아볼수있는 풍습의 하나로써 내게 들려준 이야기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교회의 종이 울리면 그곳의 농부들은 파일나무에 짚을 둘러 묶고 삼위의 이름과 마술의 주문을 동시에 반복해서 외운다는 것이다. 종을 치는 사람이 평시보다 오래 치게되면 농부들은 여러 나무를 짚으로 동여맬수 있게 된다. 그럴때 마다 전 가족이 파수원에 나와 나무둘러쌓는 일을 한다고 한다. 그곳 교회 목사는 크리스마스때 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해왔지마는 지금도 그 풍습은 그대로 남아서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126.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는 망년회 밤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한 샘에 나와 지갑을 세탁하는 풍습이 있다고 들었다. 그 풍습은 명년 한해 동안 돈이 지갑에서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 관념, 풍습들은 어느 곳에나 있다. 예컨대, 많은 병아리를 얻기 위해 성 금요일(Good Friday)에 암탉이 알을 품게하는 일이라든가, 12월 4일에 나무가지를 잘라주면 여자의 경우보다 좋은 신통감을 맞이할 수 있다든가, 크리스마스때 행운을 위해서 나무를 흔드는 것이라든가, 새해 첫날이나 성령강림절 주일에 사과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등, 부활절 전야에 시냇물을 길러다가 병자의 몸에 뿌리는일, 4월 1일은 불길하고, 5월 1일은 행운이 오고, 일요일에 낳은 아이는 행운아며, 5월에 낳은 아이도 행운이 있으나, 금요일에 낳은 아이는 불행하다는 등 수다하다. 허구 많은 농업책력을 봐도 이러한 습관에 기인하고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기후를 점치고 있다.

예컨대, 성 스위틴의 날에(St. Swithin's day) 비가 오면 그 다음 40일 동안 비 올 징조라든가, 4월 달에 이른 아침에 안개가 끼면 6월에는 홍수가 날 징조라는 등도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갈 4: 10, 11).

39. 강신술

강신술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운동이다. 추리히대학의 블랑케(Balke)교수의 추산에 의하면 전 세계에 모든 종교적 배경에서 나온 추종자의 수는 무려 7,000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사탄의 사이"란 책에서 자세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복을 피한다. 강신술에는 여러가

지 방법이 있다. 즉, 신령의 환상, 책상들어 올리기 구르는 유리병, 자동글쓰기, 비몽사몽간의 말, 물체의 둔갑(소위 죽은자들의 모습), 영혼의 소요(산자의 혼이 돌아다니는 일), 물건들어 올리는 일(형체가 없이 물체가 움직이는것), 심령현상(잠긴 방에서 물체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것) 및 강신술 영역에 속하는 마술의 방어와 마술의 박해 등을 들 수가 있다. 도깨비나 유령의 출현도 이 계통에 속한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들에게도 강신주의 및 그와 유사한 강신직 종교의식들이 있다. 이런 악마의 장난으로 빚어진 문제들에 관하여 다음의 실례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27. 강신주의적 회답이 열리고 있는 한 집에 65세된 노파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밤 열두시와 한시 사이 집 안에서 무시 무시하고 이상한 소음이 나는 것이었다. 가구가 흔들리며 때로는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변이 일어났다. 하루는 밤에 과일과 채소통절임 40여통이 저장된 지하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노파가 일어나 보았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귀신도 들린 일이 없는데 매일 밤 그시간만 되면 목이 확확막히고 질식 상태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런 것이 일시에 멈춘다는 것이다.

128. 어느 휴일 예수 믿는 여자 사업가 한분이 집에 있자 하니 그날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는 공포를 느끼면서 기도를 했더니 곧 멈추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여인은 전의 집주인에게 물었더니 지난 전쟁때 바로 그 방에서 히틀러의 친위대들이 매일 밤 강신술 모임을 가진 일이 있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인의 도움으로 유령이 방에서 나가도록 기도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주인집 마누라가 심한 억압감으로 10주간 동안을 계속 고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29. 어떤 부인이 내게 와서 그가 아는 이웃 중에 강신주

의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천리 바깥 일까지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런데 한번은 그 사람이 문 앞에 와서 “당신의 아이에게 큰 위험이 오고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시오”하고 말하였다. 두 주일 후 그 아이는 차에 치어죽었다. 그런데 강신주의자 또한 의외로 죽고 말았던 것이다.

130. 어떤 예수민은 부인이 마술에 의한 치료를 받기 위해 강신주의자를 찾아갔다. 그때부터 그 부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고 말았다. 그는 억압감정 때문에 자살하고픈 생각도 하고 술과 담배와 난잡한 성생활에 떨어지고 말았다. 수년 동안 강신주의적 집회에 참석한 부인이 있었다. 결국 그 부인은 무당의 도움 없이도 귀신과 접촉할수있게 되었다. 낮에도 친척들과 대하듯이 귀신들과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자녀들은 감정이 저기압이 되어 포기상태에 이르고 자살할 생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132. 어떤 강신론자가 내게 와서 자기는 30년 전에 저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 지시에 의하면, 무엇을 하던지 당신은 언제나 복종만 하라는 것이었다. 또 한번은 저승과 통하는 한 부부를 찾아 방문하라는 지시였다. 그때까지 만해도 그들 부부는 영계와 어떻게 교통을 해야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저승에서 온 이 귀신은 그 강신론자에게 그 부부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부부의 하는 말이, 책상들어 울리기 연습을 해보았으나 그 기술을 완전 습득하기란 어렵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강신론자는 그들에게 귀신과 교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강신론자는 귀신의 지시에 따라 그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후 수년 동안을 강신술에 충성을 바침으로 저승의 귀신들이 주는 높은 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 강신론자는 그가 듣고 약속받은 말들을 액면 그대로 믿게되었다. 그는 나와 이야기를

마침 무렵에 “언젠가는 당신이 나를 영원히 인정할 날이 있을 겁니다”고 말하였다. 내가 그에게 귀신과 그런 식의 교통은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더니, 단호하게 “아니, 당신이 바로 눈이 멀었군요”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133. 열 한살된 소년이 있었는데 지독한 오줌싸개였다. 부모들이 가진 수단을 다해서 치료해보았으나 그들의 노력이나 의사의 노력이 다 실패였다. 결국에는 그 소년의 어머니가 흑마술을 하는 강신론자를 찾아갔다. 그는 아이가 입던 옷가지를 마술을 써서 문지르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그 옷감 조각을 걸치게 한후로 밤에 오줌싸는 버릇이 멈췄다. 그 후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때 자살을 기도하였다. 하루 밤은 기독교신자인 그의 여동생이 오빠를 가엽시 여기고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때 버란간 오빠가 소리를 치면서 동생 방으로 뛰어와서 그의 자살기도를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목을 줄리려고 하는 순간 눈 앞에 여동생의 모습이 문득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때 마술과 강신론은 가끔 이러한 억압감과 자살감정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특별히 브라질에 있어서의 강신술에 관해서 언급해 보아야 하겠다. 브라질에는 강신술적 색채가 아주 짙다. 그곳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강신술이 성행하고 있다. 사회적 성격을 띤 까르테고(Kardec) 강신술을 비롯해서 마쿰바제사(Macumba)에서 볼수 있는 범죄형태에 이르기까지 허다하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까르테고운동에 속하는 자선사업 단체는 칭찬해 줄수 밖에 없다. 그들은 학교, 병원, 어린이집, 셋집, 회의실 등을 설립하였다. 꾸리띠바(curitiba)에서 나는 알베르고 노투르노(the Albergo Noturno)란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책임자인 여자 마술사는 찾아간 우리 일행에게 묻는대로 기꺼이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거만한 어조로 “우리는 현재 브라질에만도

3천만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20년 이내에 아마도 국민의 절반 가량이 회원이 될겁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강신술이 증가일로에 있음을 말해주는 일이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 배후에 숨겨진 동기를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부인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재성육신됩니다. 우리가 현재의 생에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세에 있어서 승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락하오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을 동방의 종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신앙은 근본적으로 행위에 의한 구원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성경의 교훈과는 전혀 공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브다질의 범죄적 강신주의 형태에 대해서는 마뭇바와 움한다 송배 항목으로 미룬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특히 미국에서 성행하는 종교적인 색채를 띤 강신주의에 관해서 요찰하므로써 이 항목을 마치기로 한다. 나는 영국 방문 중에 강신주의 교회가 전국에 널리 퍼져있는 것을 보았다. 예배할때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재에서 임하는 영들의 감화로 말하는 중매에 의한 설교를 한다. 그 중매자는 몰아경지에서 말을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세상을 떠난 차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 놓고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성경본문을 인용하므로써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자. 레위기 20 : 27과 신명기 18 : 10-12을 참고하기 바란다.

40. 미 신

미신 그 자체가 어떤 종교적 태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은 태도인 것이다. 미신은 종종 아주 맹탕한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 크루제의

“우리 중의 마녀”(Johann Kruse, Witches Among Us)에 실린 실례를 들기로 한다.

134. 어떤 부인이 결혼한지 3주일 만에 독일의 할텐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심한 상처로 고생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런데 죽기 전 그녀는 병원 직원에게 하는 말이 자기의 상처는 과거 자기 남편과 가족으로부터 손매를 맞은 흔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켈젠키르헨에서 온 점장이는 과거 이 여자가 마녀였던 것이었다. 이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 농장의 가족들이 모두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점장이를 불려왔다. 점장이 딸에 따라 가족은 이 불행한 젊은 며느리를 캄캄한 방에 가둬놓고 계속 매질과 굶주림으로 고문사를 시켰다는 것이다. 그 가족들은 점장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을 활자화했다. 그 후에 가족은 물론 점장이까지 감금의 신세가 되었다.

135. 다음은 어떤 목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한번은 어떤 분이 와서 오는 주일 자기 아이에게 세례를 줄수없느냐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자기 아이가 세례를 받게 된 주일에는 이미 세 사람이 같이 받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되면 불운이 온다면서 자기 아들의 세례는 다음 적당한 날로 미루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목사도 어떤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의 요구를 수락하기로 했던 것이다.

미신적인 사고방식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중에도 특히 결혼과 세례에는 더 많다. 사람들은 대개 산모가 해산 후 제일먼저 교회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아무하고도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세례받기 전에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밖에 나오면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결혼식때 꽃다발을 받으면 행운이 온다든가, 혹은 신부를 문지방 안으로 안아 들여놓는 일은 행운을 가져온다는 등의 미신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그를 알만한 모든 방법으로 주를 신
뢰한다면” 이러한 미신적인 관습이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올 여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41. 정신감응술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서를 읽어가는 중에 모든 미신적인 세력
이 악하다고 하는 인상을 받았을줄 안다. 아마도 영매법(靈媒
法)이란 중성적 운동도 있는상 싶다. 이것은 정신감응의 현상
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소위 중성적인 정신감응 현
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정신속
에는 더 큰 조화와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 말 없이도 똑 같이 느끼고 생각하게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신감응이며 정신감응 중 최고의 형태이다.

내가 만나본 대부분의 원주민족들 중에는 중성적인 정신감응
형태가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원시적이란 말은 별로 적당한 말
이 못된다. 왜냐하면, 이들 종족들은 우리 문명인들에 비해서 정
신력에 있어서 보다 위대하고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친구
인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청년 램이란 사람이 있다. 그는 정신감응
의 힘을 소유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정신감응의 힘으로 자기가
거느리는 부족의 사람들과 접촉도 하고 호출도 하는 것이었다. 그
런데 놀라운 일은 부족 가운데 아무나 호출하는 소리만 듣고도
그가 언제 자기와 만난 일이 있고 호출한 적이 있다는 것 까지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때마침 그 주장이 예수를 믿게되었
다. 후일 그에게 물기를, “당신이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니
정신감응의 힘을 잃었겠지요?” 했더니, “단지 약간 그러했을뿐,
그리고 지금은 가족과 더불어 지낼뿐 부족 중 다른 사람과는 별
로 접촉이 없습니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은 처음 듣는

인일지다 매우 흥미가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당신은 이런 감응능력이 영매적이나 악마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그야 악마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 이유는 내가 어머니나 형제들로부터 연락을 받음과 동시에 기도를 하니깐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호출할 때에는 악마적인 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된 후로는 나의 부족을 통솔하는 특별한 힘을 상실했으니까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대하는 방법이 악마적 이랄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놀란 것은 그이 역시도 정신감응을 중성적인 형태와 악마적인 형태로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정신감응의 중성적 형태는 여러 정신감응술 중 적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 스칸디나비아의 추장의 능력은 사실상 이전에 그가 가졌던 악마의 세력에서 결과된 어떤 영매적인 결과다가 보다는 중성적인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에 신증을 기해야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끝까지 신자들을 유혹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상담을 통해서 천리안 미신 세계는 물론 강신주의 세계에도 많은 무신의 형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무신적인 정신감응술도 다른 무신행위와 마찬가지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감응력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지적인 우둔을 표시하는 것이다.

42. 방언운동

방언운동이란 표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가지 질문을 던져준다. 방언의 현상과 판제가 친숙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악마의 에이·뵘·씨”란 책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저자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본 항에서 취급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20에 언급한 성령의 참 은사로 말미암지 않고 말하는 모방형의 방언을 문제로 다루고자 한다.

두째 문제는 기독교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방언운동이란 무엇이나”고 그들은 묻는다. 이 문제 역시 소개 정도로 간략히 답변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세계 도처 어디를 가나 황홀경지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을하며 노래를 부르는 교회와 사람들을 볼수있다. 이런 현상을 소위 “방언한다”(Speaking in tongues)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의 어떤 귀절과 연관을 시키려고 한다. 어떤 미신에 관한 책을 통해서 요즈음 신흥방언운동들에 관하여 우리가 논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악의를 떠나서 또 악평이나 해보려는 심산을 떠나서 하는 말이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몸을 극단주의와 악마의 세력에서 보호하자는데 있다.

여기에 경고가 필요할가? 필요한게 사실이다. 20세기에 있어서 방언운동은 이미 폭발적인 기세를 보이고 있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로스앤젤레스의 강신론적인 보루에서 방언운동은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이 운동이 가져오는 나쁜 영향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방언운동에 대한 저술만도 다량으로 나왔다.

196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방언운동은 전 세계에까지 파급되어 기독교회에 많은 소란을 안겨다 주었다. 예컨대, 미국에 있어서 이런 소동이 심해짐으로 해서 미국정부는 정신병리학자 한분과 루터교 목사, 한분 그리고 심리학자 한분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조직하여 이 소란의 현상을 조사토록 위촉한바 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신약성서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성경 귀절들은 방언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막 16:17, 행 2:

4, 10:46, 19:6, 고전12-14. 우선 나는 이 성경말씀을 철저히 믿고 있으며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는 점도 굳게 믿고 있음을 말해둔다. 나는 성서에서 어느 부분을 제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오늘의 방언운동들이 신약성서의 신령한 은사와 어떤 면에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다 그렇지는 않으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방언운동들은 대개가 신령한 은사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유가 될까? 자고로 구원의 역사 중에는 그 시대에 부응하는 계시가 있어온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환란의 시대가 그 한 시대를 말해준다. 광야에서 매추라기와 만나를 먹던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입주하기 까지가 또 한 시대가 된다. 이렇게 계시의 시대는 역사를 통하여 오늘까지 지속되어온 것이다. 신령한 방언의 은사는 신약이 정경으로 형성되기까지 계속되었다. 정경이 얄니아와 욥바(Jamnia and Joppa)에서 확정됨을 계기로 특별계시 시대는 끝이 났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성령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가장 성숙한 기독교 신자는 오늘날의 방언운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나는 100여개국을 순방하면서 이상한 형태의 방언을 목격해왔다. 이제 두가지 예를들어 보겠다.

136. 캘리포니아의 산·더에고에 있을때 어떤 부인이 상담을 청해왔다. 그 부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오순절 교회 형제의 인도로 부흥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다고 했다. 부흥회의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지금까지 방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자"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집회가 끝난 후 뒷자리에 남으라고 하였다. 그레

서 자기도 남았다가 오순절 교회의 그 목사의 안수를 받자 그만 땅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고 하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 그녀는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 “당신 방언 참 잘 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성령의 세례는 이미 받은 그였다. 이 일이 있는 후부터 그녀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과의 평화도 상실하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하여 그 여인은 상담자 찾아온 것이었다. 다행히 부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그 다음 부터는 절대로 오순절교회 집회에는 가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성령의 세례에 대해 확신을 가진 이가 그 확신을 잃는다고 하면 그러한 체험은 성령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오순절교인들은 방언은 성령의 세계를 받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들이 이단에 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전혀 옳지 못한 것이다. 바울은 고전 12장에서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 가장 작은 것에 속할뿐 결코 최대의 은사는 아니라고 하였다.

137. 나는 일본에서 열린 전도대회를 통해서 두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한번은 가루이자에서 있을 때 집회때인때 미국 목사 한 분이 파문을 던졌다. 대회 전날 밤에 도착한 그 목사는 성령이 그에게 이르기를 가서 말하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었다. 그때 대회장의 하는 말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게도 성령이 말했을까 아니요”하면서 육신각신 해다가 이 목사는 다른 몇몇 오순절교회 형제들과 함께 동시에 다른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몇몇 선교사들이 탐문차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다시는 그런 집회에는 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 이상한 사람은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송부르며 통역도 없는 방언을 하는 것이었다.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는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는 이가 없었다. 얼마 후에 선교사 한분이 그 목사에게 가서

“어떻게해서 당신은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았오?”하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만일 당신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짧은 기도를 오륙백번만 하게되면, 갑자기 방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그의 비법이기도 하다! 그것은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것은 다만 무의식의 동작에 불과한 것으로서 강신론자들에서 찾아보는 저절로 글을 쓰고 말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다.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관찰한 결과 사람들이 이러한 방언 운동들을 경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면 관계로 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내가 쓴 소책자 “방언의 투쟁”(The Strife of Tongues)을 참고하기 바란다.

43. 전이현상(轉移現象)

사교적(邪敎的) 전이현상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마술과 마법의 신비의 영역을 말해주고 있다. 기독교인의 영적 생활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마는 이와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의 마술이란 항목에서 산자가 죽은 자로 옮기는 사실에 대해 언급한바 있거니와 다음의 예는 전이 사실에 관해 좀 더 밝혀줄 것이다.

138. 한번은 20세된 소녀가 죽었다. 그 이웃에는 목구멍에 붉은 혹을 가진 한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 부인은 자기의 보기 흉한 혹을 죽은 소녀에게 붙여줄 셈으로 소녀의 무덤을 찾아갔다. 몇마디 마술의 말을 중얼거렸는데 곧 전이 현상이 일어났다. 이상한 것은 이 일이 있는 후부터 혹이 온데 간데 없어졌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종종 하는 고백이 죽은 사람의 시체나 혹은 자살한 사람의 시체를 보면 심리적으로 큰 쇼크를 받는다

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그 영향을 받아왔다는 이도 있다. 여기 대한 실례 둘이 있다.

139. 16세된 한 젊은이는 물에 떠내려 오는 자살 시체를 본 후로 계속 자살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속에서 하는 말이, “목매에 죽으라”는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25세도 되기 전에 신경마비에 걸리고 말았다.

140. 한 소녀가 강가에 나가 여덟살난 소녀 아이의 시체가 표류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받은 쇼크로 인해서 15년 동안을 건강을 회복치 못한채 고생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그 소녀는 물가나 다리에만 올라서도 공포를 느끼곤 했다.

이러한 경우는 암시적 성격의 전이형태를 말해준다. 상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다. 예컨대, 점막대기 사용 및 점치는 따위의 미신의 힘은 무당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는 결코 사교집단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141. 한 기독교인 사업가가 교회회의에 추를 사용하는 접장이 한분을 데리고 왔다. 그 장로는 과학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 취미였다. 한번은 그 교회 목사도 신대를 가지고 신접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장로가 뒤에 섰다가 목사의 팔목을 잡고는 막대기를 가로채었다. 그후부터 목사도 점막대기를 짚을수 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억압감이 살아나서 그의 신앙에 번민이 일어나게 되었다. 목사는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없애려고 부인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그때부터 점막대기에서 오는 힘을 제거하는 것 만이 억압감을 없이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죄를 고백함으로써 억압감정과 점막대기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다.

142. 목사 한분이 점막대기 점장이에게 가서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옮겨 달라고 했다. 그 후에 그 폭자는 신대를 사용해서 물 있는 곳을 친히 찾아 나선 일이 있다.

143. 일생동안 흑마술의 힘을 빌어온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도저히 그대로 죽기에는 미련이 있어서 다른 점장이들 처럼 자기의 마술적 치유의 능력을 물려줄 친척을 찾았으나 물려받을 만한 친척이라고는 없었다. 그 때문에 하는수없이 이웃에게 그 능력을 물려 주기로 했다. 그 이웃 역시도 죽음에 임박한 분이였다. 그 여자는 손녀 중 하나에게 그의 치유의 능력을 물려주고서야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손녀에게 갑자기 심한 경련이 일어나더니 8개월 간이나 계속되었다. 의사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후에야 겨우 경련이 멈췄다.

144. 내가 아는 분이 최면술을 쓰는 힘을 그가 죽기 전에 큰 아들에게 그 힘을 물려주었다. 사랑의 마술에도 확실히 많은 전이(轉移)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삼고자하는 것은 성적 망상으로 고생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진전한 사람들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무당에 전염된 사람도 기도로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도로서 억압감도 멀리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적 망상으로 고생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실사 수천 마일 밖에 있을 경우 그 망상을 되풀이 하게 된다. 실패를 들어 보기로 한다.

145. 도덕적으로 전전하게 살던 소녀 하나가 야간 수업에 갔더니 선생이 골돌한 강신론자였다. 이 소녀는 상당한 미모였다. 수업 도중 이 소녀는 선생이 자기에게 뭔가 접근해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한 느낌을 전에는 전혀 가져본 적이 없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선생과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 소녀는 예언적인 꿈도 꾸고

정신감응의 체험도 하기 시작했다. 휴일에도 그러한 이상한 관계가 계속 되다가 그 소녀가 멀러 멀어져 있게 되자 그 선생의 영향도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마일 이상 되는 곳에서는 마술적 성관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상담을 통해서 이전의 여러 경우의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굉장한 힘이 있는 강신론자인 어떤 무당이 사고를 만났다. 무릎과 골반에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3개월 동안을 석고를 하고 다녔다. 3개월 후에야 이것을 뗄 수 있었다. 그런데 의사는 그녀가 이미 임신 2개월째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다. 그래서 의사는 혹시 그 동안에 남자와 관계한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의사의 생각으로는 그 여자가 하반부에 석고를 했기 때문에 성관계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때 의사는 석고를 떼고 새 것으로 바꿔 3개월 동안 더 붙이고 다니게 했다. 3개월 되던 때에 다시 그것을 떼버렸다. 그때서야 그 여자는 자기가 무당으로 자기 남편과 정신적 성관계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이 마지막 예는 우리의 인간적 이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임파상의 전이과정은 다른 데서 보다는 정령승배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강신주의의 환자(幻姿)는 성적 애정의 영역에도 존재할 뿐더러, 그 현상은 가장 반발적으로 나타난다. 나는 이같은 실례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름이 끼치는 자료들을 공개할 생각은 없다. 선교사들도 그들의 선교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관하여 내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심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지도에 복종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의 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는 일이 필요하다. 전이는 꾸준한 기도생활과 관련하여 생겨나기도 한다. 억압당하는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이의 위험이 딱딱 오게 된다. 특

히 전이의 위험은 미신에게 복종과 악마화, 내지는 집신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147. 어떤 부인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자살하듯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148. 어떤 신도가 정신병으로 고생한 나머지 자살하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러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병중에 있던 그 환자는 후에 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같은 날 그 목사는 자기가 위해 기도해주던 또 한 사람이 자살한 사실도 모르고 자기는 자살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으로 번민하고 있었다.

149. 오순절교회 목사 한분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차례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해주었다. 그런데 그 목사 자신이 같은 병으로 앓다가 죽고 말았다.

150. 구세군 사관 한분이 신접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다. 그 사람은 학대변태성욕자였다. 몇달간 열심히 기도한 뒤부터 이 사관은 자기 부인을 구타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었다. 보름달 밤에 자기의 부인을 보고 하는 말이, “오늘 밤은 지하세계를 가보고 싶은 밤이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151. 오랫동안 한 창녀를 상담해온 간호원이 있었다. 그 간호원은 그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었다. 마침내 창녀는 그의 지난 날의 부도덕한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후부터 창녀를 위해 기도해온 간호원이 창녀기질의 심한 유혹을 받게 되었다. 이전에 없었던 성욕이 끓어오르는 것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그녀의 중재역할로 전이가 생겼다. 그리하여 구원이나 압박이나 하는 문제를 놓고 싸우게 되었다.

152. 어떤 목사는 많은 정신병자를 취급하는 중 항상 그들과 함께 묵는 것을 습관으로 생각해왔다. 여러번 그는 기도를 통해서 정신병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해 왔다. 그런

데 얼마 후 그의 아이가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야고 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 안수한 후로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런 일이 있는 후부터는 우울증 환자와 같이 있는 것 까지도 꺼려한 나머지 치료하는 일도 그만두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153. 여러 해를 강신론자로 활동해온 감독 한 분이 있었다. 그에게는 미모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상상 못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온 딸이었다. 때로는 파음을 하고 끼연을 해서 약을 복용하기가 일쑤였다. 성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독교 목사와 사업가만 골라서 유혹하는데 몰돌해왔다. 한번은 교인 가정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그자리에서 이 여자가 어떤 질문에 기발한 답변을 하므로 해서 파티를 주재하던 목사의 눈에 들었다. 목사는 그 여자와 몇마디 말을 주고 받은 다음 좀더 이야기 하려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때 그 여자의 말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으나 뜻대로 안된다는 것이었다. 목사가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자 했지만 그 여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

목사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성경 귀절을 되풀이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쇼크를 받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자신이 끝없는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공포에 질려 소리도 못내었다. 그러다가 고함을 질렀다. 이 소리를 듣고 모임에 참석했던 이들이 그의 아내를 따라 방으로 몰려 들었다. 몇분 후 정신이 돌아 그 목사는 의식을 회복했다. 그 소녀는 목사를 쳐다보면서, 악의면 얼굴로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시나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쓸어뜨린 사람이랍니다"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이 소녀는 이름있는 기독교 지도자를 유혹하는데 성공했다고 고백했다. 다시 말하면, 그 소녀는 어떤 목사를 피어서 신학적인 문제에 관해서 설명해줄 것을 졸라대면 곧 자기에게 반해서 간음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소녀는 그 목사의

이름까지 밝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악마에 사로잡힌 여자와 불미스런 일이 있은 후 그 목사는 3주 동안이나 번민 중에 지냈다고 이야기 했다. 그 여자는 후일 자살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다. 그후 그는 그 여자가 일러준 목사를 찾아갔다. 그 목사와 이야기 하는 중에 그녀와의 일이 사실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 문제의 목사는 그 여자와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기독교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던 것이다.

중재하는 일이나 상담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인 것이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성령의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154. 나는 중국에 선교사였던 목사의 부인에게서 전이에 대한 가공할만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었다. 그 남편이 한번은 곧 죽어가는 골돌한 여자 마술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여자가 젊었을 때 악마에게 몸을 바친 후로 양팔에 언제나 줄을 드리고 다녔는데 그 줄은 아무도 풀수없도록 뽕뽕 매여있었다. 이 선교사는 그녀의 침상 옆에 앉아서 복음에 관하여 그녀와 이야기 하는 중에 그녀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게 되었다. 선교사의 말이 당신은 지금까지 악마를 섬기는 일에 한평생을 바쳐왔지마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을 해 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이길을 택하도록 힘쓰시오. 자기를 부정하는 이 줄들을 다 끊어버리시오”하고 말하였다. 복음과 마술의 악한 세력과의 사이에 벌어진 싸움은 끝나고 말았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로 돌아갔던 것이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여인은 그의 생명을 주님께 바쳤다.

그 여자는 가위로 양팔에 드리운 줄들을 모조리 잘랐다. 그러는 동안에 선교사의 집에서는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와 큰 딸이 두살난 동생에게 튀김한 콩을 주어서 삼키게 했다. 갑자기 튀김콩이 아이의 숨통을 막아 질식을한 것이다. 만일 그때 아버지가 계셨다면 숨통에 손이라도 집어넣어 살릴수가 있었건만 그 당시 아버지는 그 여자 마술사의 침상 곁에 있던터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어머니는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의식이 없는 아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더니 도중에 아이가 갑자기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까무라쳐 영영 죽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는 후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알게된 일이지마는 그 아이가 질식했던 바로 그 순간이 마술사가 팔의 줄을 끊던 시간이었음이 밝혀졌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마술의 효력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경험있는 기독교 상담자라면 그와는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전이현상은 억압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묶여 있을 때에도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우발적 발생은 결코 아니다. 위의 예를 통해서 만약 선교사가 그 여자 마술사를 고쳐주던 순간 의식적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두었던들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 유명한 마술사나 영매자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여러 교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특별히 언급해둔다. 한 사람 보다는 둘이 더 좋고 때에 따라서는 기도그룹이 모여서 밀어주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그 선교사의 부인은 확실히 자기 아이의 질식사는 남편의 상담과 어떤 판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죽음이 허무 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는 후 그들이 섬기던 교회의 태도가 한층 부드러워졌으니 말이다.

영적 전투경험이 없는 이름만 있는 교인들 혹은 전통적인 교인들은 위의 실례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적 사고에만 젖어 있는 의사들도 물론 불신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이겠느냐? 마귀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비탈을 내리달린 신약의 사건은 근시안적인 사람의 편견을 완전히 뒤엎고 있다.

44. 움반다와 마쿰바(Umbanda, Macumba)

내가 브라질에서 강연여정을 가지던 중에 크렙스 교수로부터 포르토알레그레(Porto Alegre)에 있는 움반다 의식에 관한 소개를 들은 일이었다. 브라질에서는 국교가 되다시피한 움반다 의식의 성격은 복잡하고 난해하다. 원래는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하며 여기에 미국의 인디언 마술과 어떤 강신적 요소 및 카톨릭의 요소 등이 첨가되어 있다.

움반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예수는 숭배의 아버지(Pia de Santo) 숭배의 어머니(Mae de Santo)로 되어있고 그 지도 밑에 그 분파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Filhas de Santo)이 있다. 이들을 삼바스(Sambas)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영매 즉, 무당들이다. 움반다 집회의 의적 형식에는 네 부분이 있다.

제제는, 제물을 바침으로서 인준을 받은 이들이 동물의 피로 뿌림을받는 희생제물 의식이요, 두제는, 수시간 동안 춤추면서 황홀경에 들어가는 공중집회, 세제는 사랑의 축제, 네제는 질서있게 예물을 진열하는 의식이다. 어느 누가 움반다 종교의식의 진짜 성격을 알고 싶어도 분명한 해답을 얻기란 용이하지가 않다. 일반적 견해는 춤을 통해서 숭배 어머니가 그녀의 신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다. 그녀는 참여자들을 축복하며 짝막한 혼계를 하기도하고 짝을지어 주기도 하고 병자를 안수하기도 한다. 움반다 숭배자들은 춤을 추며 황홀경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므로써 신의 영으로 충만해진다고 한다.

이러한 종교집회가 진정한 기독교와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설사 그러한 의식 중에 기독교적 상징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마쿰바도 해피땅치하기 짝이 없다. 움반다 숭배자들은 마쿰바 숭배를 몹시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마쿰바는 본래 저급하고 죄를 많이 범하는 강신술의 일종이며, 이에 반해서 움반다는 월등하게 신령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쿰바란 말은 간단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마쿰바는 콤바(Cumba)라는 이름을 가진 나쁜 종교댄서(Jongo-dancer)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그러므로 그의 마술을 마쿰바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또 그 말은 재앙의 악마인 끼움바(Kiumba)의 영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마쿰바는 흑마술과 상습범적인 강신술의 한 형태의 혼합이다. 마쿰바 의식은 악과 재앙의 신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시작된다. 성경에는 그 신의 진짜 이름으로 루시퍼 또는 바알세불(Lucifer or Baalzebub)이라 기록되어있다(사 14:12). 각계 각층의 악마가 전부 이 신을 받든다고 한다. 이 악마들을 엑쑤(Exu)라고 부른다. 마쿰바의 근본 목적은 원수들을 공박하고 자신을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일을 수행키위해서 엑쑤를 위해 십자로에 예물을 안치해 놓고 황급히 사라지는 틈을 타서 엑쑤가 그 장소에 종종 나타난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실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155. 어떤 사람이 마쿰바 집회에 참석한 다음 자기 아내가 살해당할런지 어떡할런지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때 마쿰바 지도자가 닝마로 만든 인형 하나를 가져와서 밤중 늦게 달이 넘어갈 때쯤 해서 그것을 위로 높이 드는 것이었다. 또 그 여자 지도

차는 바늘로 여러번 인형을 찔러 보고는 알수없는 추문과 마술의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끝으로 인형을 가지고 와서 계물과 같이 십자로 위에 안치하였다. 이것은 그 남자의 아내를 죽일 악마를 일깨우는 작업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내는 죽지않았 자마는 대신으로 남편이 죽고 말았다. 이리하여 마술은 무죄한 사람이 아닌 죄인을 찬 것이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통치권을 이양하지 않으신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아시요 마귀가 아니다.

나는 여기서 마쿰바에 관해 세론을 피하기로 한다. 이미 나의 저서 "천하의 예수" (Jesus auf allen Kontinenten)에서 자세히 다룬바 있기에 말이다.

그러나 꼭 말해두고 넘어갈 것이 있다. 내가 리오 데 자네이로브에서 23년 동안 마쿰바 의식을 주장해왔다는 어떤 부인을 만난 일이 있다. 그 부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의해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지금 그 부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구속해주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45. 사마귀 떼기

사마귀를 떼는 방법은 매우 의심적이고 또 성질상으로 보아 의심스러운 데가 많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암시적이며 마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게 사실이다. 다음의 예들은 암시적 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156. 나는 하노버 남방 한 도시에 사는 의사 한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사마귀를 성공적으로 늘 떼는 분이였다. 그는 환자의 사마귀를 톡톡두드리면서 동시에 오딧세이에 나오는 글 몇 귀절, 즉 "Ennepe musa andron polytrpon hos mala polla epathen" 하고 중얼거리며 외우는 것이다. 환자는 인용한 귀절

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마술의 주문인양 이해되어 사마귀를 떼는 작업을 무사히 해내는 것이었다.)

157. 로드링겐에 사는 한 피부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나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 그는 치료에 알수없는 방법을 쓰는 것이었다. 예컨대, 어린 환자에게 흰종이 위에 손을 얹게하고는 연필로 손의 모형을 종이 위에 본을뜬 다음, 그 종이를 내어주면서 집에 가서 종이 위에 사마귀가 있는 위치를 표시해서 가져오도록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가져온 종이를 들고 “자, 사마귀들아 2, 3일 내로 다 없어져라”하고 불에 던지곤 하였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언제나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어른의 경우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158. 다음은 어른의 경우에도 통용이되는 방법의 실례이다. 완두콩으로 사마귀를 바비면서 동시에 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그런 다음 그 완두콩을 집밖 한쪽 구석이나 공동묘지에 가져다 버리는 방법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을 말한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보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59. 북 독일의 한 감독이 자기의 교회에서 있던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곳 남자들은 사마귀를 떼기 위해서 죽은 여자 시체 씻은 물을 몸에 뿌린다고 한다. 반대로 여자들은 죽은 남자 시체를 씻은 물을 뿌린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동안 모세서 제6, 7권에 있는 주문을 반복한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사마귀가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면서 신부는 이런 치료를 받은 사람은 성적 태만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도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해서 동의하는바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향은 암시적 치료방법이 아닌 마술적 방법으로 사마귀를 떼는 경우에 국한한다.

46. 마 술

요술은 중세기의 암흑시대와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루제의 저서 “우리 주변의 마녀들(Kruse; Witches Among Us)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다음의 몇가지 간단한 실례는 몇몇 법정기록에서 얻은 것들이다.

160. 1934년 글다루스에 사는 한 부인이 집에 있다가 불에 타죽었다. 그는 말을 사용하는 요술사였다고 한다.

161. 1951년 튀네부르게 히-쓰에서 온 두 사람이 마녀의 집에 들러서 불을 질렀다. 그런데 그 노파는 구조를 받았지만 노파의 친척 두 사람이 불길에 타죽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162. 1951년 브룬스빅에 사는 19세된 소년은 자기 아버지의 마술에 걸려들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얼마 후 자신도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흑마술의 술책과 잡다한 형태의 요술의 차이를 밝힘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판별력이 필요한 것이다.

47. 요 가

요가는 본래 극동지방과 인도 혹은 힌두계 철학 및 심리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나는 본 항에서 판탄자리 요가(Pantanjali yoga)에 대한 포괄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마슈라의 “요가 심리학원론”(Mishra; The Textbook of yoga psychology)을 자유로히 이용하였다. 그외의 자료는 인도사람인 드·로와이교수에 게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본 자료의 대부분은 저자가 직접 인도, 태국 및 기타 동남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얻은 것임을 밝혀 둔다. 나는 요가실습을 하다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여러번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모두가 다 본 문제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보탬을 주고 있다.

자면 관계로 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마도 다음 기회에 내용을 저작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으로 본다.

우선 그 절모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미슈라의 저작에서 몇가지 인용해 보련다. 요가 라는 말은 독일 신비주의의 신비적 합일과 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산비적 합일이라는 것은 우주정신과의 신비적 합일을 말한다. 요가와 독일 신비주의에는 차이가 있다. 즉, 요가가 성격상 무신론적인데 반해서 독일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양자가 자아실현의 관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인간은 순수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자아를 얻는데 목표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 영원한 자아 또는 자아는 우주적 또는 궁극적 실체의 일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요가는 이것을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벌써부터 우리는 요가와 기독교의 조화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다 더 분명히 그것의 절모를 알아보기 위해 이상에서 언급한 책에서 몇가지 간단한 설명을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모든 신체적 기관은 그 영혼과 관계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뛰어나기 위해 서로가 분투하는 육체적 정신적 성질을 소유하고 있다.

이 두 본성은 심리적 훈련을 통해서 조화와 통일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영원한 자아는 전능하고 전재하며 또 전지한 것이다. 인간의 영원한 자아는 초월적이며 내재적이다. 즉, 시작도 끝도 없으며 출생도 죽음도 없다.

물질은 마음, 지성 및 정신보다 낮은 단계에 있다. 요가는 형이하학 및 형이상학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한다.

요가는 형이하학 및 형이상학적 우주의 종합을 암시한다. 천

당과 지옥은 인간의 마음의 산물이다. 요가는 마술, 신비주의 밀교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천을 넘는다. 이상의 언급들을 통해 볼때 요가는 전적으로 성경의 교훈과 배치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털끝만큼이라도 요가에 감염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요가의 체제는 대개 서구에서는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체조요법, 호흡훈련, 심신경감훈련, 정신집중운동, 명상 및 사색 등이다. 때로는 자생훈련(自生訓練)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 첫 단계에는 주저없이 참여할수 있다고 한다. 의사 중에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까지 추천하는 이들이 있다.

두째 단계는 무의식 상태의 통제이다. 예를 들면, 이 두째 단계를 통과한 이들은 내장의 신경조직을 통제할 뿐아니라 다스릴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만 정신통일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한쪽 귓볼을 빨갱게 하는 동시에 다른 쪽 귓볼의 색깔은 죽이는 일이다. 이것을 종교적 이적으로 볼수는 없으나 어떤 이는 손바닥에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것이었다. 팔과 볼을 칼로 관통시키는 요가인도 본 일이 있다. 일단 박혔던 칼을 빼고나면 피 한 방울 흘리지않고 다시 흉터가 메워져 불과 한 두시간 내에 원상대로 회복되는 것이었다.

세째 단계는, 자연의 세력을 통제하는 요가단계이다. 티베트의 요가인들 중에는 정신통일로 열을내어 열음을 녹이는 이들이 있다고 전한다. 또 어떤 요가사들은 전혀 물질의 도움을 입지 않고 불을 피우는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화마(火魔)이다. 나는 상담을 통해서 이런 성질의 일들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만나 보았다.

한번은 아프리카 남단의 포트·엘리자베스라는 곳에 산다는

불을 다스리는 자를 만났다. 그가 그러한 처지를 벗어나고 싶지 마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네째 단계는 마술과 우주세력을 통제하는 요가의 단계이다. 이것은 모든 마술 및 강신적 현상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가장 좋은 자료가 될수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티베트의 한 마술 전문가에게서 10년 동안을 훈련 받은 이였다. 내가 호주에 갔을때 바로 그 사람이 상담하러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나는 마술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해 주었더니 그의 말이 이 네째 단계는 순전히 악마적 놀음이라는 것이었다. 자기는 그 악마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요가의 최고 수준에 까지 다달은 요가전문가들은 영적 체현과 공중산책, 먼거리여행, 환각현상, 영혼산책 및 그밖의 여러가지 미신 현상들을 통달하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요가를 어떻게 볼것인가? 첫째, 요가가 그리 좋은 것이 되지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국을 통해 볼때 사람들이 요가의 철학과 교훈을 받아들여 응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말한대로, 많은 사람들은 요가의 후반 단계 만은 기독교인들에게 위험을 가져다 준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견해일까? 그런데 한가지 기억할 것은 서구인들로서 상상 못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가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동양인들은 서구인들을 비웃을 정도이다. 왜냐하면, 합리주의의 결과로 그들 서구인들은 진리에 있어서 절반쯤은 눈이 멀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사람들은 서양인들이 그들의 소심한 생각에서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들의 존재까지도 경험해온 것이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목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까지도 동양에서는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던, 서구인들의 경험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말한것 처럼 영매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요가의 출발은 해가되지 않으나 종교
 은 위험으로 끝나는 것을 본다. 요가에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컨대, 요가운동이 불교인들의 간결
 한 주문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요가운동에 가담하여 선생의 지도에 따라 인도말로 합창
 을 복창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았다. 알고보니 그들이 복창하는
 말의 내용은 이러했다. 즉, “부처님은 불타이시오,” “부처님은
 지존하시나이다” 등. 기독교인들 자신이 이런 성질의 불교기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누구나 의아해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통일을 위한 운동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수는 없다.

한번은 남 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와서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
 려주었다. 그는 요가를 시작한 후로는 전과 같이 기도도 할 수
 없게 되고 기독교 신앙마저도 잃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에게 요가를 당장 그만두도록 권했더니 그도 순순히 내 충고를
 받아들였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못한 것은 하나님의 자혜
 안에서 된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선교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사람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사람에게나 헬라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
 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고전 1: 21—24).

우리 서구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할 것이 있다면 그것
 은 이들 동방의 이단 사상이 갖고있는 내적인 “덕성의 함양”이
 다. 그렇다면, 성경이 주는 바가 힌두교나 불교보다 더 못하다
 는 말인가? 문제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고갈시키고 죽이는 독소
 를 가진 그러한 외래사조를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의 생명력있는

증언을 버릴때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악마의 전모에 대한 설명을 끝맺을까한다.

Ⅲ.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1. 미신의 영향에 관한 개략

지금까지 인용한 예들은 대개가 미신과 사교관습에 있어서 그 형태야 어떠하든 간에 다소의 위험을 결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이 중 많은 경우가 최면 혹은 자동최면의 소산으로 볼수가 있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 그 미치는 영향이 인간의 사고 중 무의식의 영역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신을 논리적 관점에서 볼때 의식적으로 그것의 비 논리성을 비웃을지 모르나, 때로는 생각을 가다듬고 보면 하찮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꾀에 휘말려들기가 일쑤다. 이러한 성취욕은 미신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비웃는 것들이 다 사실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들 심리학자들과 정신병리학자들 및 정신분석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로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지금까지 이해되어 온 사실들이다.

과학자가 추종을 불허하는 경우는 우리들이 이성애 배치되는 마술이나 신령적 영역이나 초월적이며 초자연적인 사건에 몰입되어 들어갈 때인 것이다. 단순한 인과법칙 만으로는 사실을 입증할수없는 보다 고차원적인 자연질서가 존재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질서는 과학적 분석에 속하지않는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질서는 다만 신앙으로 만 이해될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세계는 어떤 신화도 아니며 그렇다고 상상의 소산도 더욱 아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신적 성질을 통해서 긍정되고 체험될 수 있는것 만큼 악마적 성격을 통해서도 체험되는 수가 있다. 사실, 신앙이란 보다 고차원적인

대상이 실제화하는 것을 뜻한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실제화 내지는 확신을 엘렌코스(elnchos)라고 부르고 있다. 신자에게 있어 이 실제화 및 엘렌코스(확증)는 수학의 입증 만큼이나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부활을 과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증명할수는 없는 일이다. 부활이란 다만 믿음을 통해서 만 이해될수가 있기 때문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의 사실성은 수학자에게 있어서 둘에 둘을 곱하는 만큼이나 하나의 사실로 임해오는 것이다. 이같은 고차원적인 자연질서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수있는 것은 마술적인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것과는 배치될 뿐더러 악마적이라는 사실이다. 성서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구원과 중생과 온전함과 완전이다. 이에 반해서, 마술은 끊임없이 파괴와 허무, 혼돈과 암흑으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고차원의 세계질서가 평범한 논리나 이성의 범칙에는 예측하지않지만은 그러한 세계질서가 지니고 있는 신적 내지는 악마적 특성을 이해하는 일은 누구나 가능할 것이다. 자연계와 영계 간의 접촉 내지는 중첩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가지 추측과 통계적 자료 및 거기서 나온 증거에 따라 어떤 하나의 영상이 구성될수가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행어나 자연신학의 문을 개방하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상상 밖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미신과 사교를 어떻게 적절하게 기술하느냐는데 있다. 사실 자연과학자들은 미신과 사교가 갖고 있는 마술적 성격 및 악영향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미신과 사교가 질병이나 병마를 취급함에 있어서 캐캐묵은 옛날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한 과학자가 그들을 알아볼 길은 없는 것이다. 설령 그 결과 분석이 가능하더손 치더라도 여러가지 병진단에서 오는 엄청난 실수는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

도자일지라도 내적 억압감정이나 정신분열증을 때로는 귀신에 홀린 것으로 착각할수도 있다. 정신분석학자일 경우에도 귀신이 들렸다가 사교에 빠졌다거나 잠신에 사로잡힌 것을 정신병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양자의 경우가 다 매우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분석자나 신학자가 정신병을 취급할때 어느 누구도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않는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우리들 서로가 저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않는다거나 자기가 할 일의 한계를 망각할 경우 우리에게는 맡겨진 전문직을 이행할 하등의 권리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사교접신이 가장 흔하게 가져다 주는 영향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세가지 영역에서 고찰해 보련다. 그 결과의 대부분은 이미 위에서 인용한 예를 통해서 언급된바 있으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보충하기로 한다.

(i) 영적 영역에서 : 영적인 것에 대한 무감각, 광신주의, 불화, 법에만 얽매인 생활, 무관심 내지는 무변화, 영적 교만, 바리새주의, 성경에 대한 집중력 부족, 자기중심적인 의, 냉소주의, 완고한 마음, 이유없는 불신, 종교적 광신, 회의, 성령을 의면하는 일, 종교에 대한 반대, 등등.

(ii)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 : 불안상태, 심한 오줌싸개벽, 억압감, 자아의지, 성적 태만, 자제력의 결핍, 급한 성질, 빈정대는 말, 병적 도벽, 신성모독적 사고, 탐욕, 노이로제, 복수감정 몽유병(夢遊病), 자살감정, 말다툼, 탐닉, 악몽, 주벽, 용서, 불허, 망상, 강제성을 띤 행동, 등등.

(iii) 신체기관의 영역에 있어서 : 비정상적인 형태, 유전적인 압박감정, 병적 두발 및 피부병, 지랄병, 히스테리적인 발작, 중풍, 잦은 유산, 신경성 장애, 귀먹어리, 성바이터스(St. Vitus)의 춤, 심한 경련, 등등.

이러한 증상들이 종종 나타나지마는 그 증상들이 반드시 초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성질의 질병이나 억압감이 때로는 의학적으로 규명할수있는 이유를 가지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미신이나 마술에 빠진 이들이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가지 부연해둘 것은 누가 병에 대한 자연적인 원인을 규명한 다손치더라도 미신적 요소가 작용할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둘 것은 "비력(秘力)에 의한 굴종은 신경과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말을 바꾸어놓으면 "신경 및 정신장애는 비력에 의한 굴종의 표시다"라는 말이된다. 그렇게 되면 이래도 저래도 되는 하나의 순회로가 되는 셈이다. 억압감이 다른 것과 그와 유사한 것들은 사교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

2. 미신과의 투쟁

미신과 사교가 가져다 주는 여러가지 나쁜 영향 및 억압감 등에 대처할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우리 자신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옳을까? 이러한 넓고도 흐릿한 사조를 우리가 막을수 있어야겠는가? 어디 효과적인 방어책은 없을까? 사실상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무엇보다도 사교의 성장-대지는 확장을 막아야할 것이며 그 나쁜 영향도 방어해야 할 것이다.

가장 쉽게 방어할수 있는 방법은 사교의 무의미성과 영터리정을 지적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해서 효과를 거둔 심리학자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미신이란 계몽의 결핍에서 결과되는 순전한 넌센스이다"는 것이다. 가령 나와 적대자가 없다면야 나 역시도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지나쳐 버리는 이가 있다면 그는 문제의 핵심

을 짚어보지도 못하고 말것이다. 그러나 미신의 본질만이라도 이해했던들 미신과 사고를 대항하여 싸우는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불행한 것은 현대교육이 미신적인 사고를 확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마녀와 마술 그리고 그와 유사한 현상에 관해서 일찍부터 소개를 받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주로 무지에서 온다. 왜냐하면, 그들은 뒤따라 올 끔찍한 악영향에 관해 전혀 예기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의 긴급한 과제가 있다. 즉, 우리는 선녀의 이야기나, 마녀, 마술에 관한 이야기 나아가서는 그러한 주제에 입각한 연극이나 영화 등을 배제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색깔이 찬란하고 쉽게 먹힐수있는 자료들은 어린 아동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게 된다. 심층심리학은 활동사진들이 아동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런데 무의식으로 받은 이러한 인상들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현대인들은 지성주의와 논리적 사고에 의해 성인의 생활이 성인이 되기 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몰두해온 소재에 따라 크게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렸을 적에 미신의 영향을 받은 장년들은 미신을 우습게 여기면서도 실은 목에 까지 미신이 차있는 것이다.

변명조차하기 어려운 것은 심지어 교회학교 아동들이 보고 있는 책자들 중에 마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소재자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손에 의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나는 몇 분의 이름을 등장시킬 수도 있겠으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만 두기로 한다. 하여간, 의문을 담은 채 편집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 있다. 1949년 더번의 남아프리카정부는 국내에 있는 학교 교과서에서 불실한 선녀이야기를 전부 삭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그리고 1950년

일본 신문들은 일본 문부성이 미신타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도한 일이 있다. 이러한 소위 계몽시대에 있어서 유럽은 아직 잠꼬대만 하고 있었으니 말이 되겠는가.

3. 구제의 실례

미신타파 사교를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뿐이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마술과 미신의 심도(深度)를 알아볼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술과 미신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만이 이 세상의 군왕을 이기셨고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그를 좃음으로서 우리는 모든 악한 자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하여 몇가지 구원에 대한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163. 열 세살난 소년이 찾아와서 심한 노동에서 오는 피로와 등에 입은 상처에서 오는 고통을 불평거리로 털어놓았다. 처음 그 소년의 부모는 가난한 탓으로 매일같이 밭과 숲에서 일손을 돕느라고 파로에서 온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갈 뿐이었다.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어 의사를 만나보라고 하였다. 종합검사를 하고난 의사는 그 소년이 척추신경조직에 생긴 질병에서 오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병세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좀더 빨리 진단을 받았다면 좋을 뻔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실망한 아버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사에게 물었다. 그때에 의사는 마술사 한 분을 소개해 주면서 “그 분을 찾아가 보시도록 하오. 그 분이 나보다 나을겁니다”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길로 아버지

는 자신이 악명높은 마술사와 한방에 앉아 의론하게 되었다. 그 마술사는 전염병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병도 성공적으로 치료한 결과표가 붙어있는 벽들을 둘러 본 다음 그 소년을 커다란 거울 앞에 서게했다. 마술사는 뚫어지게 쏘아보더니 하는 말이, "너에게는 크게 잘못된 일이 있군그래. 좀더 빨리 왔어야 했을 일을, 자, 우리가 할수있는데 까지 해보기로 하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난 다음 그 마술사는 소년의 몸 위에 세계의 십자가를 그리고나서 세번 침을 놓은 다음 라틴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나서 소년에게 아르니카(Arnica) 문장(紋章)을 주면서 하루 세번씩 등을 문지르라고 하는 것이었다.

한달 후 그 소년은 다시 찾아왔다. 그때 마술사의 말이, "만일 너가 병을 고치고자 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안될거야"하는 것이었다. 떠나오면서 아버지는 모든 환자들이 다 아르니카 문장이 들어있는 팻들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예외에 속할지 모르나 이것은 치료자가 하는 유일한 약처방인 것이다. 환자가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는지 아니면 탈구증(脫臼症)이나 육체적 상처로 고생하는지를 문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문장(紋章) 하나를 주어 피부를 문지르도록 하면 그것 뿐이다. 피중독의 경우는 예외로서 환자로 하여금 뜨거운 옥수수죽을 몸에 바르게 한다.

이같은 경우 약은 치료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못한다. 그 보다는 삼위일체의 이름이나 아니면 악마의 이름을 빌어서 마술적인 방법을 써서 침을 주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 소년은 세 차례에 걸쳐 그를 찾았는데 결국은 마술에 의한 치료를 받고 나오게 되었다. 그 소년이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에 기독교 신자인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아내의 권유로 성경도 읽게 되고 교회도 출석하고 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 경청한 나머지 신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그때부터 그는 다시 억압감과 자살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치료 후 그의 생활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이었던 것이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만 보려고 하면 답답하고 불안해진다면서 아무래도 치료한 마술사가 자기를 악마에게 넘겨준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는 심한 억압감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본 의사의 말이, “이 약으로 열명은 능히 죽일수 있겠군요”하는 것이었다.

그후 몇 주간이 지난 뒤 그를 위한 기도그룹이 조직되었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수차에 걸쳐 안수기도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몇달 동안을 이렇게 투쟁하는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강박을 몰라치고 승리의 개가를 울리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악마의 속박이 무너진 것이다. 이 청년은 마술적 치료에서 얻어진 병까지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다는 성경의 말씀대로이다.

164. 어떤 부인이 상담차 나를 찾아왔다. 그 여인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 부인의 불확신이 마치 마술에 사로잡힌 사람의 반항과 비슷한 데가 있기에 그녀의 과거를 물어보았다. 그녀의 지난 날의 자취는 다음과 같았다.

즉, 그녀의 모친은 자녀 중에 병만 나게되면 무조건 마술치료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모친이 삼위일체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문을 읽는 동안 아이들에게는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였다고 한다. 계속해서 나는 그녀의 형제와 남매들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 역시도 억압감과 성적 고민을 겪고 있다고 실토했는 것이었다. 그들은 때로는 기독교 신자가 될 생각으로 상당한 기도도 해보았지마는 때때로 일어나는 광증으로 기독교를 부인한 때도 있었다 했다.

한번은 그녀의 동생이 자기를 보고, “난 아무래도 악한 귀신에 홀렸나봐”하고 말하더라도 것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난 나는 때는 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을 낱알이 설명한 다음 미신의 속박을 이기고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모든 방법을 알려주었다. 드디어 그 부인은 집에 돌아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악마의 세력과 싸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며칠 후 그 부인은 얼굴에 웃음을 담고 찾아와 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생애를 통해 이처럼 행복감에 젖어 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165. 제2차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로젠베르크(Rosenberg)의 “20세기의 신화”(Myth of The 20th Century)를 논박하여 이름을 떨친 어떤 목사는 자신의 미신의 악한 세력에 대한 경험담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강의를 통해서 비신과 사교에 대한 통렬한 비난을 언제나 퍼부었다.

하루는 점장이를 공박하기 위한 증거를 얻기위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궁도를 가져다 놓고 세밀히 검토해 보았다. 그는 생각에 도테체 이 따위 미신이 어데 있단 말인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루어지지도 않는 예언을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대로의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의식 중에 궁도의 예언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럭 저럭 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미신의 속박에 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의 생명을 의탁하게 되었다.

지금은 그에게 있어 12궁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생활은 12궁도나 ‘우주생리’(cosmobiogram)가 예시하는 방향에서 떠난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전에 최

년의 희생물이었던가? 아니면 의식없이 12공도를 믿게 되었는가? 혹은 성취욕이 강해서 그것의 희생물이 되었거나 혹은 어떤 점성술 형태의 악마의 발톱에 말려든 것이었을까? 우리로서는 어떻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경우야 어떠했던 간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속주 임을 증명한 것만은 사실이다. 과거부터 엄메인 미신의 속박을 끊는 데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뿐더러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의 지나간 8년 간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166. 지금은 교회일을 보고 있는 어떤 소녀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자. 그리스도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평있는 교인으로서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었다고 한다. 한번은 미신에 몰두한 자를 집에 초청하여 신앙적 상담을 해주게 되었다. 그 사람은 억압감에 사로잡혀 고생하던 분으로서 밤이면 심한 공포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에 아무래도 마귀가 이런 고통을 자기에게 주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그가 어렸을때 여러 가지 마술을 행했는데 지금은 건강이 약해져서 바보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그 소녀도 함께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소동이 벌어졌다. 내용인 즉은, 그 소녀가 혼자서 미신에 사로잡힌 이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였다. 그 소녀는 간곡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 이 사람의 집을 벗겨주시고 대신 자기로 하여금 그 집을 지게 하달라고 주님께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자기도 그 속박의 집을 벗게 해달라는 간구였다. 벼란간 그 소녀가 있는 방안에 이 세상에서 보지못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몇몇 말굽 틈에 끼여 마루바닥에 내여동맹이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움직일려고 해보았으나 꺾꽂하

지 않았다. 그대로 몇 시간을 누워있을수 밖에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일은 비명이었다. 즉,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하는 외침이었다. 그날 밤 그 소녀가 겪었던 것이 바로 지옥의 체험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늦게서야 몸을 가누고 침실을 나와 기다시피하며 안방으로 건너갔다. 소녀의 어머니가 딸의 꼴을 보고나서 하는 말이, “애야, 너 어젯 밤 무슨 일 있었구나”하자, 소녀의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소녀는 말한마디 못하고 완전히 녹초가 되고 말았다. 그 다음 자기가 기도 중에 겪었던 투쟁에 관해서 일일이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였다. 그녀의 양친이 시종 이야기를 듣고나서 그렇게 하지말라고 말을 타일렀다.

한 시간 후 소녀가 위하여 기도해주면 그 남자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행복한 모습으로 긴장도 풀리고 기뻐하며 하는 말이, “지난 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행방된 몸으로 만들어주셨답니다”하는 것이었다. 불안과 마비증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이 소녀의 신앙적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구하셨던 것이다. 그 소녀 자신도 별다른 후환없이 곧 신앙의 시련기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죄수의 착고들 부수시고,

사탄의 머리를 찢으시도다.

그의 말씀이

힘이 없는 영혼에게 능력을,

그리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마고.

요하네스 자이츠와 같이 일하던 신자인 교사 한 분이 내게 들려준 그의 체험담의 한 귀절이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훌륭하고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에 출판에 붙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 이야기들은 오늘날도 기독교 사역자들이 다 같이 사실로 인정할만 하기에 여기 다시 실어본다.

167.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그 분은 어느 부한 농촌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분이였다. 그곳의 농민들은 생활이 넉넉하고 풍족했기 때문에 구세주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해온 이 선생은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농부들이 좀처럼 교회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축조전도를 시작한 것이다. 하루는 한 농부와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 농부는, “당신은 당신이 갖고 다니는 소책자의 메시지를 믿고 있는겁니까?” 하고 물어왔다. 선생의 대답이, “예, 물론 믿고 말고요. 내가 만일 믿지않는다면 당신들에게 줄리가 만무할겁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농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모든 사실들이 정말이라고 믿습니까? 혹시나 단순한 종교적 횡설수설은 아니겠지요?” 하고. 젊은 선생은 “이것은 정말로 확신에찬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쓴 것이랍니다. 당신도 마음놓고 믿을 수 있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아, 바로 그것은 내가 알고 싶어했던 것입니다”하고 농부는 말했다. “그러시다면 제가 지나간 주일에 드린 전도지를 기억하시겠군요”하고 선생이 말을 이었다. 농부의, 대답이, “물론이죠. 믿음으로 병을 고친 분에 대한 이야기 말이군요”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내 아내도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하고 농부는 놀랜 표정이였다. “이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언제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히 같으신 분이 아니겠으니까요”하고 선생은 대답했다. “그러시다면 나는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가십시오. 나와 같이 가서 내 아내를 만나 봅시다. 내 아내는 의사도 도움을 주지 못했답니다.”

“무슨 병입니까?” “아마 신경병 아니면 그 보다 더 악독한 병일 겁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이런 병도 고칠수 있는지요?” “있구 말구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실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수없는 것 까지도 말입니다.”

그 길로 농부는 이 교사를 데리고 집이 아닌 창고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사닥다리를 타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놀란 선생은 농부의 뒤를 따랐다. “내 아내의 방은 저쪽 구석입니다”하고 농부는 그곳을 가리켰다. 그의 아내가 있는 방은 굳게 잠겨있었다. 농부는 맹꽂이 자물쇠를 열고 철빗장을 치우고 선생을 방안으로 인도했다. 살벌한 방안의 분위기가 청년 선생을 오싹하게 하였다. 방안의 벽은 오줌과 똥으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은 빗장으로 닫혀있었다. 가구다고는 한쪽 구석에 놓인 허술한 침대 뿐이었다. 농부가 문가에 서 있어서 물러설래야 설수도 없게 되었다. 악령이 선생을 내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기도를 시작했다. 즉, “주여, 당신의 피로 나를 감싸주소서. 저를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지금 이자리에서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아는 것은 당신은 무엇이나 물리칠수 있다는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침대 위에 있던 담요가 움직이며 창백하고 무섭게 생긴 얼굴이 뒤에서 나타났다. 그 사람이 바로 농부의 아내였다.

그 여인은 자기 방에 들어 온 선생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니 침대 위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다시 웅크리고 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팔딱 팔딱 뛰는 무슨 동물과도 같아 보였다. 선생은 선채로 주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였다. 갑자기 여인은 젊은 선생 곁으로 펄떡 뛰어내리더니 눈이라도 핏줄듯이 쏘아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척 하더니 다시 침대로 황급히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러기를 수차 되풀이하였다. 마치 먹을 것을 만난 야수처럼 이 선생의 주위를 맴돌다가는 한 발

책쪽 뒤로 물러서서 다시 침상으로 되돌아가곤 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 여자는 성이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몹시 웨방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자 그녀의 남편 까지도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여인은 옷을 찢고 발가슴의 알몸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선생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다. 선생의 생각에 이 여자가 지금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선생에게 있어 이런 일은 전에 못본 처음 당하는 일로서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기도하기를 이 여인이 침대로 돌아가서 평안히 잠잘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빌었다. 그랬더니 여인은 순순히 그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지 불과 몇분이 지났을까 해서 여인은 다시 발작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두번째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선생은 용기를 내어 의치기를, “예수께서 승리하셨다”고 고함을 쳤다. 드디어 여인은 침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있는 것이었다. 투쟁은 끝이 난듯 싶었다. 농부가 하는 말이, “선생이여 이제는 이 방을 나가 주시지요”하는 것이었다. 문을 닫고 농부의 하는 말이 “전에는 어떻게 가만히 있은적이 없는 걸 보아 좀 나아진것 같습니다”하고 말했다. 지친 선생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내를 고칠수가 있습니다. 의사로서 불가능한 일이지마는 당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부인을 위해 기도하시면 병이 나을겁니다”고 하였다.

그때 농부의 말이,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선생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로서는 기도해서 틀림없이 아내가 나올 것으로는 믿기가 어렵군요. 나는 내 아내의 병치료가 어렵다는 편지를 몇몇 정신분석학자로부터 받은 일이 있습니다. 병진분석을 위한 임상실험을 할 때에도 야수같은 행동을 했답니다. 머릿털을 쥐어뜯는가 하면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뛰어다니니까

지 했답니다. 심지어는 주위 사람을 때리며 자기가 배설해 놓은
똥을 먹는일 까지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는 수가 없을까요”하고
말했다. 그때에 선생 대답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리다
고 보십니까? 지금 당신의 아내는 병아닌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
고 있는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의사가 못합니다. 단지 길이 있다면 기
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입니다”하고 말했다. 농부는 수
심스런 빛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것은 마술, 미신의 판습, 카—드점, 마술에 의
한 치료 때문이지요”하고 선생은 답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아내 방에 기도하고 있을때 혹시 당신의 부인이
강신주의에 빠진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인상을 내가 받았읍니다.
강신주의자는 책상을 치켜들기도 하고 죽은 사람과 접촉도 하지
요”하고 선생은 말해주었다. “웁습니다. 저의 아내는 언제나 그
런 것을 해왔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이제 당신들 두 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농부의 말이,
“그런데 내 아내는 완전히 미친겁니다. 의사들도 다 불치의 병
이라고 했는걸요. 당신 만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믿기 어
렵군요.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말을 주고 받는 사
이에 두 사람은 대문 밖까지 나와 선생은 작별의 인사를 남기고
떠나왔다.

다음 일요일에도 선생은 쪽 복음을 돌리며 집집을 방문했다. 때
마침 귀신들린 그 부인의 집에 이르렀다. 불현듯 뛰어들어가 보
고 싶은 생각이났다. 농부가 선생을 보더니 뛰어나오며 “선생,
보여드릴 일이 생겼읍니다”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선생의 생각
에는, “웁다, 또 다락이로구나”하는 생각이 스쳐지나 갔다. 아

나나 다를까, 농부는 선생을 그의 부엌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부인을 가리킨다. 그 부인은 전에 고생하던 그 농부의 부인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선생을 몰라 보았다. 선생 역시 지난 날의 병에 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은 귀신들렸던 어인에게 나타나 주신 주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

자기 방으로 인도한 농부는 그동안 일어난 일의 전말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지나간 월요일 남편이 조반을 가지고 아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을때 몇년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 아내는 말씨도 분명했으며 갈아 입을 옷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그때 남편은 모험삼아 아내를 데리고 아랫층으로 내려갔다. 아내는 몸단장을 마치고 집안 청소에 임하는 것이었다. 계속 해서 지금까지 음식도 짓고 집안 일을 돌봐오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에는 늘 아내의 병이 재발하지나 않을까 하고 고심해온 터였다. 다행히도 아내의 병은 재발을 면하고 지금껏 건강이 좋다는 것이다.

일주일이 지난 날 남편 되는 농부는 문밖에서 그 선생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선생의 모습을 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더 신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하고 반가히 맞이하였다. 그 때에 그의 부인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게 아닌가! 그 부인은 전부터 피아노에 익숙한 분으로 지금 이렇게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내는 시장에 나가 물건도 사왔으며 집안의 일을 알뜰히 보살피고 있다면서 만족해하였다. 기적이 나타난지 3주 후 이 부인은 튜링겐에 있는 양친을 만나 기쁨을 나누었다고 했다. 이제는 병도 완쾌되었을 뿐더러 과거의 모든 고통이 깨끗이 가시었다고 했다. 선생은 그제서야 용기를 얻어 부인을 향해 지난 날의 병에 관해서 물어보게 되었다. 그 부인의 대답이 다

회미해서 잘 기억이 나지않지마는 두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기억 남은 남아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 한 분은 검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분은 백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백인이 “예수는 승리하셨다”고 소리치더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자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선생의 방문에 관해서는 기억하는 바가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선생은 입을 다문체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였던 것이다. 그 부인은 지금 와서 아주 건강이 좋아졌다고 한다. 이사 실은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세력을 억누르시고 계속 승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의 실례도 그 선생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데 대한 이야기인데 복잡미묘한 사탄의 세력에 관해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그 선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보기로 한다.

168. “내 친구 중에 독서벌레 친구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돈만 생기면 책을 사는 것이었다. 그의 관심은 주로 사교와 미신에 관계되어 있었다. 그것들에 관한 책이라면 모조리 사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밤이 늦도록 책을 읽는 것이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저승에 대한 이해와 “예언자들”의 지혜에 무척 매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보다 순수한 인간”, “보다 교차원적인 인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책에서 추천하는 운동과 음식을 취하는데 힘썼다. 그 보다도 영계의 계시를 받았으면 싶었다. 얼마간은 일이 잘 되어가더니 갑자기 그가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소문이 향간에 떠돌기 시작했다. 정신이상인 그는 살펴보고 눈에 띄면 무엇이나 집으로 끌어들이며 가까이 오는 사람은 험박을 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정신병 임상실험을 위해 뻘뻘한 지하실 방구석에 가두었다. 거기서 그는 마치 야수처럼 으르릉대며 고향을 치기도 하였다. 건물이라도 떠나갈듯이 큰 소리로 외

치는 것이었다. 과격한 그의 행동과는 달리 생각은 또렷했다. 사리도 판단하고 말도하며 듣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중심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리스도를 웨방하다느니 혹은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된다느니 하는 음성이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는 흑암의 세력의 먹이로 전락한 것이며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었다. 그의 양친은 다 기독교 신자였으므로 목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였다. 여럿이 모여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열심히는 기도도 아랑곳없이 병세는 악화일로로 걷고 있었다. 그의 중심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라고 재촉했다.

결국, 주님께서는 형제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어서 며칠 후 그는 지하실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있는지 얼마 후 또 하나의 우환이 닥쳐왔다. 갑자기 그의 눈이 멀었다. 여러 분이 모여 또 다시 그를 위해 기도하였다. 마침내 그는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악마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악마는 그에게 색다른 병을 가져다 주었다. 이른 날 아침 일어나보니 온 몸에 문둥병과 부스럼이 가득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진물투성이었다. 그는 입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아무도 그와 같이 방에 있을 사람이 없었다. 교인들이 모여 간곡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3번째 기도를 응답하시었다. 마침내 그는 완쾌된 몸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악마는 그의 패배를 만회하려고 그에게 성병을 가져다 주었다. 다시 그는 입원할 수 밖에 없었다. 의사들은 전에 앓은 병의 원인으로 성병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수술받기를 거절했다. 그와 더불어 여러 사람이 기도하였다. 그때부터 병세가 호전되어 수술은 받지않아도 괜찮게 되었다. 성병은 완쾌되었다.

다음에는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양손과 발이 뒤틀리어 걸

울수도 없게 되었다. 버팀목을 의지하고 다닐수 밖에 없었다. 그 제서야 비로소 신자들은 이 병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환자에게 설명하고는 미신과 관계한 일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때까지 그는 도덕적으로 별 파오없이 생활해온지다 고백할만한 죄목이 떠오르지를 않았다.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가 미신과 무당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 왔노라고 고백하였다. 그의 방을 짝 메운 책들은 거의가 미신에 관계된 것들이었다.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던 지도자가 미신과 무당에 관한 그의 문학서적들을 보고 깜짝놀라는 것이었다. 그는 단호히 그러한 문학에서부터 손을 떼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만큼의 책을 사들이기에 투자한 돈의 액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를 아니하였다. 얼마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론에 가서는 “그 책들을 없애든가, 아니면 악마의 이용물이 되든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는 굴복하고 말았다.

그들은 그 책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렸다.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불사르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그는 책을 불태우는 서운함에 서인지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책들이 거의 다 타갈 무렵해서 뛰어들어 가더니 가죽피로 된 제이콥·로버가 쓴 책을 꺼집어 내면서 하는 말이, “이 책만은 태울수 없어요. 이것만은 내가 소유해야겠습니다”는 것이었다. 다른 책들은 다 태우게 하면서도 유독 그 책만은 간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는 그 책마저도 불사르고 말았다. 그후부터 그의 정신상태는 나날이 양호해갔다. 지난 날 그렇게 지긋 지긋하던 고통이 자취를 감추었다.

몇 주일 후 그는 한 기독교인의 권고로 어떤 기독교 요양원엘 들어갔다. 거기서 지내면서 그곳 목사의 지도를 받아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의 생애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비틀린 손발도 책을 불사른 그 순간부터 차츰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영·육이 다 같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어떤 큰 회사의 기사가 되었다. 그후 그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것이다.”

다음의 네가지 이야기는 어떤 부흥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로서 그의 허락하에 여기 수록한다.

169. 1956년 한 젊은 부부가 상담을 하러왔다. 그들 부부는 카톨릭 신자들로서 밤이면 집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신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 보았으나 그 신부 역시 그러한 경험에 없는지다 조언을 못주었다.

훌륭한 건축기사인 남편의 이야기가 이력했다. 즉, 지정한 밤 시간만 되면 갑자기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방을 통해서 옆방 침실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잠들고 있는 침대 위를 내려들친다고 하였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발로 차도보고 매려도 보았지만는 도저히 어떻게 막아낼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낮에 일하고 밤에 또 그런 전쟁을 해야하니 이거 지쳐서 못견디겠다고 하였다.

부인은 팬찮은데 남편 만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견디다 못해 그들은 딴 동리로 이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사해서 집을 정리하고 안정을 얻으려고 하면 또 귀신이 나타나곤 하는 것이었다. 한번은 남편의 침대 위에서 “응, 알겠어. 난 지금 당신을 찾고 있지뭐예요”하고 어떤 부인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한다. 아무래도 마술과 관계가 있는것 같이 생각되어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남편의 말이 돌아가신 그의 모친은 죽기 전 까지 접치는 일과 기타 미신에 몰두했었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는 우리들의 집회에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배로운 피에

호소했더니 두 사람 다 액운에서 해방을 받았다.

분명히 말해 둘 것은 그이가 밤에 당하는 고통이 성적 망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는 육체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정상적이었다. 그러한 문제는 선교지역에서 종종 경험할수 있는 문제이다. 신접(神接)한 사람은 악마가 주는 고통과 시험을 당하기가 일쑤다. 이상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실례가 중국에도 있는데 소위 “여우홀림”(fox-Possession)이란 것이있다. 이것에 관하여는 나의 저서 “상담과 사교”라는 책에서 “인쿠비와 수쿠베”(Incubi and Succubae)의 항목을 이용해서 설명한바 있다. 나의 상담경험을 미루어 볼때 정신분석학적 치료가 이 분야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사탄의 어두운 새력을 물리칠수가 있는 것이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곧 악마를 물리치고 승리하심을 나타낸다. 앞에서 말한 카톨릭 가정의 경우를 볼때 그러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접근할때 구원을 얻었던 것이다.

170. 1945년 7월 한 부인이 수십에 잠긴 안색을 하고 찾아 와서 내게 도움을 청했다. 그 부인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두 딸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출생후 6주가 되는 날부터 울기 시작한 딸은 18주가 되기까지 줄곧 울기만 하는 것이었다. 의사에게 보여 보았지마는 그도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면술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의뢰했더니 약간의 회복기가 보였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루는 밤에 자기 침대 곁에 야기를 두고 자는데 머리를 더듬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에 마치 짐승의 털같은 것이 잡히는 느낌이였다. 벌떡 일어나 불을 켜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번은 그 아이가 세살반이 되던 때였다. 아이가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어미를 보고 “엄마, 성경을 읽어줘요”하는

것이였다.

때는 1941년 9월 14일 아침 10시였다. 창 밖에서는 새플이 지저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아이가 죽고 말았다.

1942년 그 어머니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하루는 어떤 부인이 찾아 와서 카드를 놓아보더니 딸을 낳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 속에 무섭게 생긴 부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당신은 또 딸을 낳을겁니다. 그 딸 역시 죽을 것이오”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딸을 낳았다. 생후 6주가 되던 날 아이가 거의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이의 어머니는 최면술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1964년 10월 18일 창 밖에서 전에 울던 새가 다시 우는 것이었다. 그때 아이는 어미의 품에 안긴채 숨을 건우고 말았다. 생후 15개월 때던 때 의사에게 보여 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지금 부인에게는 14살 짜리 아들이 있다. 짐을 해보니 그 아들마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 그 부인은 아들을 잃을까 걱정하던 나머지 슈트라스부르크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내 사무실에 들어서려는 즈음 바깥에서 “무엇하러 왔으? 당신은 종교인으로서 세례와 견신례도 받고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오?”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때 부인은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다. 몇 마디 이야기가 주고 간후 나는 그에게 회개하고 옛 생활을 돌이키라고 권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그녀의 생명을 맡겼다. 기도하고 난 그녀의 기분은 짐을 벗은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일러준 다음 이렇게 말해주었다. 즉, “믿기만 하면, 당신의 아들이 살아

날 것이요. 결코 악마가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고. 그 부인은 기쁨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우리들 역시 은혜와 승리의 주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다.

그녀의 아들은 나중에 훌륭한 신자선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출석할 것을 권하며 전도에 힘썼다. 어떤 집회나 파티에서도 이웃 봉사를 통해서 칭찬이 자자했다. 1946년 네째 아기를 낳은 그의 어머니는 아기의 순조로운 성장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리스도에게 생애를 바친 모친은 그때부터 과거의 고뇌와 억압감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방금 언급한 실례에 관해서 신학자들과 의사들 간에 의견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정신적 질병에서 온다는 것이며 순전한 심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볼트만 학파에서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설화들도 같은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당시에 있었던 악마의 세력이 오늘에 있어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단순한 시대적 산물로 보아 넘기려하고 있다.

나 자신은 그러한 입장에 동의할수가 없다. 누구나 극심하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상대하여 상담을 해본다면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의학적 기초 위에서 설명이 능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합리주의적 신학으로는 그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능한 길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부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술적 치유의 결과와 악마의 악영향 간에는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다. 그 부인의 말에 의하면, 그가 어렸을때 마술치료를 받은 일이 있고 18세가 되던 중병을 앓게될 것이라는 카—드점장이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

이다. 그 후 4년이 지났을 때 그 부인은 폐병으로 고생을 했던 것이다. 상담 결과 그 부인의 모친은 과거 마술의 추종자로서 일생을 그것에 종사했음이 밝혀졌다. 그 밖에도 그의 가족은 마술이 성행한 마을에서 오래도록 살았음이 들어났다. 그 부인과의 상담을 계기로 그후 나는 바로 그 마을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끈덕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집회를 인도해 주시었던 것이다. 그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정이 회개하였으며 그 부인의 친척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동시에 많은 마술의 행각도 폭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자로 군림하셨던 것이다. 지금 그 마을에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형제들이 모이는 교회가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171. 때는 1954년이였다. 나는 슈트라스 부르크에 있는 한 귀신들린 사람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너무 너무 고통이 심하여 견디다 못해 같은 마을에 사는 목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으나 허사였다는 것이었다. 그 목사가 나를 자기에게 소개하더다면서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이 당신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는 다시 그곳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그의 형이 병원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마는 병원 생각만하면 소름이 끼친다는 그의 말이다.

나는 그가 마술의 흥계에 걸려있음을 알수가 있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어렸을적 부모가 집안에서 굿을 한 기억이 있고 자기도 점장이와 그 밖의 사람들을 찾아간 일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병으로 앓게 되자 그리스도의 거짓 사도인 몽파웨의 죠르주 루우가 찾아와서 삼베 조각 셋을 달라고 해서 그것에 소위 성수(聖水)라는 것을 적시어서 환자의 몸에 얹고는 손을 들고 기도해 주더다고 하였다. 그후 부터 악마로부터 호된 고통

을 겪는 중에 있다고 자백하였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마치 벌레떼들이 베개와 담요 밑으로 기어가는 느낌이어서 자리를 옮기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때 나는 당신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지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셔츠를 벗고 몸에 지녔던 호신포 두개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중 하나는 무당에 종사하는 분에게서 얻은 것으로 그 속에 몇개의 십자가와 격언을 적어 놓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다른 하나는 동전(銅錢) 한 잎과 천 조각으로 누벼진 손톱 크기 만한 왁스 조각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이 호신포는 도움을 청하러 갔던 수도원에서 받은 것이었다. 수도원에서 그것을 주면서 늘 가슴에 품고 다니다고 알려주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정화된 밀초를 조금 받았는데 커피에 타서 먹도록 하라는 지지도 받았던 것이다.

나는 호신포 둘을 빼앗아서 아궁이에 넣어 불태워 버렸다. 그것을 무척 근심스런 얼굴로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후환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생활을 정리할 것을 알려주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지은 죄악상을 고백하는 것이 없었다. 때로는 몇주 만에, 때로는 몇 달만에 한번씩 나를 찾아와 마음에 걸리는 새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흠친 물건을 퍼들려 주는 일까지 했다. 악마의 공격을 다시 받은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그는 착실한 신자로서 소속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

마술이 가져다 주는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은 그의 생을 통해서 무시 무시한 체험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악마의 억압과 짐이 산처럼 높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주위에는 속박과 착고에

업매인 사람들이 풀림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172. 1956년의 일이다. 하루는 고독한 생활을 해온 한 파부가 상담을 청해왔다. 그 부인의 이야기는 이려했다. 그녀의 남편은 철도국에서 일하다가 지난 해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죽은 뒤 설혼 아홉살 난 그의 딸이 생활을 꾸려왔다는 것이다. 딸로 말하면 제주도 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도 많은 아이인데 갑자기 정신이상이가 되어 하루 밤은 몇해 전에 죽은 남동생의 시체를 파다가 묘지 현장에서 경찰에 잡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손에 뼈다귀를 쥐고 있었는데 누구도 접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었다.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집의 방 한칸이 잠겨있는 것을 알고 열쇠를 찾아보았으나 찾지를 못했다. 후에야 안 일이지마는 그것이 정신병원에 있는 자기 딸의 소행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어미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때 방안에는 마술에 관한 책이 가득하였다. 그것을 본 아내는 자기 남편과 딸이 이 책을 사용해서 마술을 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에는 그런 짓을 한 일이 없을 뿐더러 아내 자신이 하려고 해도 막아왔던 남편이었다. 나는 그의 친척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 딸이 어렸을 적에 수차 마술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 책들을 끌어다 불태워버렸다.

바로 그날 무슨 수군 수군하는 소리와 문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깨어보니 그가 자고 있는 방에서 벽과 가구 두드리는 소리도 나고 발자국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다. 놀란 부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가 가사도 외우고 기도를 하였더니 그 잡성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밤마다 계속되었다.

나는 그 부인에게 회개와 참 믿음에 관해 설명해주었다. 그랬더니 부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권하기를 부인에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때 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였다.

그후 사태가 더 악화하여 더 이상 참을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가 그 부인으로부터 날아왔다. 나는 즉시 그책으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이 나가라고 호령했다. 그후 부터 잡성과 고통이 사라졌다. 이는 “권위있는 명령에 더러운 귀신들도 복종하더라(막 1:27)고 하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속박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4. 신약성서의 교훈

지금까지 언급해온 구제의 실례를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신약성서의 교훈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다.

다음에 인용할 두가지 실례는 구제에 관한 소상한 논급이 못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담과 사교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탄”이라는 두 책에서 자세히 다룬바 있기 때문이다.

1. 미신에 사로잡힌 자를 치료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세심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미신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기독교인의 상담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병과 신접(神接) 사이에는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정신분석가나 심리학자들은 순전히 물리적 법칙만이 타당성이 있는 법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해 못할 것이다. 그러나 명목상의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정신분석가는 이에서 예외다(빌 2:27; 딤후 5:23; 딤후 4:20).

2.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미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없는 사람은 어떤 구제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골 2:15; 엡 6:16-17).

3.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할 것까지는 없지마는 고백에 대한 권유는 절실히 필요하다. 고백이란 감추어 두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약 5:16; 행 19:18).

4. 축구의 기도가 교회 내에서 지난 2천년을 두고 사용되어왔다. 또 그 가도가 구원에 있어서 한 몫을 차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개 이렇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그 길을 봉쇄하오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지극년부터 영원까지 자신을 바칠 것을 맹서하나이다.” 이런 성질의 기도를 드리는 비밀단체는 흑암의 권세와 착하는 단체로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어야 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 그러한 가도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어도 안될 뿐 아니라 마술의 주문이 빠져서도 안된다. 기도는 마음에서 부터 일어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마 5:7).

5.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이 그렇게 조금하게 행해져서는 안된다. 만일, 그렇게 되면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의 싸움 속에 귀신잡히는 생각을 암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권위를 떠난 명령은 무용하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행:19-17, 16:18).

6. 가도와 금식은 우라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다(마 17:21, 18:19). 작은 그룹도 이에 포함된다. 크리스찬들 중에는 밖으로 들어대지 않고 어떤 날을 택해서 특별히 필요할때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들도 있다. 작은 기도회 모임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귀신들린 사람을 위해 같은 가도의 목적을 가지고 두 세명이 모여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 적어도 한 주일에 두 세번씩 모여 기도할때 구제는 가능할 것이다.

7. 진집을 받은 사람은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축출당한 세력들이 방관하는 틈을 타서 다시 침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눅 11:24).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필요하다(엡 6:16, 17). 만일 후에 다시 고생하게 될 때에는 즉시 믿음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이다(벧전 1:2). 상담자의 도움은 언제나 구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미신분야에 대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이점을 특별히 강조해두고 싶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제된 자는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속해 있어야 하며 같이 떡을 떼며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행 2:42). 바람에 날리는 밀잎은 다른 잎새에 의지하여 지탱되어 갈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혼자 서게되면 곧 넘어지고 멸망하기 쉽다(엡 3:10).

그리고 한가지 강조할 것이 있다. 곧, 최후 승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주께서 오른 손을 드사 그 손으로 악을 멸하시느도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를 가르치르는 다리를 통행하고 있다. 이 다리는 한 쪽은 골고다와 부활의 아침에 다른 한 쪽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의 성취와 더불어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그 다리 밑으로는 더러운 오염의 강물이 흘러가며 침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악이 증발하여 상승함에 따라 교회는 이와 같은 독소담은 사탄의 기만과 사기의 덩구름을 헤치고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독소 섞인 미풍 세 몽롱해있는 사람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늘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실 아닌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개에 뒤덮여 열의와 목적을 잃고 부글 부글 끓고 있는 습지에 머리를 쳐박고 비틀거리고 있지않는가. 이 심연 위에 “비겁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와 가증한 자와 실인한 자와 음란

한 자와 마술장이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이라”(계 21 : 8)고 성서는 이룩하고 있다. 교회는 가끔 혼돈을 가져온채 “진리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일편 밑바닥에서부터 증발해 오르는 수증기에 늘 위협을 받고 있다. 골고다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잇는 다리 위에는 수많은 군사와 파수꾼들이 줄을 지어 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외치시는 분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저분을 보라고 가르키고 있다. 철통같은 경계와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지에 닿고 있는 이들이 멀리서부터 울려퍼지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이겼다”(계 12 : 11)고. 이제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영광의 목전에서 흠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분께, 오직 한분 되신 구세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가 창세전 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있을 쩌어다. 아멘.

판 권
소 유

악마의 에이, 비, 씨

1969년 12월 15일 인쇄

1969년 12월 20일 발행

저·자 K. E. 코 호

역·자 박 달 진

발행소 백 합 출판사

서울 종로 5가 407

총 판 교 문 사

대체 2026
전화 73-8017

→ 앞면계속

또한 그는 건전한 신앙을 기초로 과학의 혁명을 가져온 현 20세기에 성행하고 있는 미신의 행패와 그것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다.

의사들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벗어난 많은 문제를 신앙적으로 지도한 실례가 200에 가깝다.

그는 거듭 힘주어 말하고 있다. 즉,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모를 마술에 걸려있다”고. 여기에 간략한 악의 세력과의 투쟁사가 있다.



저자 소개 :

K. E. 코흐 박사는 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이다. 그는 독일의 튀빙겐 대학교에서 의학과 심리학 및 신학을 전공하였으며 상담학의 권위자이다. 그는 지금까지 세계의 100여국을 순방하며 여러 대학과 신학교에서 미신의 문제를 가지고 강의해왔다. 그의 저서는 각국 말로 번역출판되었으며 지금도 계속중이다. 여기 블랑케 (Blanke) 박사의 말을 이용하면, "나는 그의 완벽한 저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는 너무도 유명할 뿐더러 그가 취급한 모든 사건은 대개가 근원적이고 특수한 것들이다. ... 그는 신학의 본거지에서 그 나름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여 가장 권위있고 정명있는 역작물을냄으로써 페이지 마다 개척자적인 기풍이 풍긴다."

저자의 저서들 :

1. CHRISTIAN COUNSELLING AND OCCULTISM.
본서는 각국 말로 번역되었으며 의학과 심리학 및 신학의 견지에서 본 사교현상을 다루고 있음. 저자의 튀빙겐대학교에서의 박사학위 논문집이다.
2. BETWEEN CHRIST AND SATAN.
본서는 점, 마술, 강신술 등의 항목을 나열하여 사교와 미신에 대한 연구와 상담을 통한 160여개의 실례를 제시하고있다.
3. THE DEVIL'S ALPHABET.
43종의 미신의 형태를 취급하고 있다.
4. THE STRIFE OF TONGUES.
현대 방언운동에 관한 목회자로서의 평을 가하고있다.
5. DAY X.
현재의 세계상황을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견지에서 관찰하고 있다.